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19-01

[12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

2013. 1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 자료는 '12년 농촌 현장포럼이 추진된 마을을 대상으로
1년후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연구개요	01	IV. 정성적 효과분석	75
1. 연구개요		1. 정성적 효과분석을 위한 사례구성	
2. 연구모형		2. 정성적 효과분석 우수사례요약	
3. 연구 추진일정		3. 정성적 사례 종합결과 분석	
		*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기술	
II. 연구방법론 설계	07	V.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113
1.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현장포럼 이해관계자 분석		2. 향후 과제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론 설계			
III. 정량적 효과분석	23	VI. 부록	125
1. 정량적 효과분석 개요		1. 주민대상 설문항목별 결과 분석	
2. 종합결과 분석		2. 전문가대상 설문항목별 결과 분석	
3.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분석		3. 현장포럼 시범마을 전화모니터링 요약	
*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주민, 전문가)			



I.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모형
3. 연구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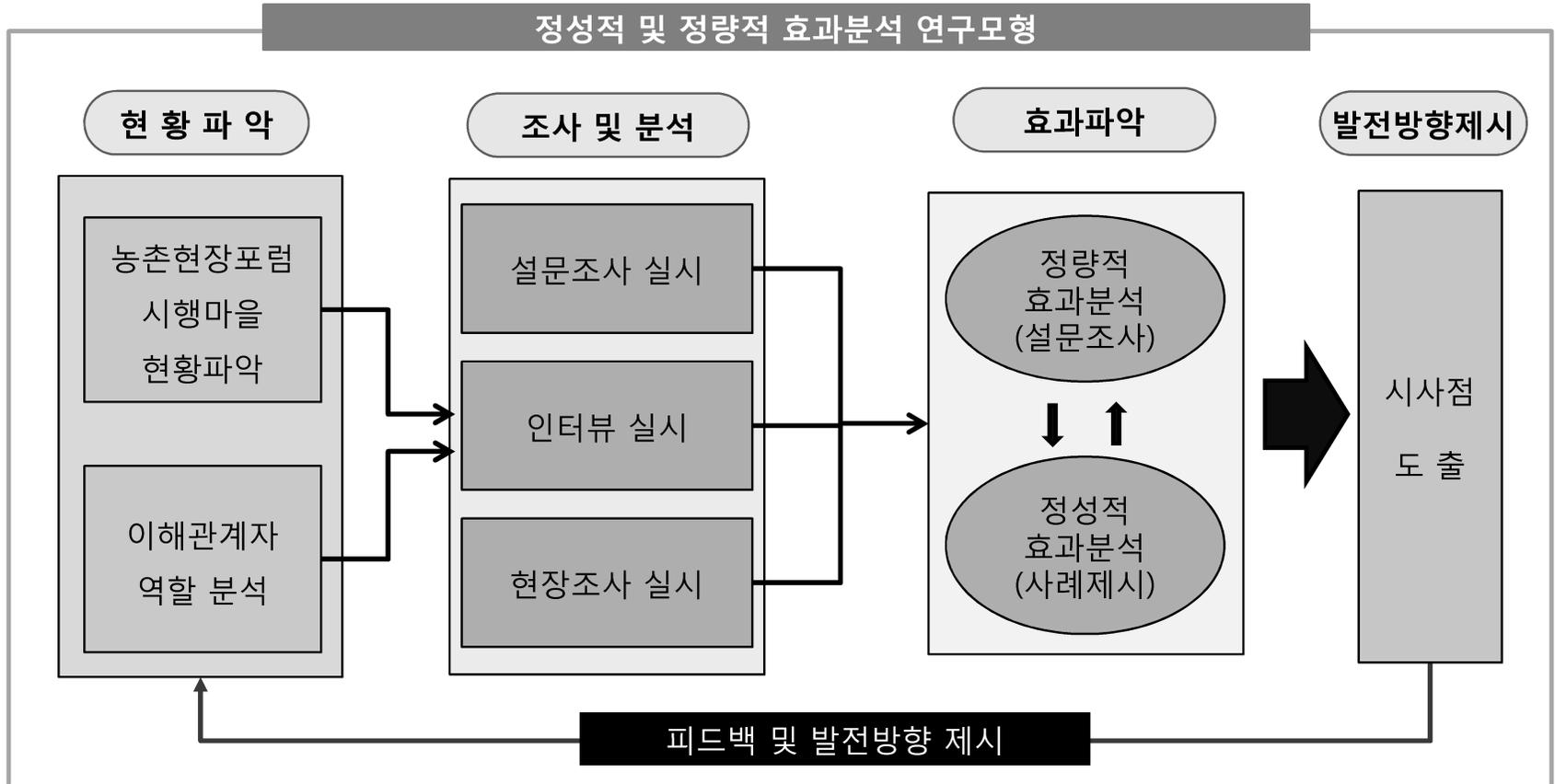
1. 연구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현장포럼의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확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마을발전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연구명	• 농촌현장포럼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분석 연구
수행기간	• 2013. 8. ~ 2013. 9. (2개월간)
최종결과물	• 현장포럼의 정량적 효과분석(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현장포럼의 정성적 효과분석(사례조사)
연구배경	• 2012년 지자체가 추진한 시범사례(32개소)와 함께, '13년 현장포럼(234개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선정 운영 및 현장활동가 육성 교육과정(초급, 고급, 중급)운영 등 사업확대 등으로 •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 필요 • 주민주도 마을 발전체계 토대 제공을 위한 농촌현장포럼의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분석으로 사업확대 가능성 확인
연구목적	•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마을자원·주민역량을 분석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과제를 수립하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통한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 분석 • 농촌현장포럼 확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연구모형

-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함



3. 연구 추진일정

Tasks	Sub Tasks	Activities	1M				2M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1. 프로젝트 준비	(1) 범위/내용 확인	팀구성	→								
	(2) Master Plan	일정협의	→								
	(3) 수행계획서	착수	→								
2. 현황파악	(1) 대상마을 선정 및 현황조사	기존자료현황파악		→							
	(2) 이해관계자 분석				→						
3. 조사 및 분석	(1) 정량분석 설문구성 및 조사	설문조사			→						
	(2) 정성분석 사례수집, 분석	인터뷰 현장조사					→				
4. 효과분석	(1) 정량적 효과분석 제시	통계분석						→			
	(2) 정성적 사례작성	사례기술							→		
	(3) 향후 발전방향 제언									→	
보고(중간,최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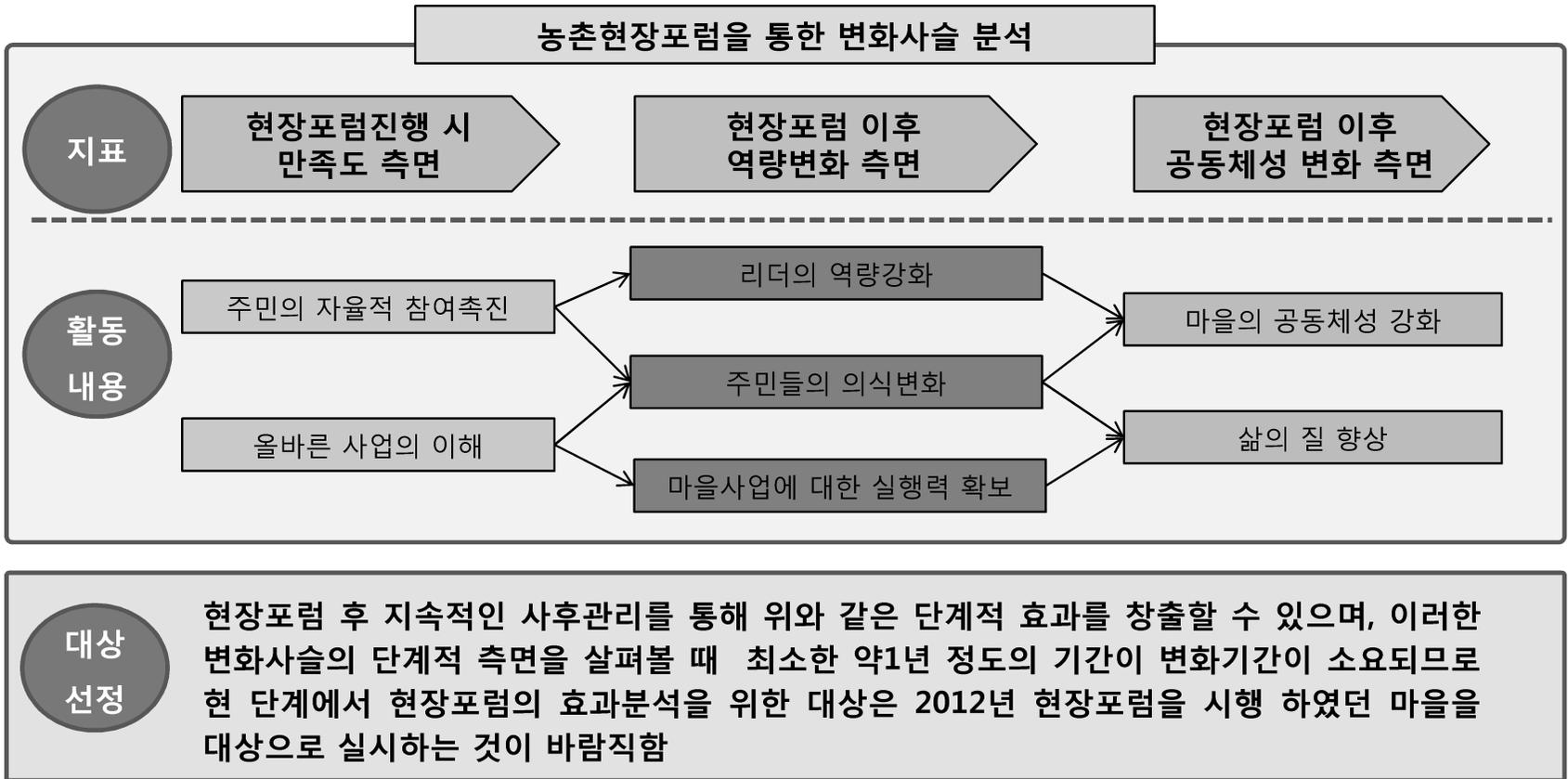


II. 연구방법론 설계

1.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2. 현장포럼 이해관계자 분석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론 설계

1.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 현장포럼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1.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12년 현장포럼 시범운영 마을 현황(38개 마을)

시행	도별	대상마을	시행	도별	대상마을
농식품부	경기	양평군 모꼬지마을	시·군	충북	단양군 방곡도개비마을
	강원	평창군 약초마을		충남	공주시 산수박마을
	전남	여수시 상관마을			서천군 심동 산촌생태마을
	충북	음성군 대실마을			당진시 솔오지마을
	경북	안동시 마애마을			부여군 구례울마을
농어촌공사	충북	청원군 두모마을			홍성군 진죽마을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		전북	익산시 봉새언덕마을
화성시 상두리마을		정읍시 사고마을			
용인시 학일마을		남원시 동편제마을			
안성시 매향골마을		김제시 난산마을			
광주시 추곡마을		전남		함평군 가덕마을	
시·군	강원	횡성군 개나리마을		경북	상주시 북장리마을
		양구군 고대리마을			예천군 출렁다리마을
		인제군 산촌버섯마을		경남	의령군 수암마을
		양양군 해담마을			함양군 안심마을
		강릉시 한울타리마을			거창군 학동마을
충북	보은군 친환경장수마을	거창군 서편마을			
	괴산군 사오랑마을	제주		제주시 청수마을	
	영동군 황금을 따는 마을(임계리)		제주시 납읍리마을		

1.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 시·군 자체사업을 통해 현장포럼을 적용한 충남 논산시 11개 마을 현황

No.	마을명
1	가야곡면 강청1리
2	강경읍 북옥리
3	강경읍 채운리
4	광석면 갈산1리
5	노성면 가곡2리
6	노성면 구암리
7	별곡면 수락1리
8	성동면 병촌1리
9	연무읍 고내6리
10	연산면 천호리
11	연산면 송정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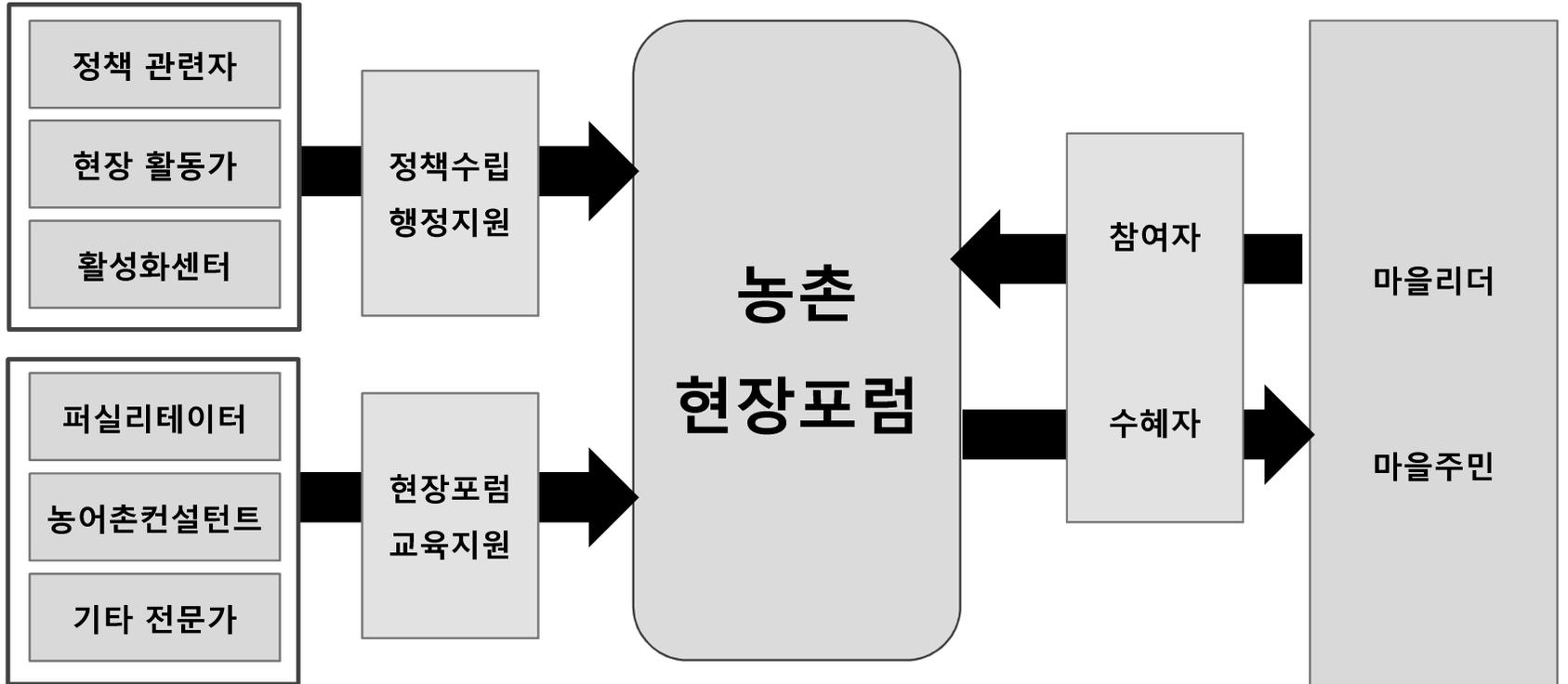
논산시는 충남도의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계획수립 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1단계 현장포럼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28개 마을 중 우수마을로 선정된 11개 마을을 정량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 하였음. 총 28개마을 중 11개 마을은 주민참여에 의한 현장포럼이 정확히 적용된 마을 이며, 기타 마을은 주민들의 참여저조 등 중도에 포기하거나 논산시의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여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정량적 효과분석을 위해 2012년 농림부 현장포럼 시범 운영한 38개마을과 충남 논산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11개 마을로 **총 49개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함**

2. 현장포럼 이해관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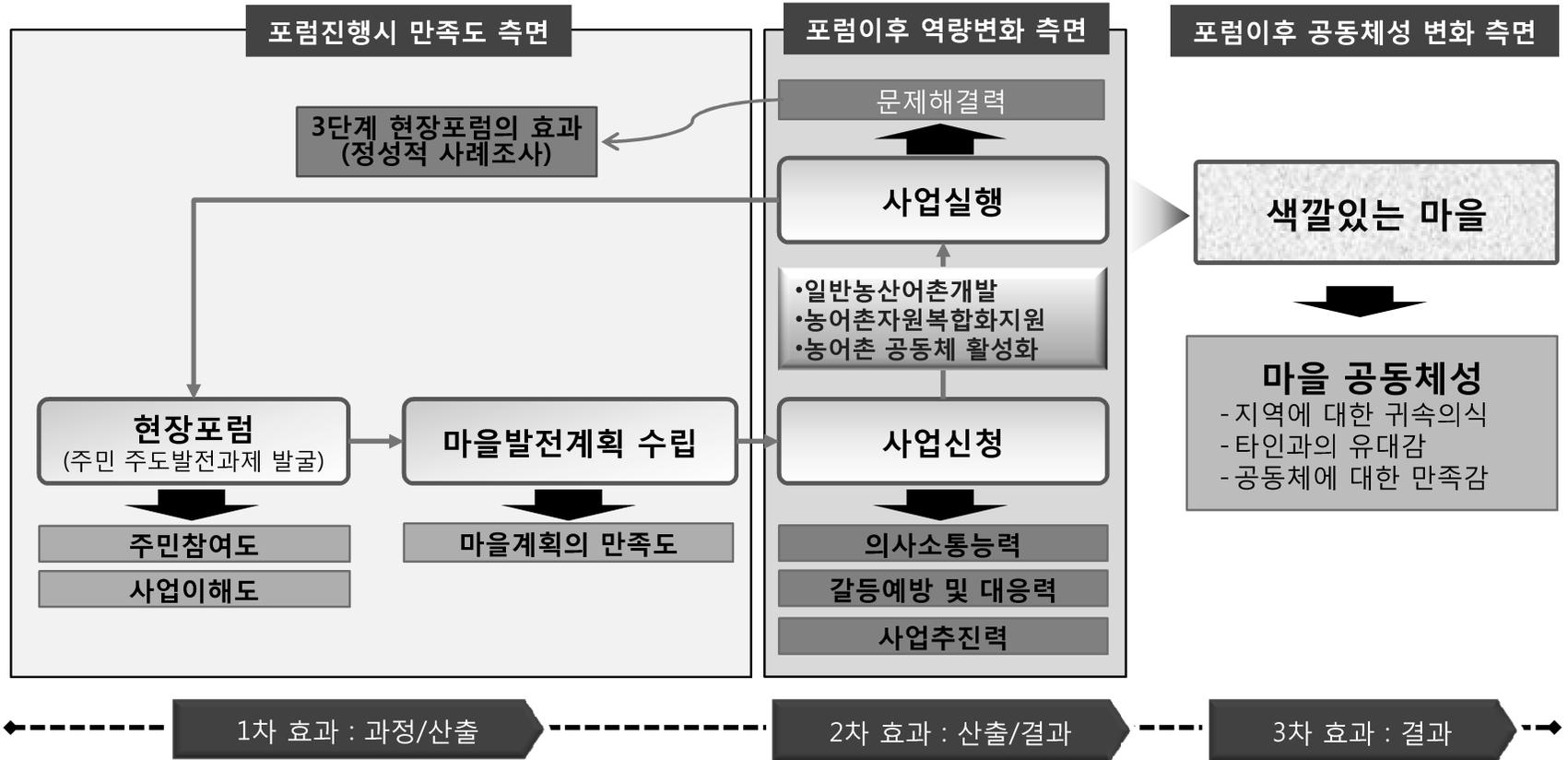
- 농촌현장포럼의 이해관계자 역할을 분석하여 정량적 효과 파악을 위한 관점을 설계함



←----- 프로그램의 우수성, 필요성, 개선점 파악 -----> >----- 주민의 의식 및 역량변화, 마을의 변화 ----->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론 설계

- 현장포럼의 실질적인 주체인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효과분석은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절차에 따른 단계별 목적분석(변화사슬)을 통해 설문항목을 설계함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론 설계

- 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위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정량적, 정성적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을 설계함

구 분	마을주민대상	전문가 대상	비 고
정량적 효과분석	▪ 현장포럼 시 만족도 측면	▪ 현장포럼의 우수성 측면	설문조사
	▪ 현장포럼 후 역량변화 측면		
	▪ 현장포럼 후 공동체성 변화 측면	▪ 현장포럼의 필요성 측면	
정성적 효과분석	▪ 우수사례 발굴 및 분석	▪ 현장포럼의 활용사례	설문조사 전화인터뷰 현장사례조사
	▪ 현장포럼의 개선점	▪ 현장포럼의 개선점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주민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진행시의 과정과 산출의 만족도로 나타나는 1차 효과에 대한 설문구성(7개 문항)

<현장포럼 진행시 만족도에 해당하는 질문>

No.	항 목	설 문 문 항
1	주민참여도	현장포럼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의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
2	주민참여도	현장포럼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	사업이해도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4	사업이해도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5	마을계획의 만족도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했다.
6	마을계획의 만족도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만의 색깔과 발전방향을 찾았다.
7	마을계획의 만족도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해 만족한다.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주민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의 산출과 결과로 나타나는 2차 효과에 대한 설문구성(17개 문항)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해당하는 질문>

No.	항 목	설 문 문 항
1	의사소통능력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목적을 공지한다.
2	의사소통능력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할 때는 규칙을 정하여 진행한다.
3	의사소통능력	마을회의를 할 때는 포스트잇 활용 등 현장포럼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한다.
4	의사소통능력	현장포럼 이후 회의 시 주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한다.
5	의사소통능력	현장포럼 이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되 서로를 존중한다
6	의사소통능력	주민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 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려고 애쓴다.
7	갈등예방/대응력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통해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었다.
8	갈등예방/대응력	현장포럼 이후 회의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9	갈등예방/대응력	현장포럼 이후 회의안건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한다.
10	갈등예방/대응력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모든 주민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11	갈등예방/대응력	주민들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2	사업추진력	현장포럼으로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다 함께 실천할 의지가 생겼다.
13	사업추진력	현장포럼 이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실천한다.
14	사업추진력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 있을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15	사업추진력	마을리더는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16	사업추진력	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한다.
17	사업추진력	주민들은 마을사업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주민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3차 효과에 대한 설문구성(11개 문항)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해당하는 질문>

No.	항 목	설 문 문 항
1	지역에 대한 귀속감	현장포럼 이후 주민들이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2	지역에 대한 귀속감	현장포럼 이후 마을 일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한다.
3	지역에 대한 귀속감	현장포럼 이후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생겼다.
4	지역에 대한 귀속감	마을 발전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5	타인과 유대감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6	타인과 유대감	현장포럼 이후 이웃 간 교류가 증대되었다.
7	타인과 유대감	주민들은 마을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8	타인과 유대감	마을의 사업 또는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이 이전보다 잘 된다.
9	공동체 만족감	주민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 보다는 넓게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10	공동체 만족감	주민들이 재산이나 재능을 마을 사업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11	공동체 만족감	현장포럼 이후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수시로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다.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주민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의 향후 발전방향 검토를 위한 질문

No.	설문문항	비고
1	현장포럼 프로그램 중 좋았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주민교육 ②퍼실리테이션 워크숍(주민토론) ③선진지 견학 ④전문가 토론	
2	현장포럼에서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3	다른 역량강화 교육과 비교해 현장포럼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4	현장포럼 이후 마을에서 실천한 사항들이 있으면 모두 기술해 주세요.	주관식
5	현장포럼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점(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전문가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한 우수성 대한 설문구성(11개 문항)

<교육.컨설팅 VS 현장포럼의 비교에 해당하는 질문>

No.	항 목	설 문 문 항
1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좋다.
2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4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5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에 대한 소속감, 애착심을 높인다.
6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
7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 공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한다.
8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 사업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9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우리 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10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다.
11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좋다.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전문가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구성(6개 문항)

<현장포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필요성에 해당하는 질문>

No.	항 목	설 문 문 항
1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장포럼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장포럼은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3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주민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5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행정에 도움이 된다.
6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3. 현장포럼의 효과분석 방법_전문가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의 향후 발전방향 검토를 위한 질문

No.	설문문항	비고
1	현장포럼이 어떤 항목의 역량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사업 이해도 향상 ②의사소통능력 향상 ③갈등 예방 및 문제 해결 ④사업 추진 시 실행력 강화 ⑤마을에 대한 관심 및 애착심 고취	
2	현장포럼은 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기 단계에서 마을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②마을 갈등 및 문제 해결 필요 시 ③사업 선정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시 ④기타 ()	
3	현장포럼에서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4	현장포럼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점(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Ⅲ. 정량적 효과분석

1. 정량적 효과분석 개요
2. 종합분석 결과
3.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분석

*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주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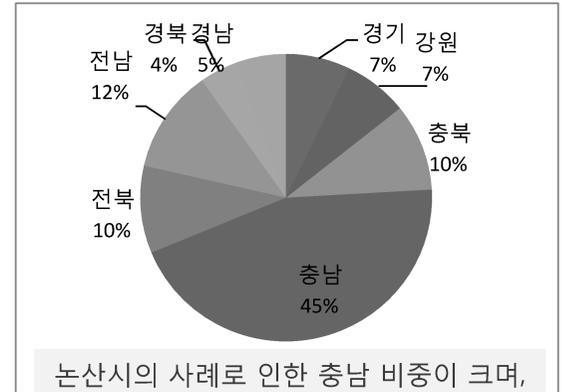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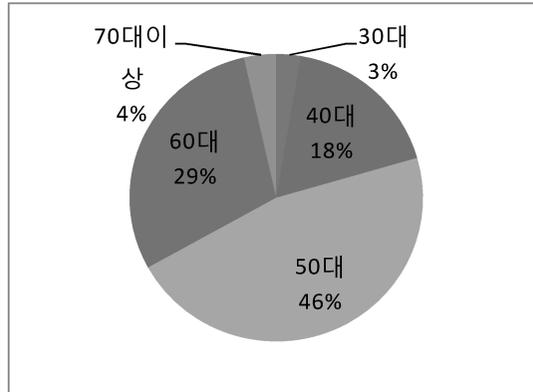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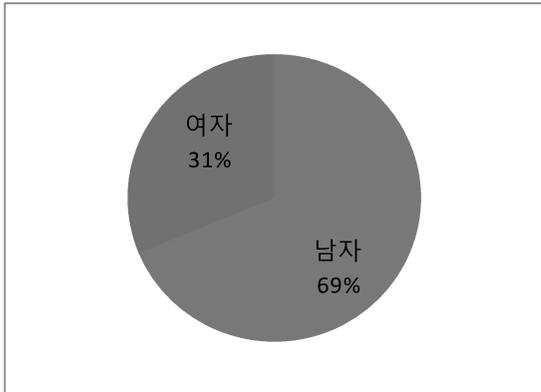
1. 정량적 효과분석 개요_마을주민대상

- 정량적 효과분석을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는 2012년 현장포럼을 실시하였던 마을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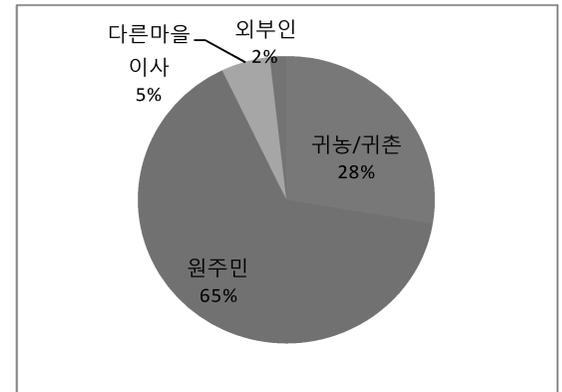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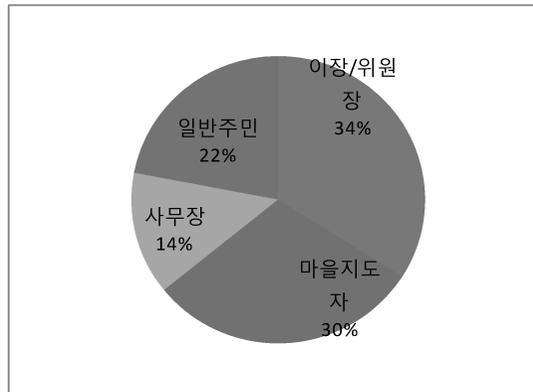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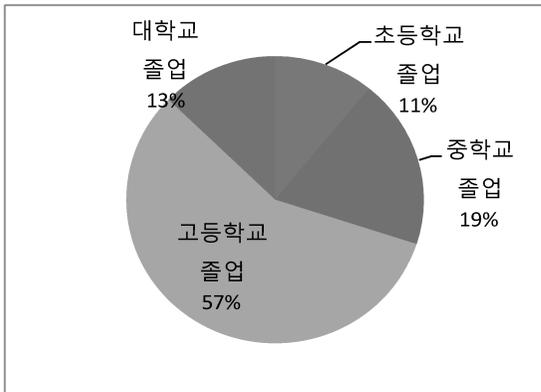
설문제목	▪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마을주민대상)
설문대상	▪ 2012년 현장포럼 시범마을 38개, 2012년 논산시 희망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시행 11개마을 총 49개마을 ▪ 마을의 리더(이장/추진위원장, 사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포럼참여주민 등 마을별로 약5명씩) →약250명
설문내용	▪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통계처리를 위한 6문항 ▪ 현장포럼시 참여도, 만족도에 대한 문항 7문항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한 문항 17문항 ▪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한 문항 11문항 ▪ 기타 향후 개선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문항 5문항 총 46문항
설문기간	▪ 2013. 8. 8 ~ 2013. 8. 21(2주간)
설문방법	▪ 구글다克斯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 전화 설문, 팩스 또는 우편 설문 실시
설문분석	▪ 유효표본 112부 / 128부 회수 ▪ 응답자 중 현장포럼 참여하지 않은 응답과 불성실 응답자는 모두 제외하고 통계처리 하였음.
분석방법	▪ 통계프로그램 활용.분석

1. 정량적 효과분석 개요_마을주민대상

▪ 응답자의 유효표본 112부의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논산시의 사례로 인한 충남 비중이 크며, 제주도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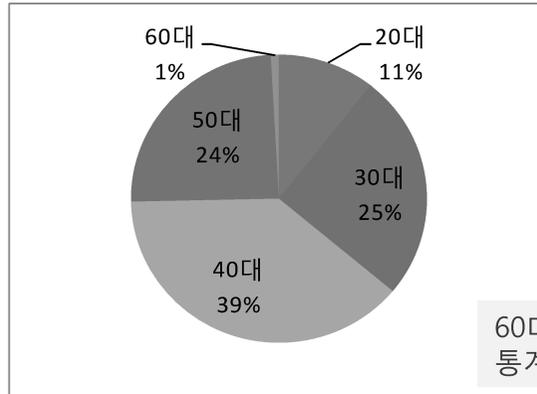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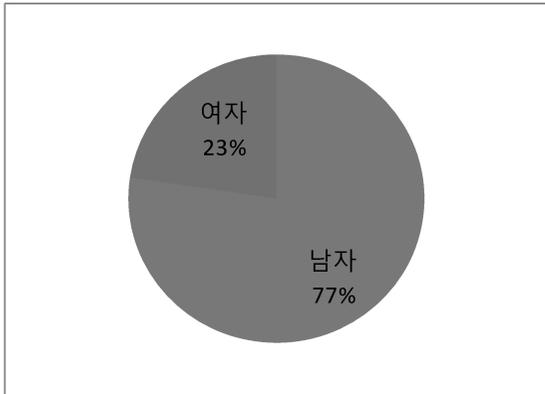
1. 정량적 효과분석 개요_전문가 대상

- 정량적 효과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농어촌컨설턴트, 활성화센터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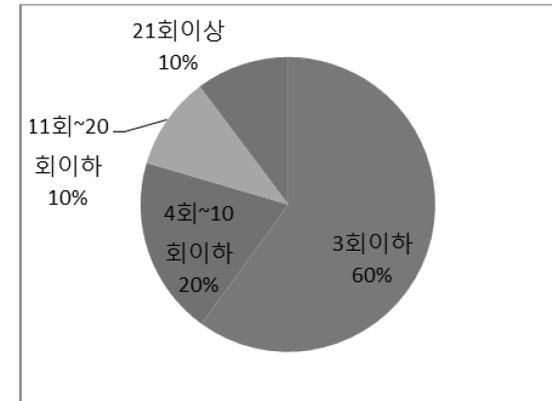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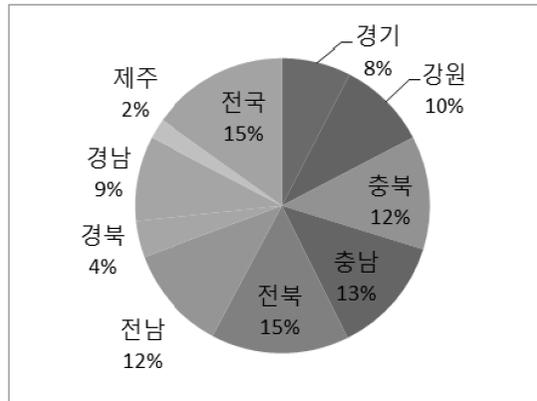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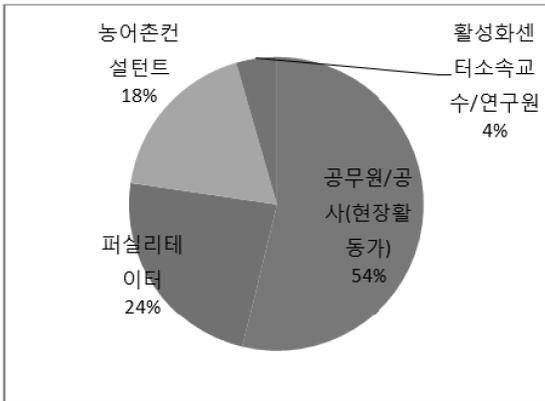
설문제목	▪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전문가 대상)
설문대상	▪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농어촌컨설턴트, 활성화센터 교수 및 연구원 대상(약1000명 대상)
설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통계처리를 위한 6문항 ▪ 현장포럼 프로그램과 기존(교육.컨설팅) 프로그램과 비교 11문항 ▪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문항 6문항 ▪ 기타 향후 개선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문항 4문항 총 26문항
설문기간	▪ 2013. 8. 21 ~ 2013. 8. 27(1주간)
설문방법	▪ 네이버오피스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 이메일, 팩스 설문 실시
설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표본 225부 / 268부 회수 ▪ 응답자 중 현장포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해보지 않은 응답과 불성실 응답자는 모두 제외하고 통계처리 하였음
분석방법	▪ 통계프로그램 활용.분석

1. 정량적 효과분석 개요_전문가 대상

▪ 응답자의 유효표본 225부의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60대이상은 소수(2명)이므로 통계분석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종합분석 결과_요약

-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리커트 척도(5점척도)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현장포럼의 직접적인 참여자와 수혜자인 주민들의 그룹은 → 3.87~3.73점의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약간의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현장포럼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전문가 그룹은 → 4.17, 4.33점으로 전반적으로 현장포럼이 우수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함

마을주민대상	
항 목	점수(5점척도)
▪ 현장포럼 진행시 만족도 측면	3.87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 측면	3.80
▪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 측면	3.73

전문가 대상	
항 목	점수(5점척도)
▪ 현장포럼의 우수성 측면	4.17
▪ 현장포럼의 필요성 측면	4.33

* 리커트 척도(Likert Scaling) / Likert에 의해 개발된 총화척도(summated scale)

- 어떤 변수나 현상(대상)을 측정할 때 한 문항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적절하게 선택되고 분석된 일련의 다수 문항들로 구성될 때 측정할 변수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척도 구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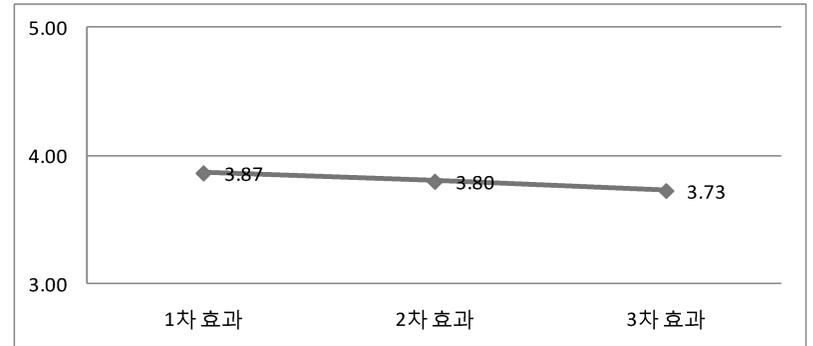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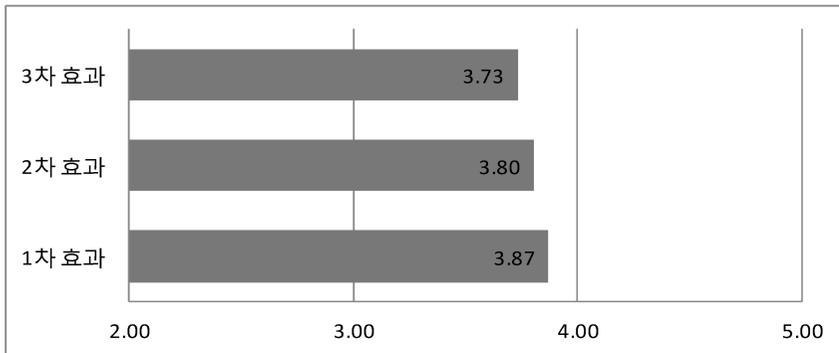
2. 종합분석 결과 _주민대상 종합

▪ 현장포럼의 단계별 과정으로 살펴본 종합분석

구분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
	현장포럼 진행시 만족도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 만족도	의사소통능력 갈등예방/대응력 사업추진력	지역에의 귀속감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점수(척도)	3.87	3.80	3.73

현장포럼의 단계별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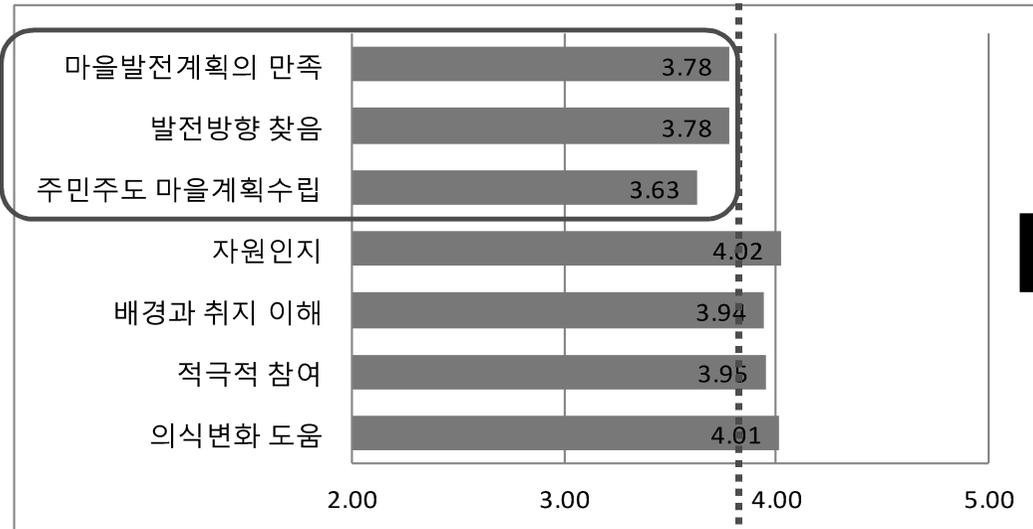
→아래 표와 같이 1차 ->3차로 단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종합분석 결과_주민대상 1차 효과 분석

▪ 현장포럼 진행시 과정, 산출에서 나타나는 1차 효과에 대한 분석

구분	주민참여도(과정)		사업이해도(과정)		마을계획수립의 만족도(산출)			평균
	의식변화 도움	적극적 참여	배경과 취지 이해	자원인지	주민주도 마을계획수립	발전방향 찾음	마을발전계획의 만족도	
점수(척도)	4.01	3.95	3.94	4.02	3.63	3.78	3.78	3.87



현장포럼의 과정, 그리고 산출에서 나타난 1차적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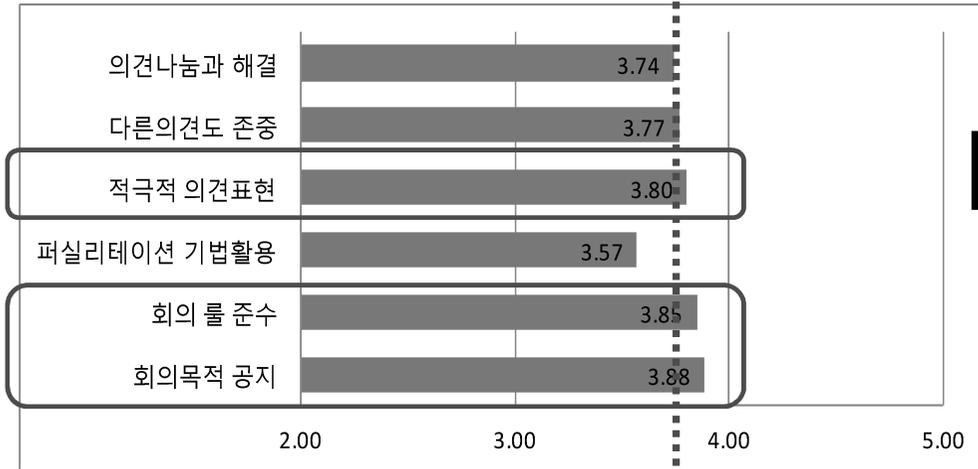
주민참여도와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수립의 만족도로 종합평균 3.87점으로 높은 편이나 마을계획수립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편임

→이는 2012년도에는 마을계획수립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제시 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됨(인터뷰에서 확인)

2. 종합분석 결과_주민대상 2차 효과 분석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분석

구분	의사소통능력						평균
	회의목적 공지	회의 룰 준수	퍼실리테이션 기법활용	적극적 의견 표현	다른의견도 존중	의견나눔과 해결	
점수(척도)	3.88	3.85	3.57	3.80	3.77	3.74	3.77



현장포럼 이후 과정 및 산출에서 나타난 2차적 효과인

의사소통능력의 역량변화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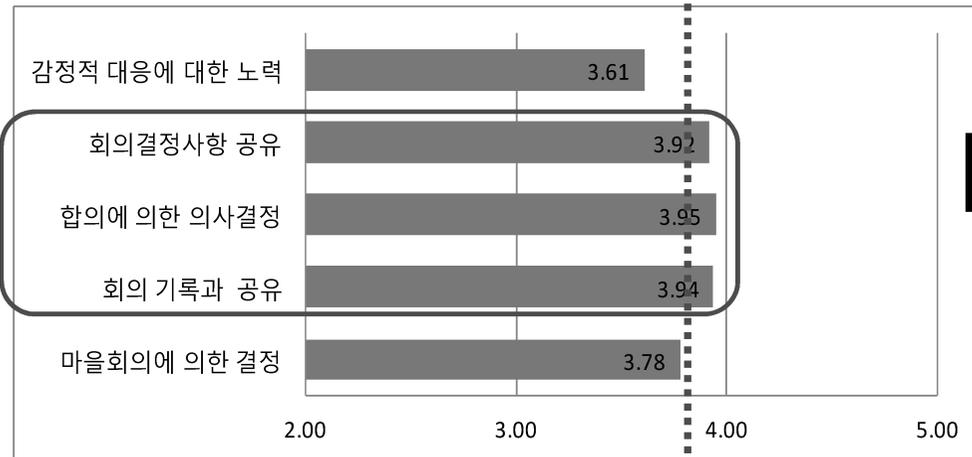
회의목적 공유와, 회의룰 준수, 적극적 의견표현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체적으로 마을 회의 시 리더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한 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2. 종합분석 결과_주민대상 2차 효과 분석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갈등예방/대응력에 대한 분석

구분	갈등예방/대응력					평균
	마을회의에 의한 결정	회의 기록과 공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회의 결정사항 공유	감정적 대응에 대한 노력	
점수(척도)	3.78	3.94	3.95	3.92	3.61	3.84



현장포럼의 과정 및 산출에서 나타난
2차적 효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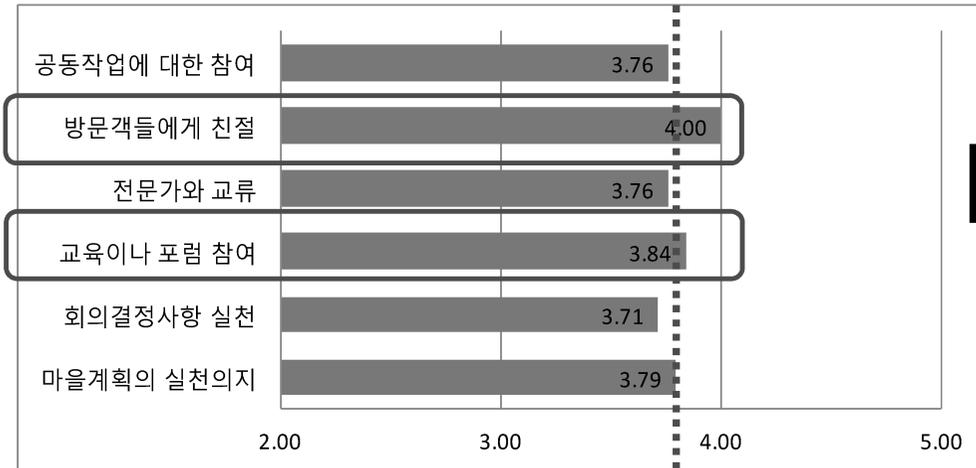
갈등예방/대응력의 역량변화에서는
**회의결정사항 공유, 합의에 의한 결정,
회의 기록과 공유**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에 일방적인 리더들의 의사결정
에 의한 사항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2. 종합분석 결과_주민대상 2차 효과 분석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업추진력에 대한 분석

구분	사업추진력						평균
	마을계획의 실천의지	회의결정사항 실천	교육이나 포럼 참여	전문가와 교류	방문객들에게 친절	공동작업에 대한 참여	
점수(척도)	3.79	3.71	3.84	3.76	4.00	3.76	3.81



현장포럼의 과정 및 산출에서 나타난 2차적 효과인

사업추진력의 역량변화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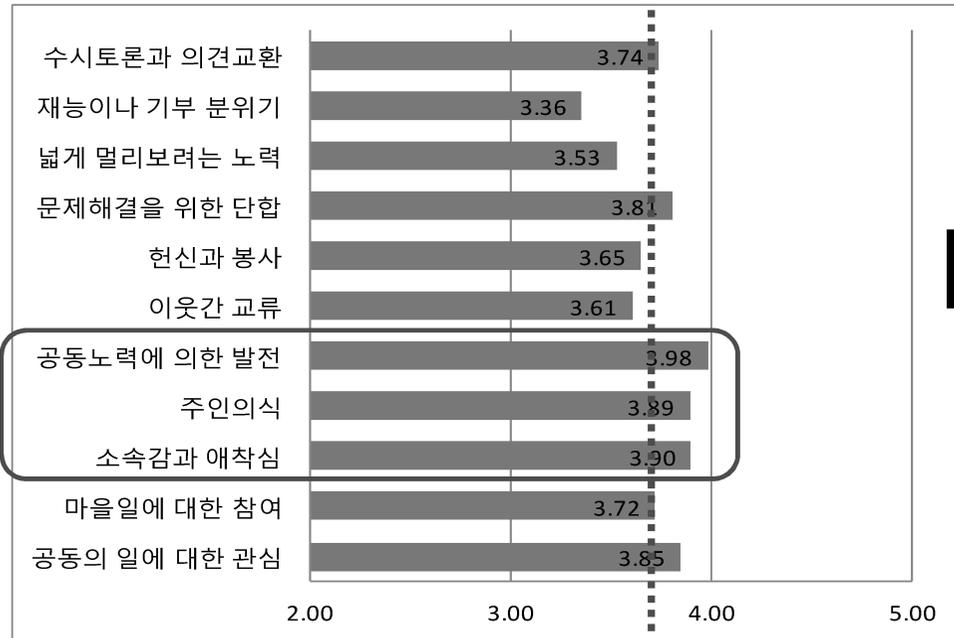
방문객들에게 친절, 교육이나 포럼 참여의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리더들이 체감하는 공동작업,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실천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임. 실지로 리더들의 인터뷰에서 후속 포럼의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포럼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결과임

2. 종합분석 결과_주민대상 3차 효과 분석

▪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 결과로 나타나는 3차 효과에 대한 분석

구분	지역에 대한 귀속감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평균
	공동일에 대한 관심	마을일에 대한 참여	소속감과 애착심	주인의식	공동노력 의한 발전	이웃간 교류	헌신과 봉사	문제해결을 위한 단합	넓게 멀리 보려는 노력	재능이나 기부 분위기	수시토론과 의견 교환	
점수(척도)	3.85	3.72	3.90	3.89	3.98	3.61	3.65	3.81	3.53	3.36	3.74	3.73



현장포럼 이후 자생적인 변화를 통해 최종결과로 나타나는 3차 효과인

공동체성의 변화의 효과는

공동노력에 의한 마을발전,

주인의식, 소속감과 애착심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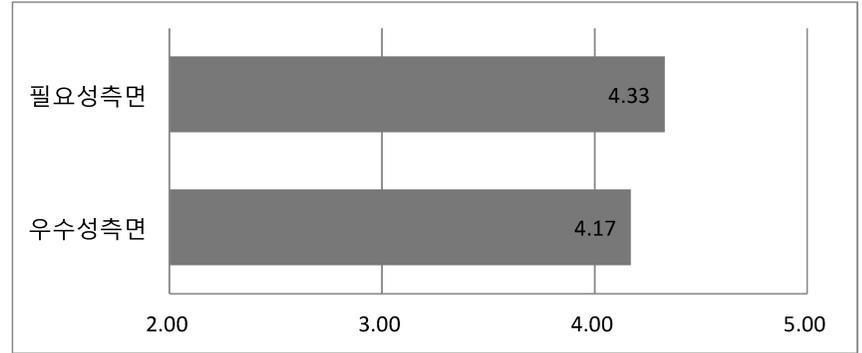
높은것으로 분석됨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을공동의 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종합분석 결과 _전문가대상 종합

▪ 현장포럼의 우수성 및 필요성 측면으로 살펴본 종합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측면	현장포럼의 필요성 측면
점수(척도)	4.17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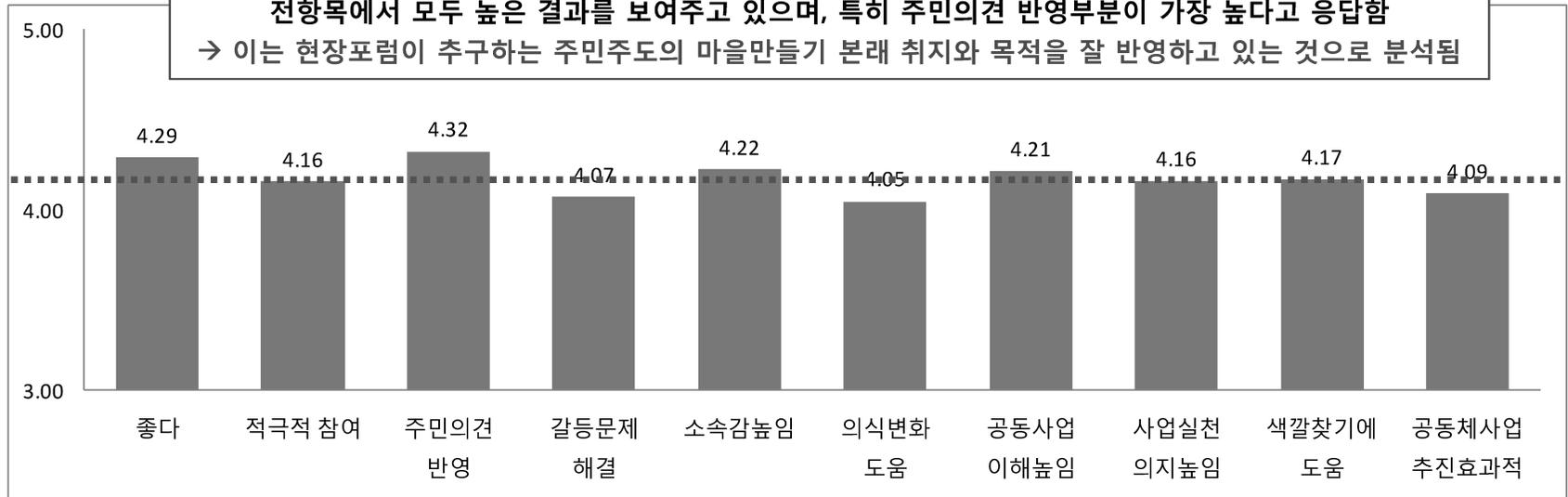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포럼은

- 주민의 입장에 비해 우수성과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우수하고, 꼭 필요하다고 답변함
- 그 중에서도 현장포럼의 필요성이 우수성보다 높게 나타남

2. 종합분석 결과_전문가대상 종합

구 분	기존 교육.컨설팅과 비교한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										
	좋다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 높임	의식변화 도움	공동사업 이해 높임	사업실천 의지높임	색깔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효과적	평균
점수 (5점척도)	4.29	4.16	4.32	4.07	4.22	4.05	4.21	4.16	4.17	4.09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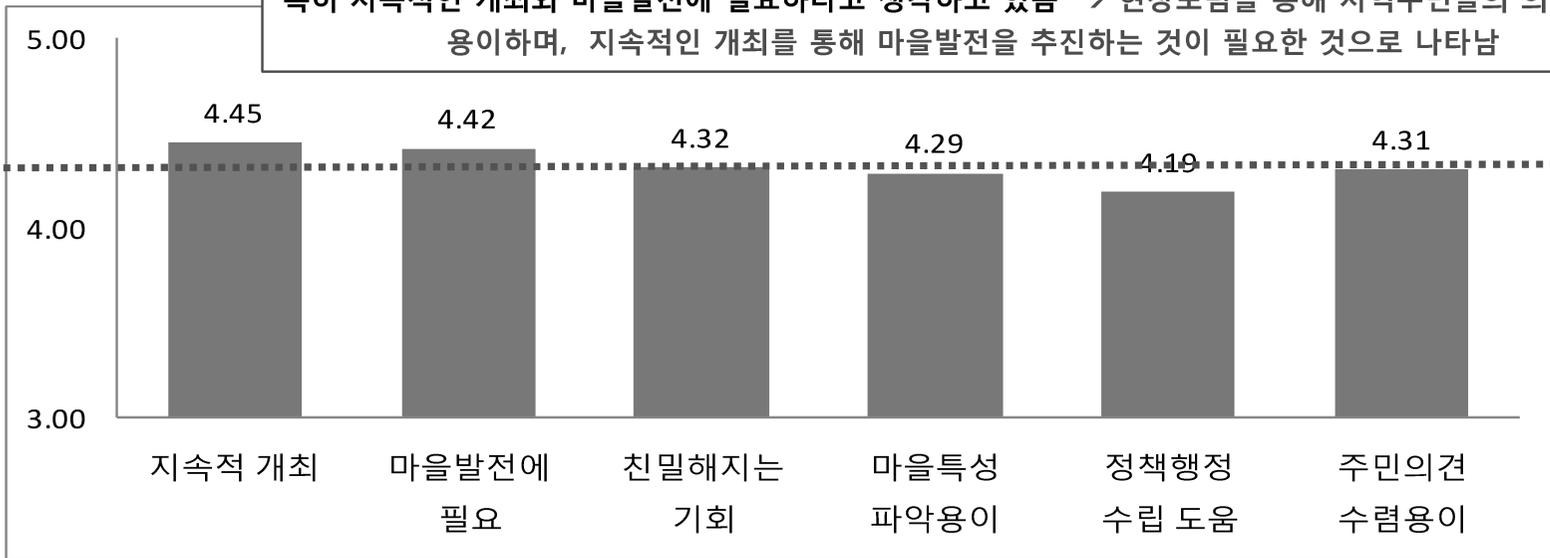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프로그램 우수성 측면에서는 평균 4.17점의 전항목에서 모두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견 반영부분이 가장 높다고 응답함
 → 이는 현장포럼이 추구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종합분석 결과_전문가대상 종합

구 분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필요성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친밀해지는 기회	마을특성 파악용이	정책행정 수립 도움	주민의견 수렴용이	평균
점수 (5점척도)	4.45	4.42	4.32	4.29	4.19	4.31	4.33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4.33점의 전 항목에서 모두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개최와 마을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장포럼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하며,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마을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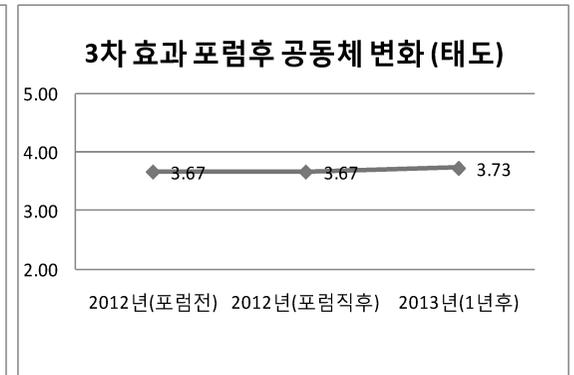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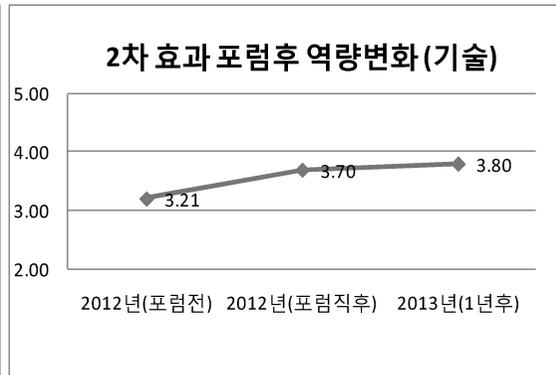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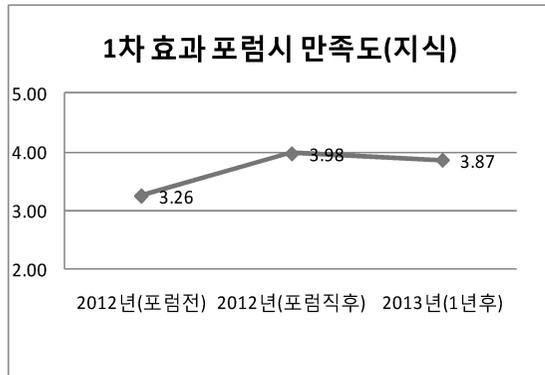
3.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분석

▪ 2012년도 시범 현장포럼 운영 시 조사하였던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분석

구분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	평균
	현장포럼 진행시 만족도	현장포럼이후 역량변화	현장포럼이후 공동체성 변화	
2012년 결과(포럼 전)	3.26	3.21	3.67	3.38
2012년 결과(포럼 직후)	3.98	3.70	3.67	3.78
2013년 결과(6개월이상 경과 후)	3.87	3.80	3.73	3.80

2012년 현장포럼 시범운영 당시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한 현장포럼 전후 비교 효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년경과 시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항목과 조사대상이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1차 효과인 만족도(지식) 측면에서 다소 감소하였고, 2차 효과인 역량변화(기술) 측면과 3차 효과인 공동체 변화측면에서 다소 상승한 효과를 보임
 → 이는 포럼후 마을에서 현장포럼의 결과를 이용해 자생적인 마을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2012년 농어촌활성화센터 모델 정립 연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주민대상)

전체 종합 비교분석

▪ 전체 설문구성 항목별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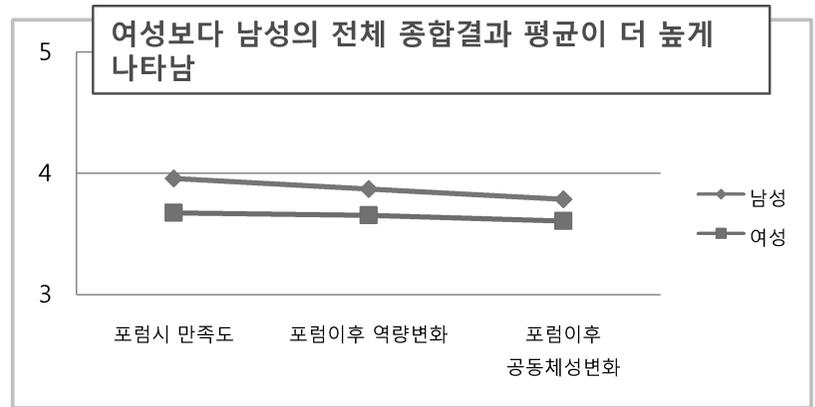
→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층은 50대가, 지역은 충남과 강원도가 학력수준으로 살펴 볼때는 대학교 졸업자가 높았으며, 마을내에서 역할에 따른 특성은 이장 및 위원장의 높게 나타남
 특히 정착형태로 살펴본 결과는 귀농/귀촌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향후 귀농/귀촌자를 활용한 마을발전의 방법을 연구할 가치가 있음(단, 표본 숫자가 적은 그룹은 비교분석에서 제외하고 판단 하였음)

항목	구분	N	현장포럼 진행시 만족도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	평균
성별	남성	77	3.96	3.87	3.79	3.87
연령	50대	52	3.95	3.82	3.74	3.84
지역	충남	50	4.12	3.98	3.96	4.02
	강원	8	4.18	4.00	3.93	4.04
학력	대학교	14	4.06	3.92	3.88	3.95
역할	이장/위원장	37	4.09	4.07	3.96	4.04
정착형태	귀농/귀촌	31	3.89	3.86	3.83	3.86

통계적 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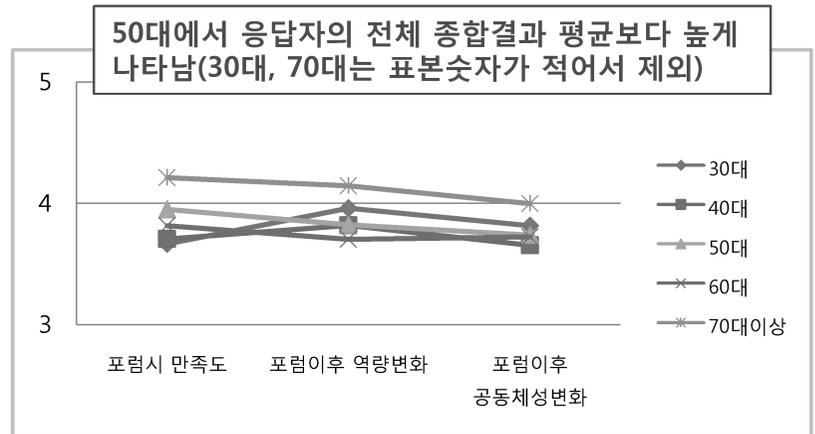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남성	77	3.96	3.87	3.79	3.87
여성	35	3.67	3.66	3.61	3.65
합계	112	3.87	3.80	3.73	3.80



▪ 연령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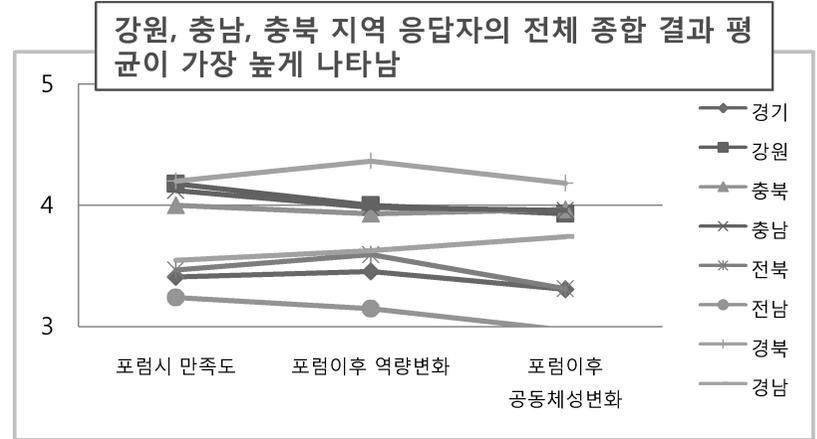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30대	3	3.67	3.96	3.82	3.82
40대	20	3.71	3.82	3.65	3.73
50대	52	3.95	3.82	3.74	3.84
60대	33	3.82	3.71	3.72	3.75
70대이상	4	4.21	4.15	4.00	4.12
합계	112	3.87	3.80	3.73	3.80



통계적 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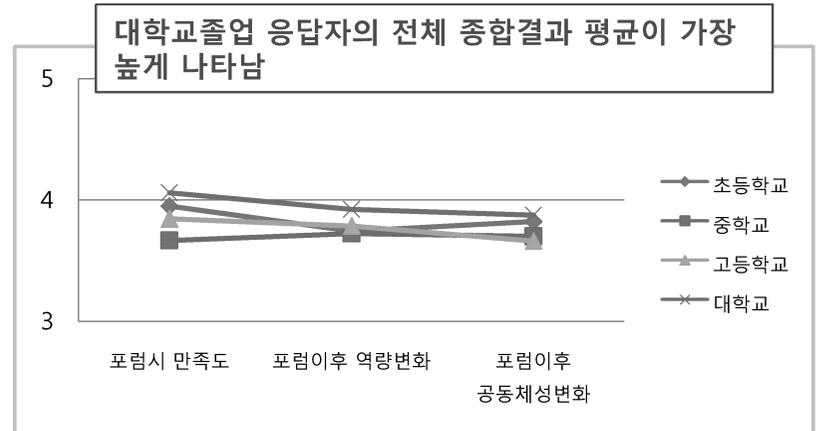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경기	8	3.41	3.46	3.31	3.39
강원	8	4.18	4.00	3.93	4.04
충북	11	4.00	3.93	3.97	3.97
충남	50	4.12	3.98	3.96	4.02
전북	11	3.47	3.59	3.31	3.46
전남	13	3.24	3.15	2.97	3.12
경북	5	4.20	4.36	4.18	4.25
경남	6	3.55	3.63	3.74	3.64
합계	112	3.87	3.80	3.73	3.80



▪ 학력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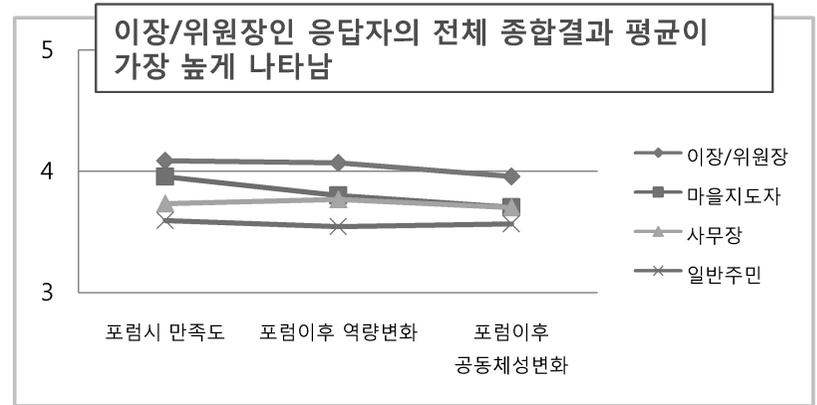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초등학교	12	3.95	3.75	3.83	3.84
중학교	21	3.67	3.73	3.70	3.70
고등학교	63	3.85	3.79	3.66	3.77
대학교	14	4.06	3.92	3.88	3.95
대학원	2	4.93	4.68	4.64	4.75
합계	112	3.87	3.80	3.73	3.80



통계적 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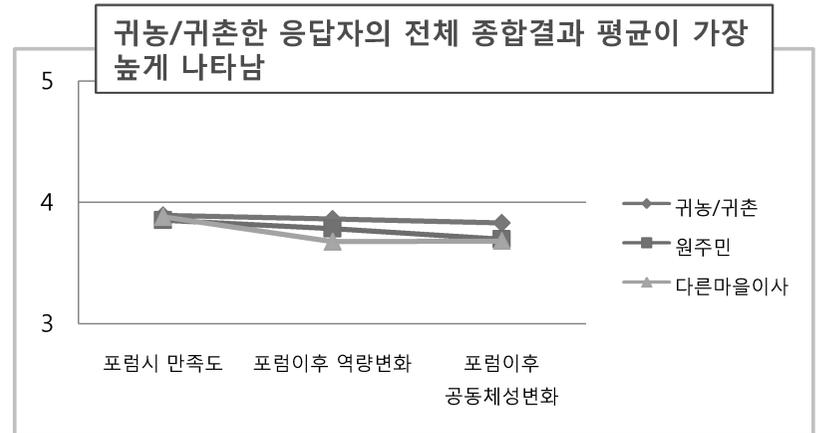
역할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이장/위원장	37	4.09	4.07	3.96	4.04
마을지도자	33	3.96	3.80	3.71	3.82
사무장	15	3.73	3.77	3.70	3.73
일반주민	24	3.60	3.54	3.57	3.57
기타	3	3.10	2.78	2.67	2.85
합계	112	3.87	3.80	3.73	3.80



정착계기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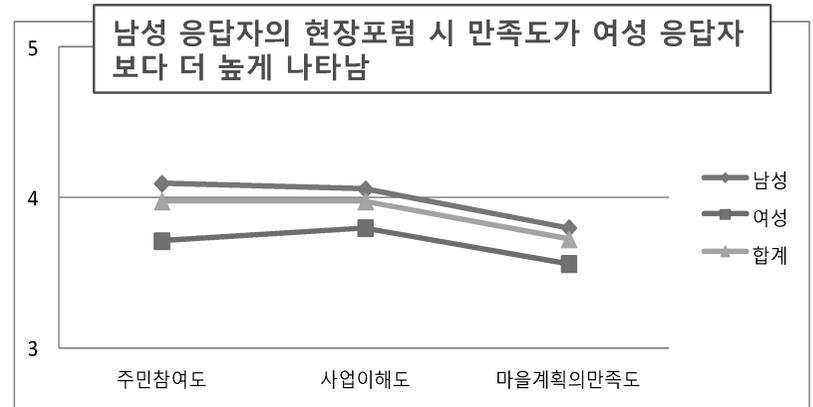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귀농/귀촌	31	3.89	3.86	3.83	3.86
원주민	73	3.86	3.78	3.70	3.78
다른마을 이사	6	3.88	3.68	3.68	3.75
외부인	2	4.00	3.97	3.55	3.84
합계	112	3.87	3.80	3.73	3.80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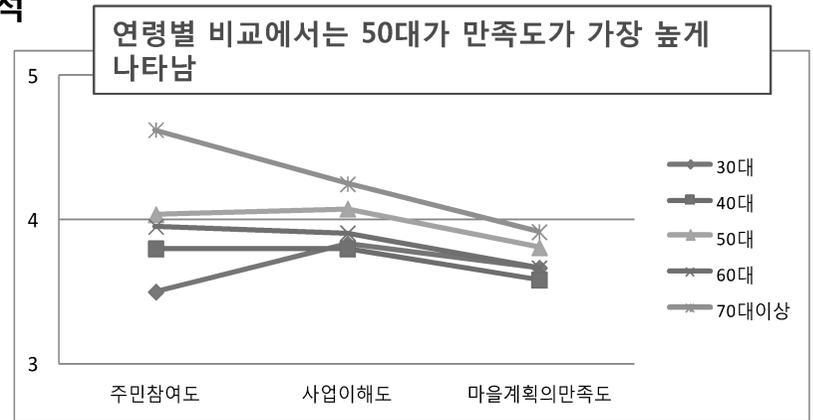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현장포럼 진행 시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주민 참여도	사업 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남성	77	4.10	4.06	3.80	3.99
여성	35	3.71	3.80	3.56	3.69
합계	112	3.98	3.98	3.73	3.89



▪ 연령에 따른 현장포럼 진행 시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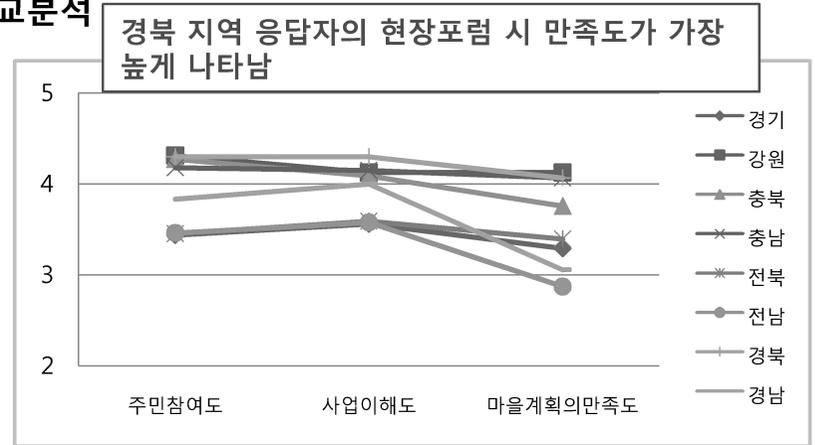
구분	N	주민 참여도	사업 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30대	3	3.50	3.83	3.67	3.67
40대	20	3.80	3.80	3.58	3.73
50대	52	4.04	4.08	3.81	3.97
60대	33	3.95	3.91	3.67	3.84
70대이상	4	4.63	4.25	3.92	4.26
합계	112	3.98	3.98	3.73	3.89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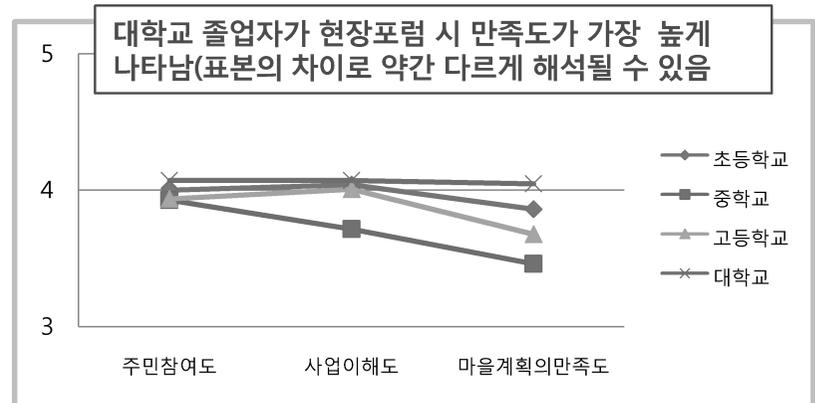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따른 현장포럼 진행 시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경기	8	3.44	3.56	3.29	3.43
강원	8	4.31	4.13	4.13	4.19
충북	11	4.27	4.09	3.76	4.04
충남	50	4.18	4.15	4.07	4.13
전북	11	3.45	3.59	3.39	3.48
전남	13	3.46	3.58	2.87	3.30
경북	5	4.30	4.30	4.07	4.22
경남	6	3.83	4.00	3.06	3.63
합계	112	3.98	3.98	3.73	3.89



▪ 학력에 따른 현장포럼 진행 시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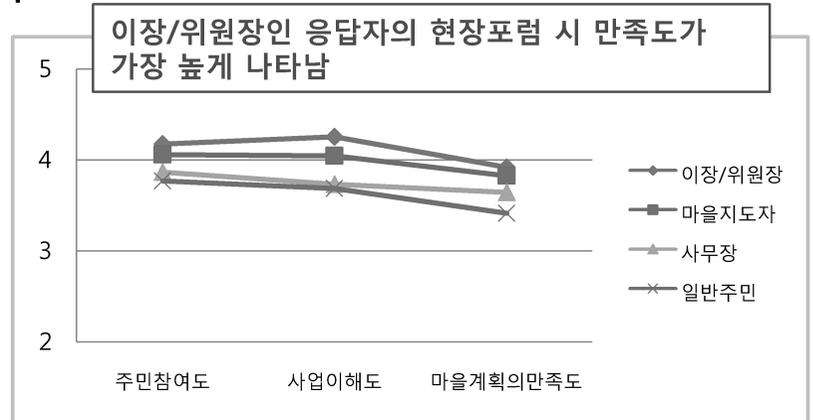
구분	N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초등학교	12	4.00	4.04	3.86	3.97
중학교	21	3.93	3.71	3.46	3.70
고등학교	63	3.94	4.01	3.68	3.87
대학교	14	4.07	4.07	4.05	4.06
대학원	2	5.00	4.75	5.00	4.92
합계	112	3.98	3.98	3.73	3.89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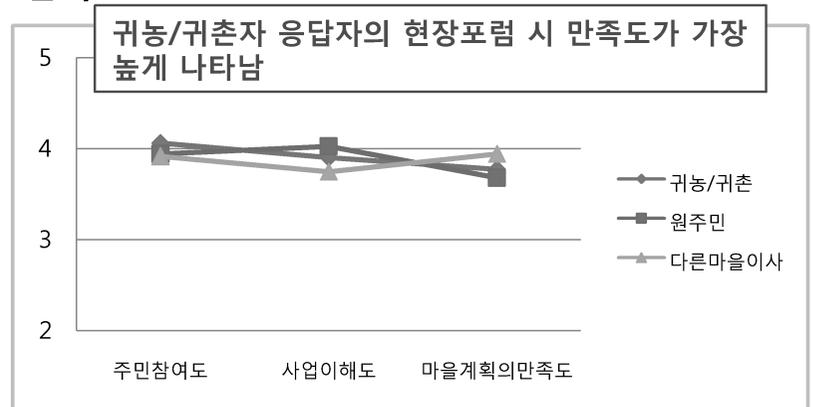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현장포럼 진행 시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이장/위원장	37	4.18	4.26	3.92	4.12
마을지도자	33	4.06	4.05	3.83	3.98
사무장	15	3.87	3.73	3.64	3.75
일반주민	24	3.77	3.69	3.42	3.63
기타	3	2.83	3.33	3.11	3.09
합계	112	3.98	3.98	3.73	3.89



▪ 정착계기에 따른 현장포럼 진행 시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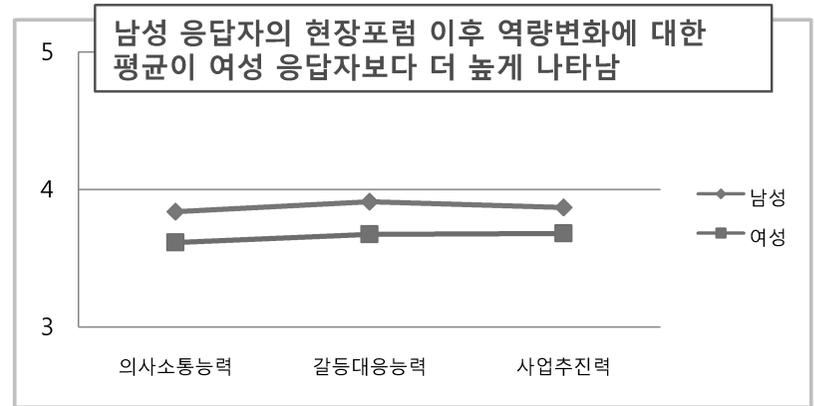
구분	N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귀농/귀촌	31	4.06	3.90	3.77	3.91
원주민	73	3.95	4.03	3.68	3.88
다른마을이사	6	3.92	3.75	3.94	3.87
외부인	2	4.00	4.00	4.00	4.00
합계	112	3.98	3.98	3.73	3.89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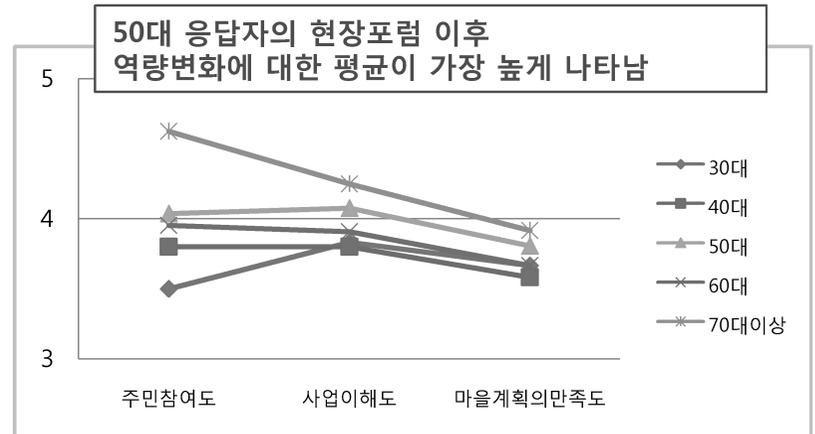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 추진력	평균
남성	77	3.84	3.91	3.87	3.87
여성	35	3.61	3.67	3.68	3.66
합계	112	3.77	3.84	3.81	3.81



▪ 연령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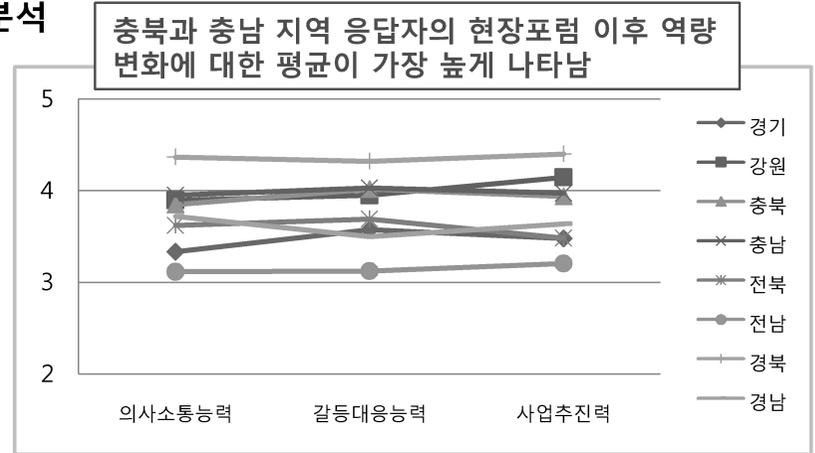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 추진력	평균
30대	3	3.78	4.20	3.94	3.97
40대	20	3.74	3.89	3.84	3.82
50대	52	3.82	3.84	3.82	3.83
60대	33	3.66	3.72	3.74	3.71
70대이상	4	4.17	4.30	4.00	4.16
합계	112	3.77	3.84	3.81	3.81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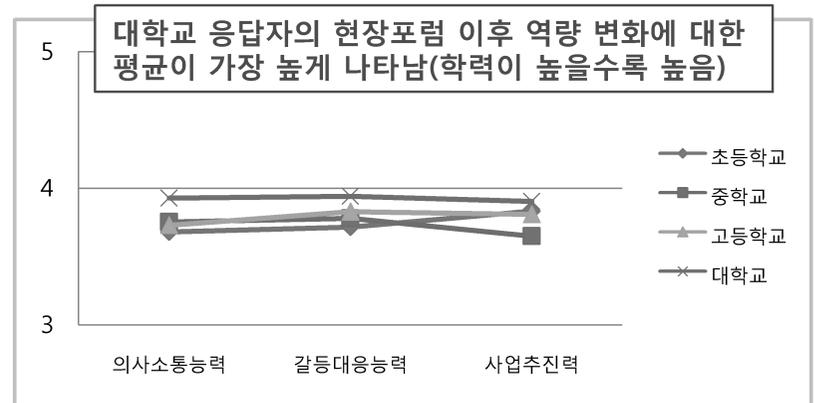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 추진력	평균
경기	8	3.33	3.58	3.48	3.46
강원	8	3.90	3.95	4.15	4.00
충북	11	3.85	4.02	3.94	3.94
충남	50	3.95	4.03	3.97	3.99
전북	11	3.62	3.69	3.48	3.60
전남	13	3.12	3.12	3.21	3.15
경북	5	4.37	4.32	4.40	4.36
경남	6	3.72	3.50	3.64	3.62
합계	112	3.77	3.84	3.81	3.81



▪ 학력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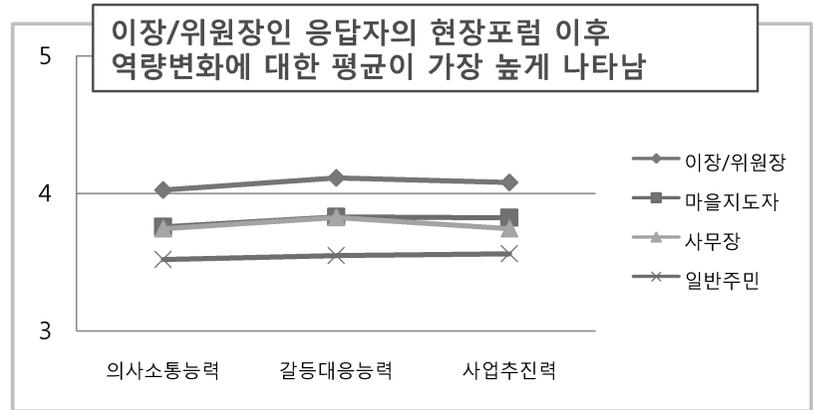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 추진력	평균
초등학교	12	3.68	3.72	3.83	3.74
중학교	21	3.75	3.78	3.65	3.73
고등학교	63	3.73	3.83	3.81	3.79
대학교	14	3.93	3.94	3.90	3.93
대학원	2	4.58	4.70	4.75	4.68
합계	112	3.77	3.84	3.81	3.81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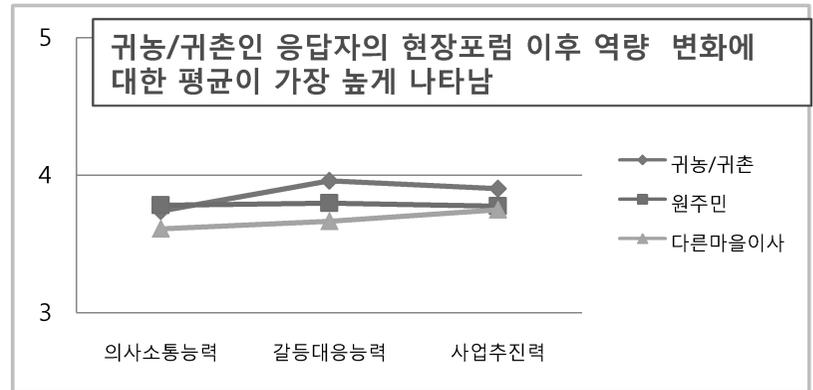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 추진력	평균
이장/위원장	37	4.03	4.11	4.08	4.07
마을지도자	33	3.76	3.83	3.82	3.80
사무장	15	3.74	3.83	3.74	3.77
일반주민	24	3.52	3.55	3.56	3.54
기타	3	2.83	2.87	2.67	2.79
합계	112	3.77	3.84	3.81	3.81



▪ 정착계기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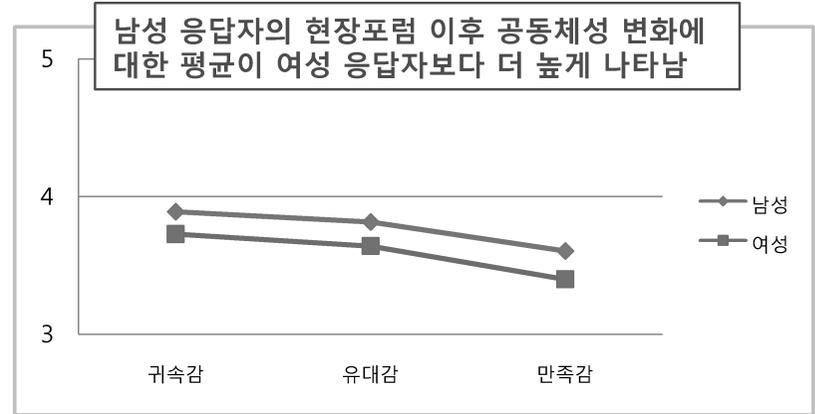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 추진력	평균
귀농/귀촌	31	3.74	3.96	3.90	3.87
원주민	73	3.78	3.80	3.78	3.79
다른마을이사	6	3.61	3.67	3.75	3.68
외부인	2	4.17	3.90	3.83	3.97
합계	112	3.77	3.84	3.81	3.81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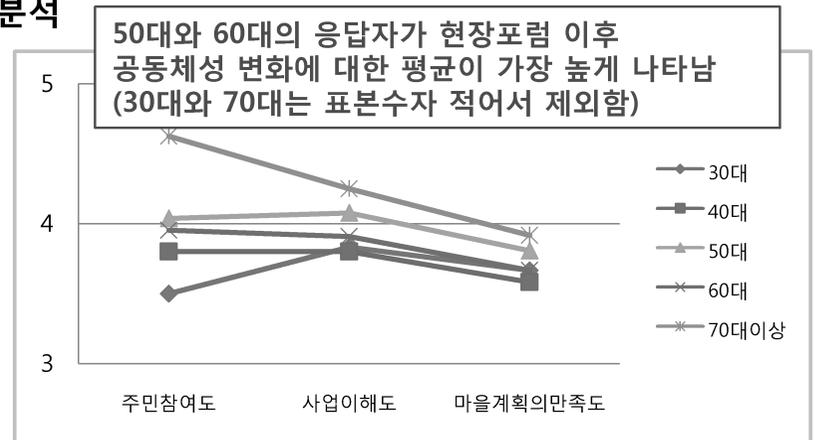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귀속감	유대감	만족감	평균
남성	77	3.89	3.82	3.61	3.77
여성	35	3.73	3.64	3.40	3.59
합계	112	3.84	3.76	3.54	3.72



▪ 연령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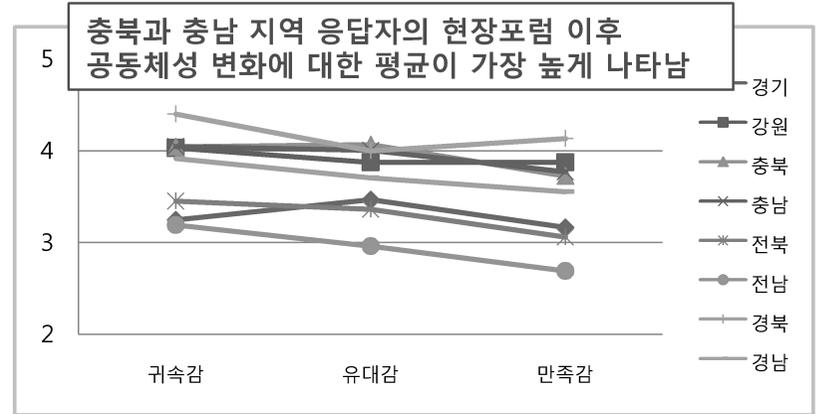
구분	N	귀속감	유대감	만족감	평균
30대	3	3.83	3.75	3.89	3.82
40대	20	3.71	3.71	3.50	3.64
50대	52	3.87	3.75	3.55	3.72
60대	33	3.83	3.78	3.52	3.71
70대이상	4	4.31	4.00	3.58	3.97
합계	112	3.84	3.76	3.54	3.72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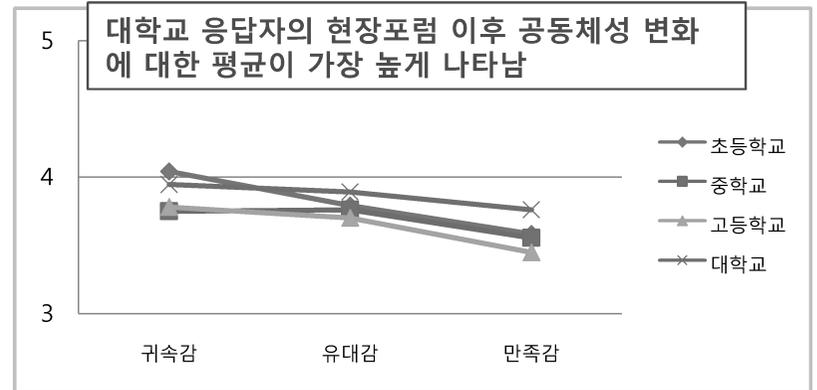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귀속감	유대감	만족감	평균
경기	8	3.25	3.47	3.17	3.30
강원	8	4.03	3.88	3.88	3.93
충북	11	4.05	4.07	3.73	3.95
충남	50	4.05	4.01	3.77	3.94
전북	11	3.45	3.36	3.06	3.29
전남	13	3.19	2.96	2.69	2.95
경북	5	4.40	4.00	4.13	4.18
경남	6	3.92	3.71	3.56	3.73
합계	112	3.84	3.76	3.54	3.72



▪ 학력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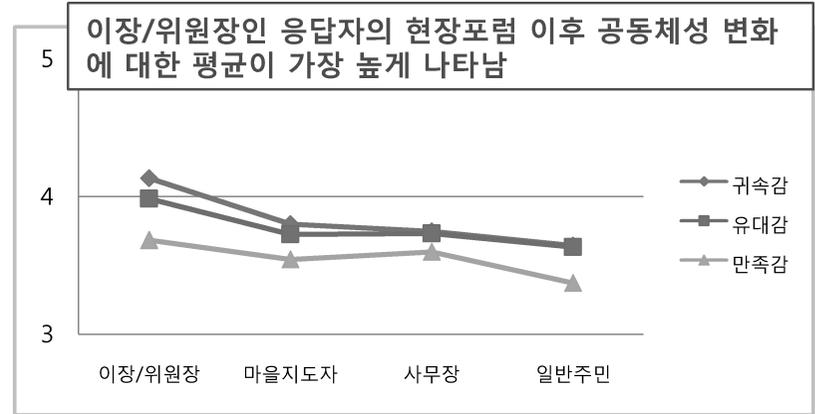
구분	N	귀속감	유대감	만족감	평균
초등학교	12	4.04	3.79	3.58	3.81
중학교	21	3.75	3.76	3.56	3.69
고등학교	63	3.78	3.70	3.45	3.64
대학교	14	3.95	3.89	3.76	3.87
대학원	2	4.75	4.63	4.50	4.63
합계	112	3.84	3.76	3.54	3.72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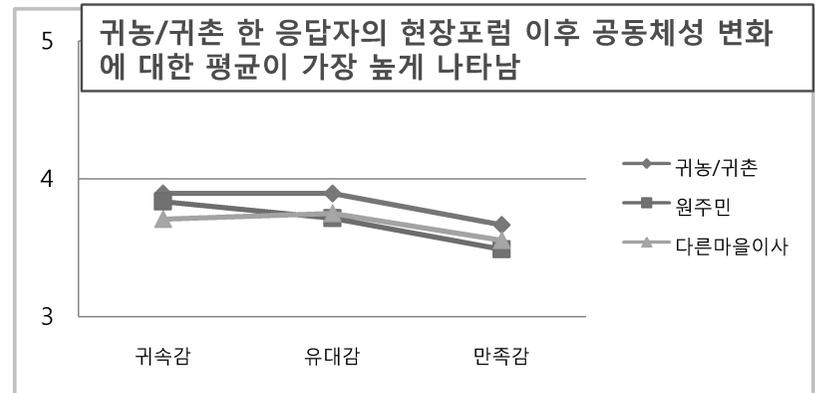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귀속감	유대감	만족감	평균
이장/위원장	37	4.14	3.99	3.68	3.94
마을지도자	33	3.80	3.73	3.55	3.69
사무장	15	3.75	3.73	3.60	3.69
일반주민	24	3.65	3.64	3.38	3.55
기타	3	2.67	2.58	2.78	2.68
합계	112	3.84	3.76	3.54	3.72



▪ 정착계기에 따른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귀속감	유대감	만족감	평균
귀농/귀촌	31	3.90	3.90	3.67	3.82
원주민	73	3.84	3.72	3.49	3.68
다른마을이사	6	3.71	3.75	3.56	3.67
외부인	2	3.63	3.50	3.50	3.54
합계	112	3.84	3.76	3.54	3.72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전문가 대상)

전문가대상 전체 종합 비교분석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설문구성 항목별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 남성이, 50대, 퍼실리테이터, 충북 지역, 11회~20회 이하의 참여자가 우수성과 필요성측면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항목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평균
성별	남자	4.21	4.34	4.28
연령	50대	4.41	4.51	4.46
역할	퍼실리테이터	4.34	4.52	4.43
지역	충북	4.30	4.46	4.38
참여횟수	11회~20회 이하	4.47	4.62	4.55



→ 연령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젊은층의 부정적 의견이 많아 타 그룹에 비해 낮았으며,

→역할비교에서는 농어촌컨설턴트의 의견이 타 그룹에 비해 낮았음

→참여횟수에 비례해서는 많이 참여할 수록 높은 응답을 보였음

→지역분석에서는 주민대상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전문가 그룹은 낮은 점수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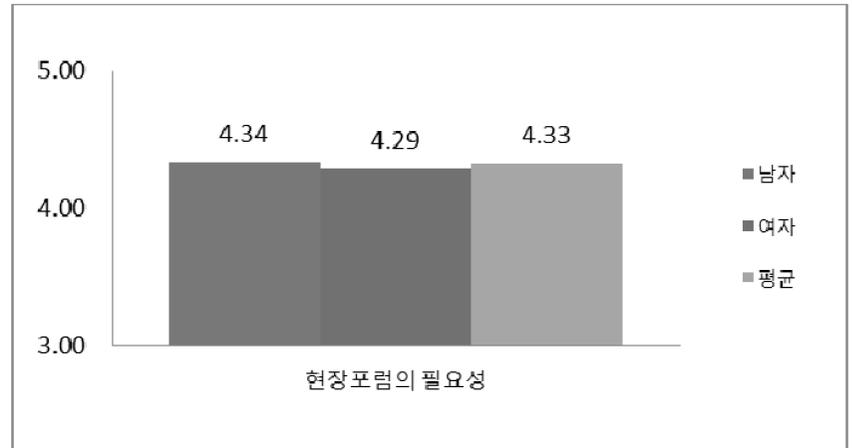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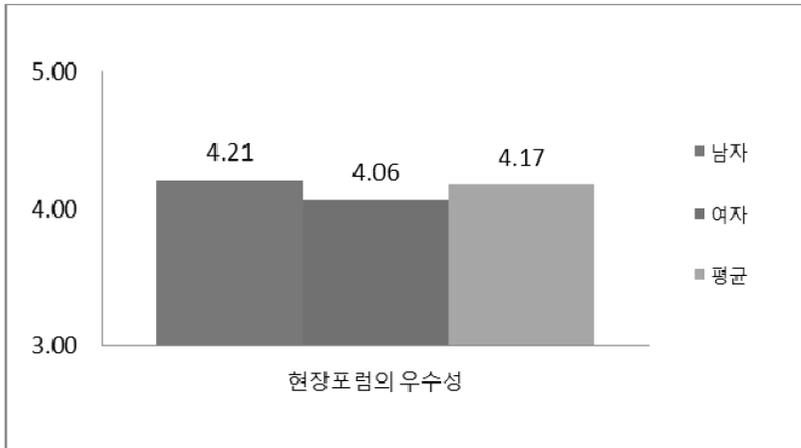
통계적 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 성별에 따른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남자	4.21	4.34
여자	4.06	4.29
평균	4.17	4.33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남자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보다 높은 점수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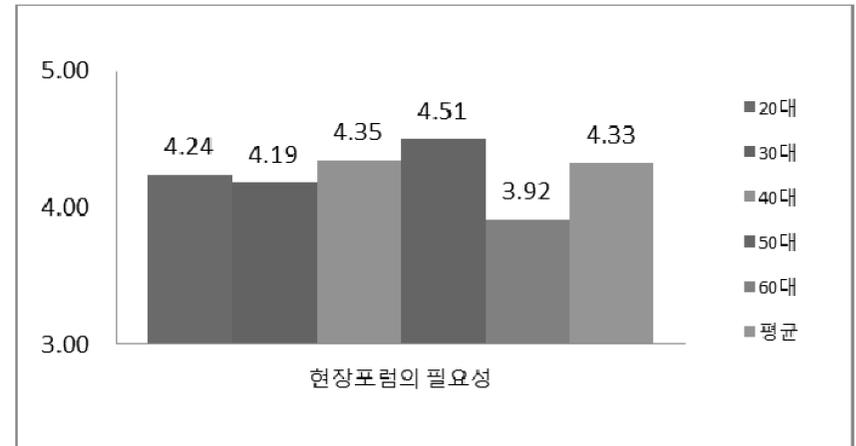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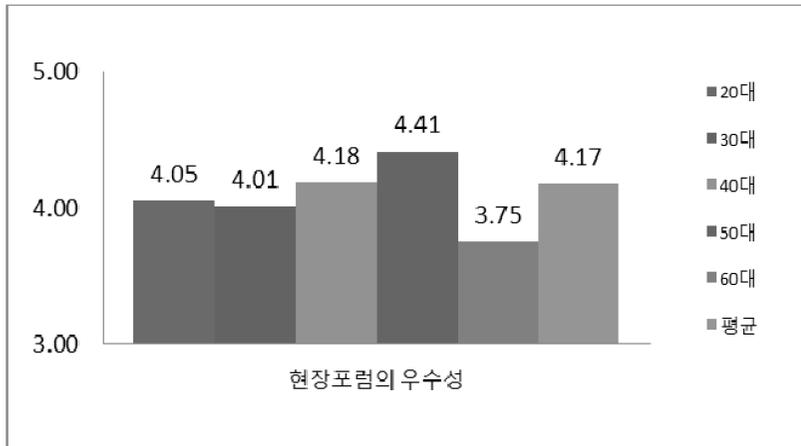
일반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 연령에 따른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20대	4.05	4.24
30대	4.01	4.19
40대	4.18	4.35
50대	4.41	4.51
평균	4.17	4.33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40대와 50대**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분포를 보임
 → 30대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60대는 표본숫자가 적어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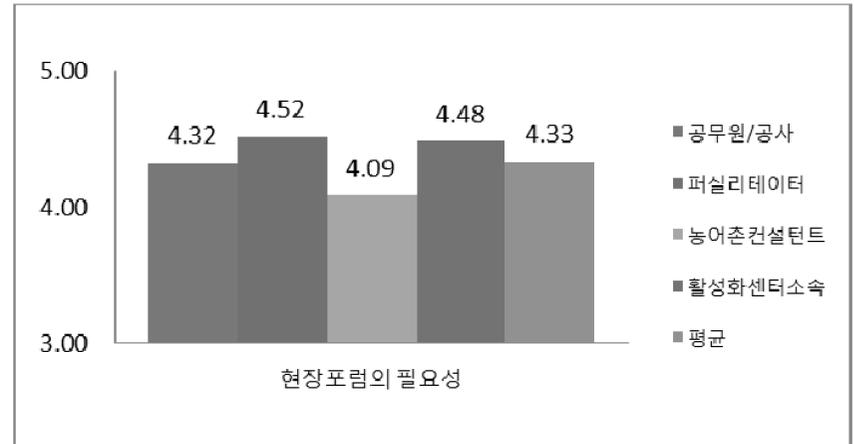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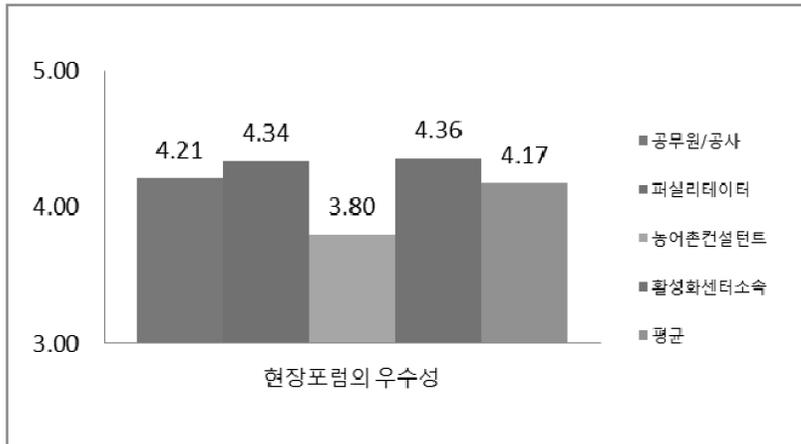
일반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 역할에 따른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공무원/공사	4.21	4.32
퍼실리테이터	4.34	4.52
농어촌컨설턴트	3.80	4.09
활성화센터소속	4.36	4.48
평균	4.17	4.33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농어촌컨설턴트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그룹은 비슷하게 높은 점수 분포를 보임 이는 현장포럼에서 농어촌컨설턴트의 역할 기여가 적은것에 대한 결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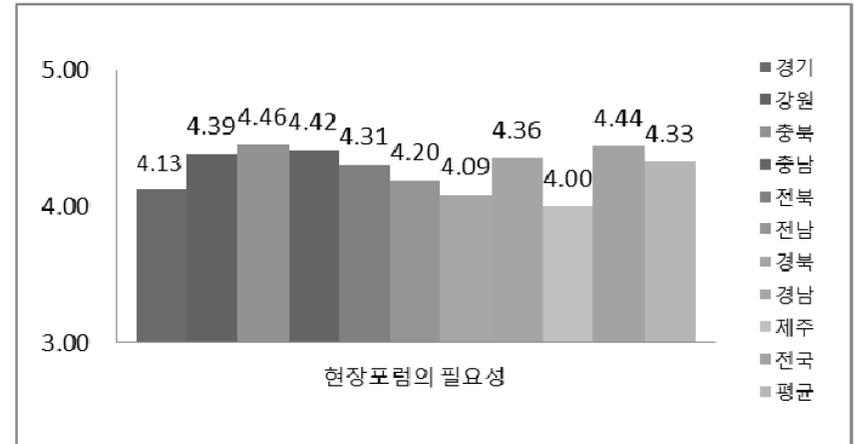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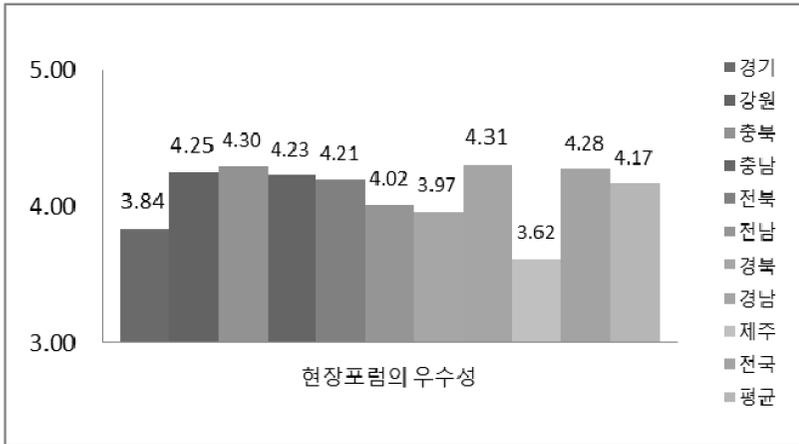
일반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 활동지역에 따른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경기	3.84	4.13
강원	4.25	4.39
충북	4.30	4.46
충남	4.23	4.42
전북	4.21	4.31
전남	4.02	4.20
경북	3.97	4.09
경남	4.31	4.36
제주	3.62	4.00
전국	4.28	4.44
평균	4.17	4.33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지역, 경북지역과 경기지역의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그룹은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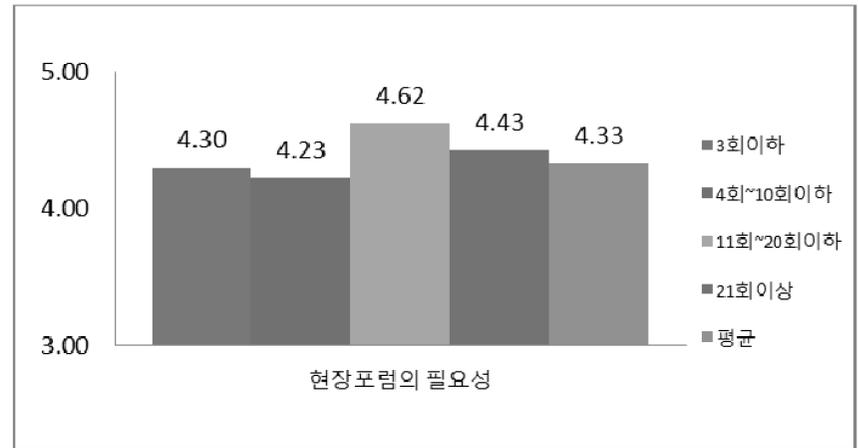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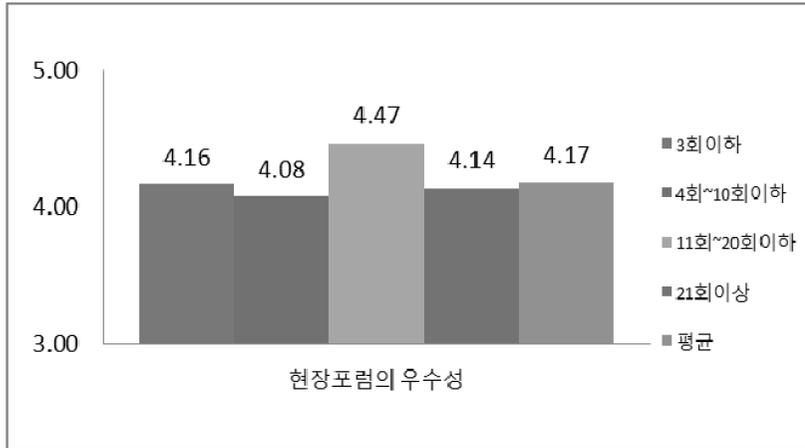
일반특성에 따른 종합 비교분석

▪ 참여횟수에 따른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우수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3회 이하	4.16	4.30
4회~10회 이하	4.08	4.23
11회~20회 이하	4.47	4.62
21회 이상	4.14	4.43
평균	4.17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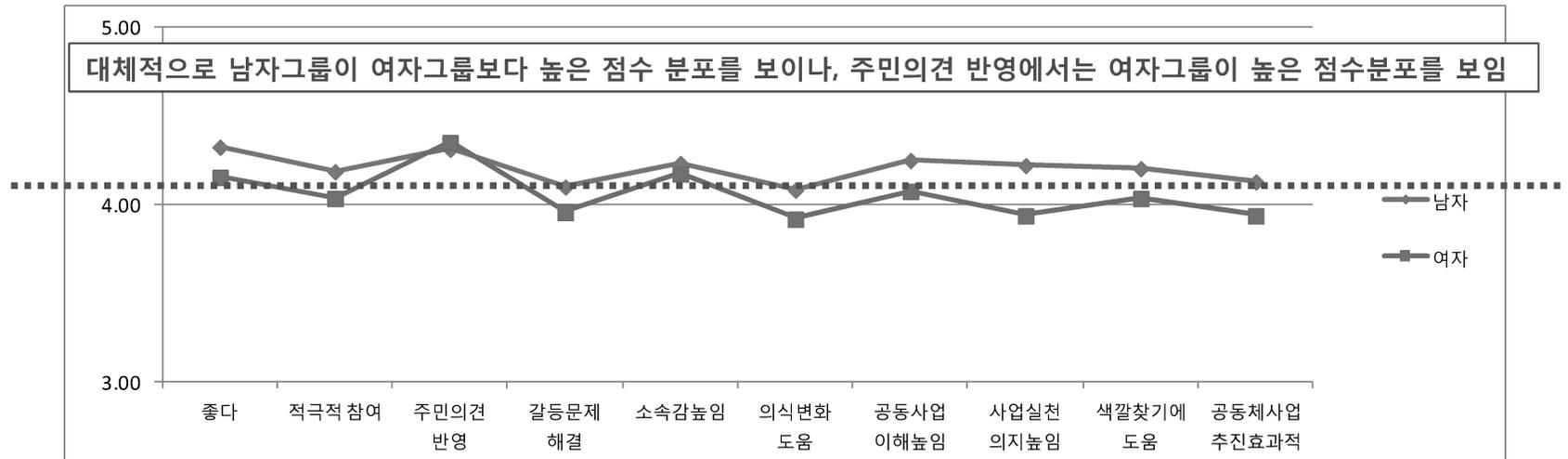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11회~20회 이하로 현장포럼에 참여한 응답자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포럼참여 횟수가 많을 수록 평균이상의 점수분포를 보임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 성별에 따른 기존프로그램과 비교한 현장포럼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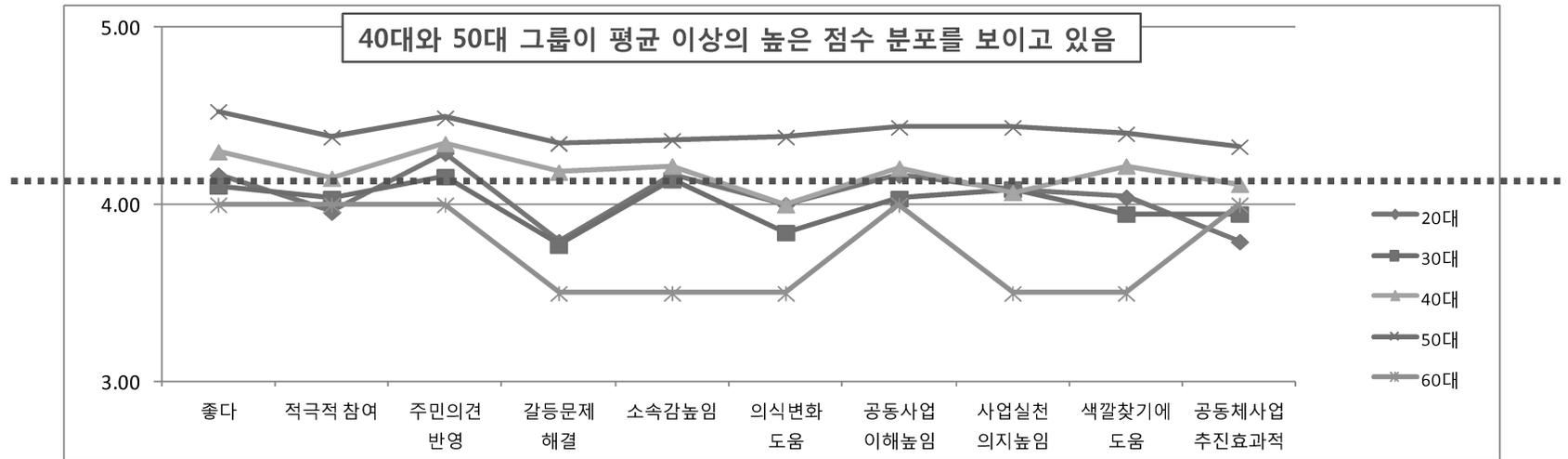
구 분	좋다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 높임	의식변화 도움	공동사업 이해높임	사업실천 의지높임	색깔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효과적	평균
남자	4.33	4.19	4.32	4.10	4.24	4.09	4.25	4.22	4.21	4.13	4.21
여자	4.16	4.04	4.35	3.96	4.18	3.92	4.08	3.94	4.04	3.94	4.06
평균	4.29	4.16	4.32	4.07	4.22	4.05	4.21	4.16	4.17	4.09	4.17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령에 따른 기존프로그램과 비교한 현장포럼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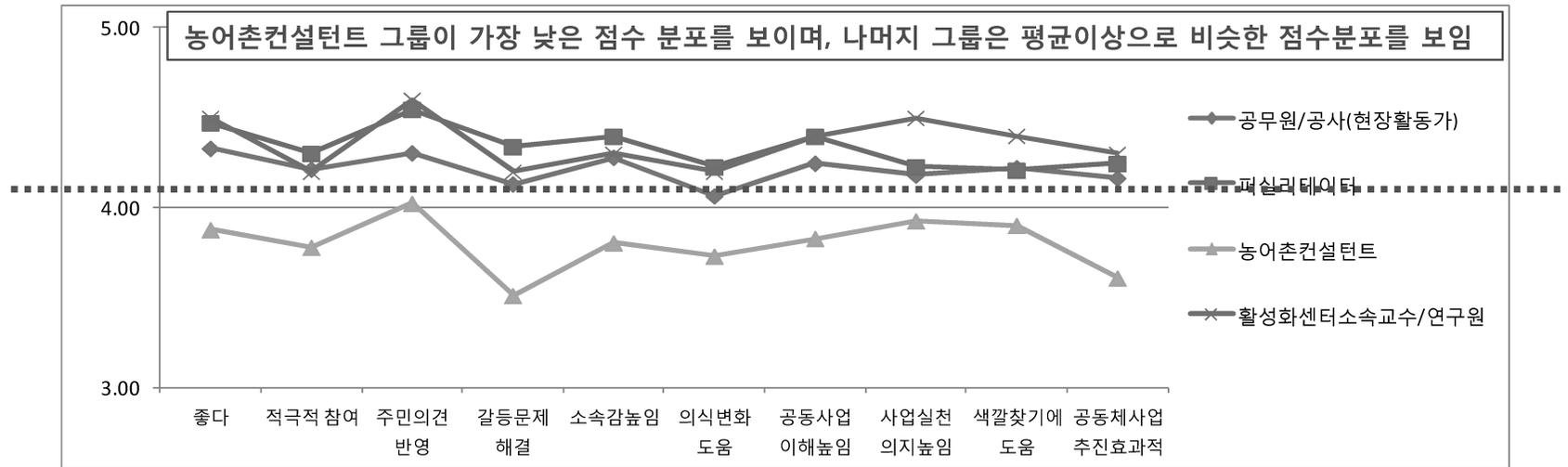
구 분	좋다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높임	의식변화 도움	공동사업 이해높임	사업실천 의지높임	색깔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효과적	평균
20대	4.17	3.96	4.29	3.79	4.17	4.00	4.17	4.08	4.04	3.79	4.05
30대	4.11	4.04	4.16	3.77	4.14	3.84	4.04	4.09	3.95	3.95	4.01
40대	4.30	4.15	4.34	4.18	4.22	4.00	4.21	4.07	4.22	4.11	4.18
50대	4.53	4.38	4.49	4.35	4.36	4.38	4.44	4.44	4.40	4.33	4.41
60대	4.00	4.00	4.00	3.50	3.50	3.50	4.00	3.50	3.50	4.00	3.75
평균	4.29	4.16	4.32	4.07	4.22	4.05	4.21	4.16	4.17	4.09	4.17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 역할에 따른 기존프로그램과 비교한 현장포럼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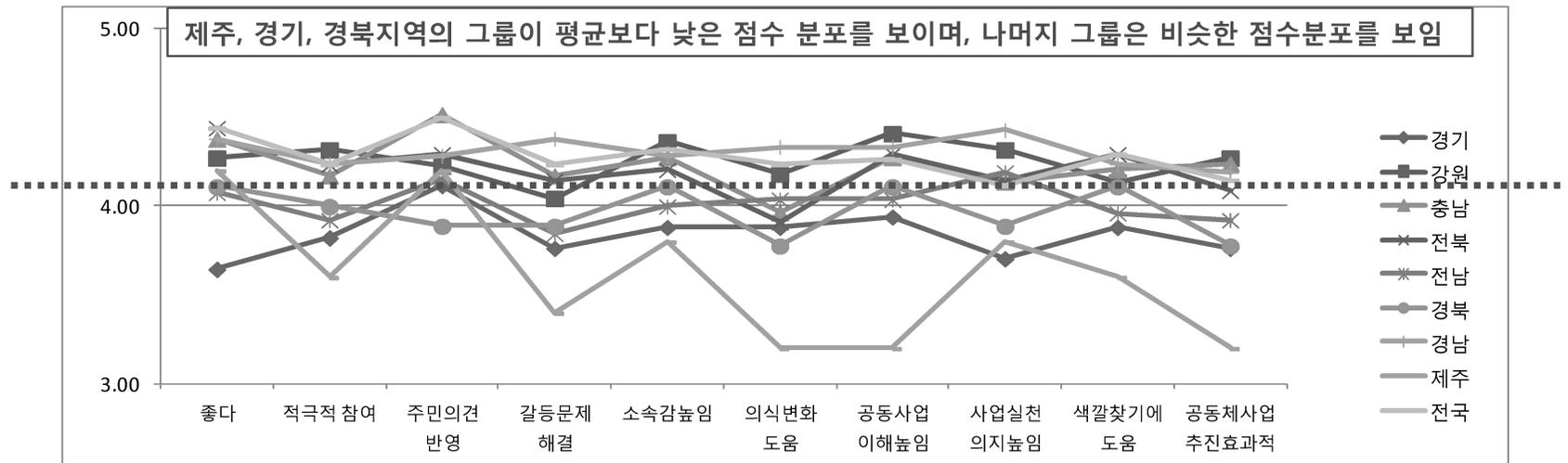
구 분	좋다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높임	의식변화 도움	공동사업 이해높임	사업실천 의지높임	색깔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효과적	평균
공무원/공사(현장활동가)	4.33	4.21	4.31	4.13	4.28	4.07	4.25	4.18	4.22	4.17	4.21
퍼실리테이터	4.47	4.30	4.55	4.34	4.40	4.23	4.40	4.23	4.21	4.25	4.34
농어촌컨설턴트	3.88	3.78	4.02	3.51	3.80	3.73	3.83	3.93	3.90	3.61	3.80
활성화센터소속교수/연구원	4.50	4.20	4.60	4.20	4.30	4.20	4.40	4.50	4.40	4.30	4.36
평균	4.29	4.16	4.32	4.07	4.22	4.05	4.21	4.16	4.17	4.09	4.17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 활동지역에 따른 기존프로그램과 비교한 현장포럼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구 분	좋다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높임	의식변화 도움	공동사업 이해높임	사업실천 의지높임	색깔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효과적	평균
경기	3.65	3.82	4.12	3.76	3.88	3.88	3.94	3.71	3.88	3.76	3.84
강원	4.27	4.32	4.23	4.05	4.36	4.18	4.41	4.32	4.14	4.27	4.25
충남	4.38	4.17	4.52	4.17	4.28	3.97	4.28	4.14	4.21	4.24	4.23
전북	4.44	4.24	4.29	4.15	4.21	3.91	4.29	4.15	4.29	4.09	4.21
전남	4.08	3.92	4.15	3.85	4.00	4.04	4.04	4.19	3.96	3.92	4.02
경북	4.11	4.00	3.89	3.89	4.11	3.78	4.11	3.89	4.11	3.78	3.97
경남	4.38	4.24	4.29	4.38	4.29	4.33	4.33	4.43	4.24	4.19	4.31
제주	4.20	3.60	4.20	3.40	3.80	3.20	3.20	3.80	3.60	3.20	3.62
전국	4.44	4.24	4.50	4.24	4.32	4.24	4.26	4.12	4.29	4.15	4.28
평균	4.29	4.16	4.32	4.07	4.22	4.05	4.21	4.16	4.17	4.09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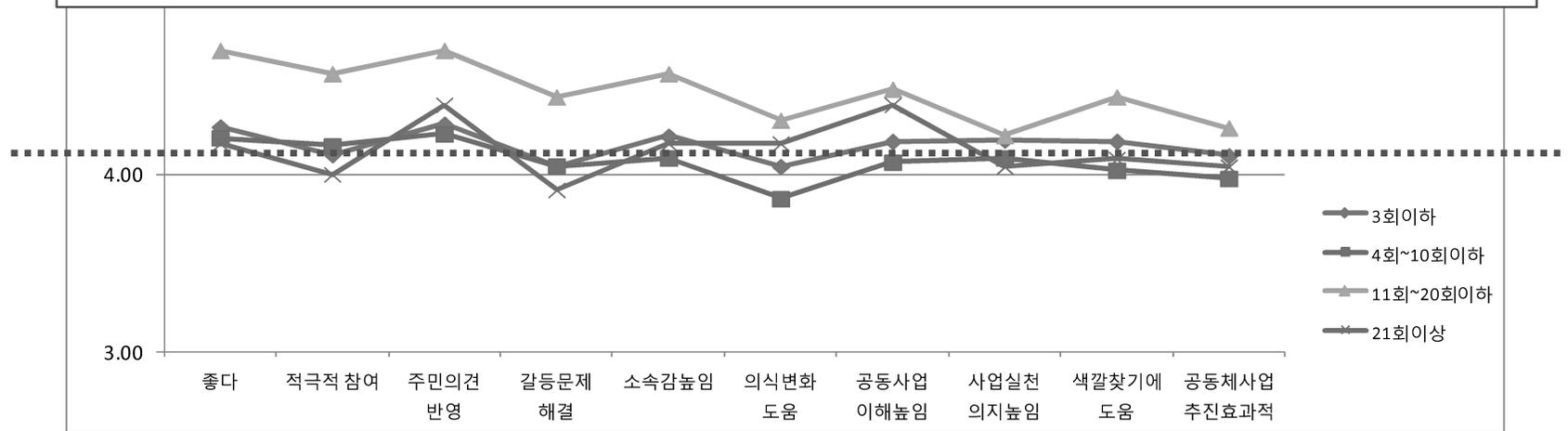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 참여횟수에 따른 기존프로그램과 비교한 현장포럼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구 분	좋다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 높임	의식변화 도움	공동사업 이해높임	사업실천 의지높임	색깔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효과적	평균
3회이하	4.27	4.11	4.28	4.04	4.21	4.04	4.19	4.19	4.19	4.10	4.16
4회~10회이하	4.20	4.16	4.23	4.05	4.09	3.86	4.07	4.09	4.02	3.98	4.08
11회~20회이하	4.70	4.57	4.70	4.43	4.57	4.30	4.48	4.22	4.43	4.26	4.47
21회이상	4.17	4.00	4.39	3.91	4.17	4.17	4.39	4.04	4.09	4.04	4.14
평균	4.29	4.16	4.32	4.07	4.22	4.05	4.21	4.16	4.17	4.09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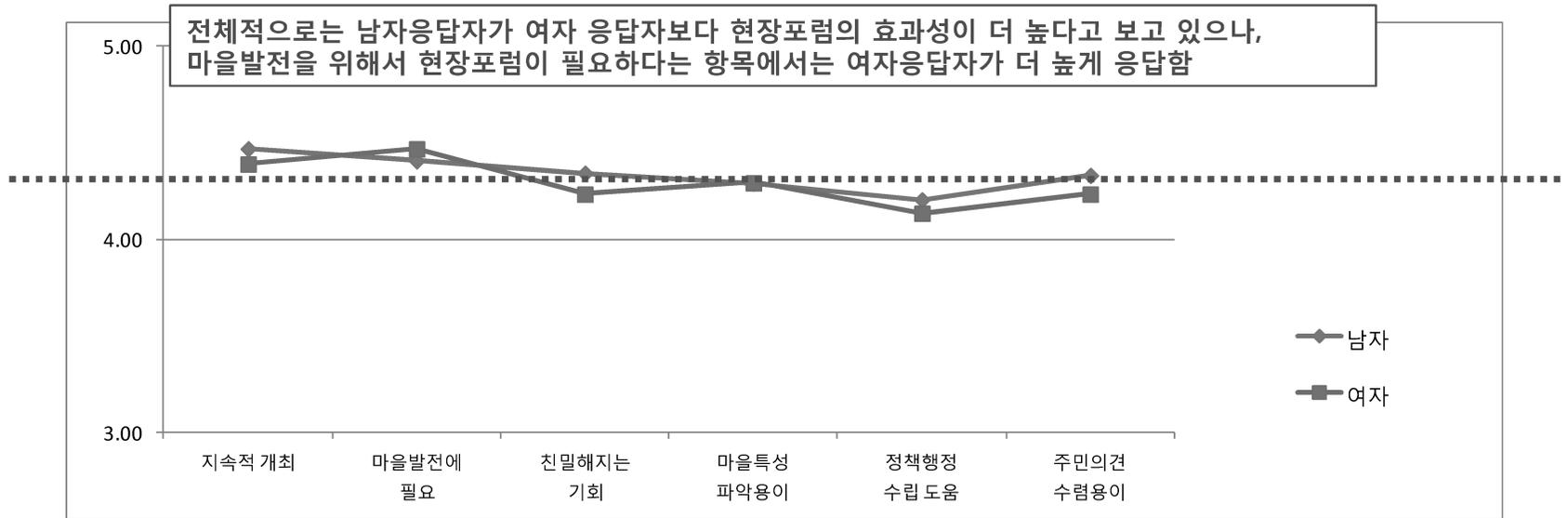
11회이상 20회 이하로 현장포럼에 참여한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 분포를 보이며, 나머지 그룹은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임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 성별에 따른 현장포럼의 필요성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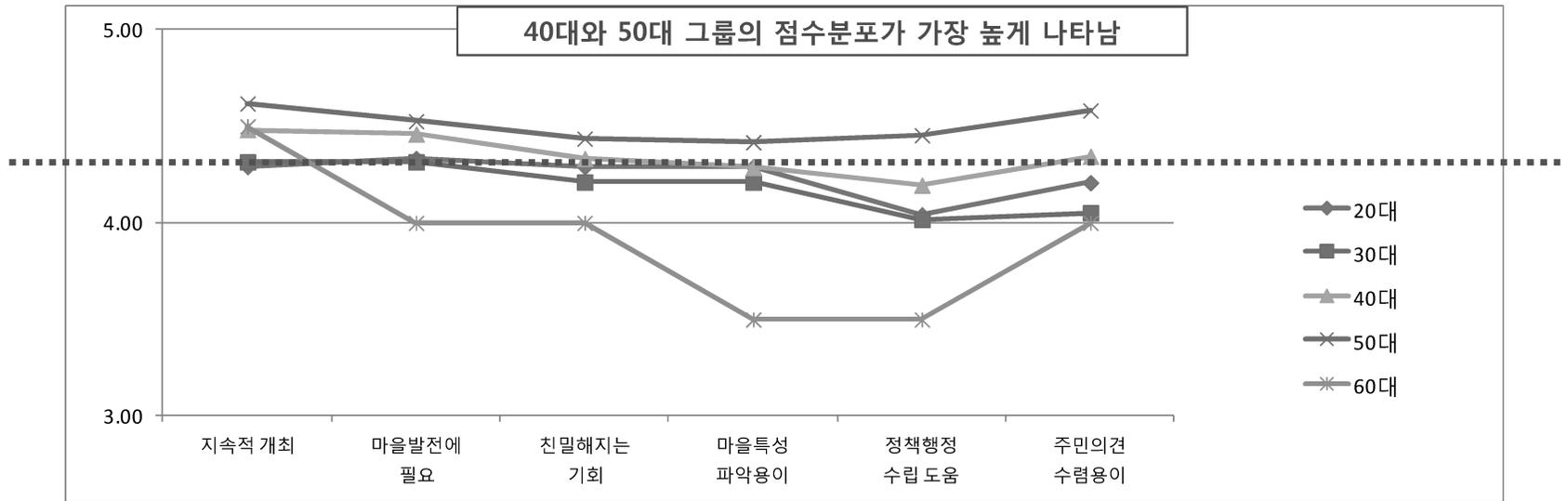
구 분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친밀해지는 기회	마을특성 파악용이	정책행정 수립 도움	주민의견 수렴용이	평균
남자	4.47	4.41	4.34	4.29	4.21	4.33	4.34
여자	4.39	4.47	4.24	4.29	4.14	4.24	4.29
평균	4.45	4.42	4.32	4.29	4.19	4.31	4.33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령에 따른 현장포럼의 필요성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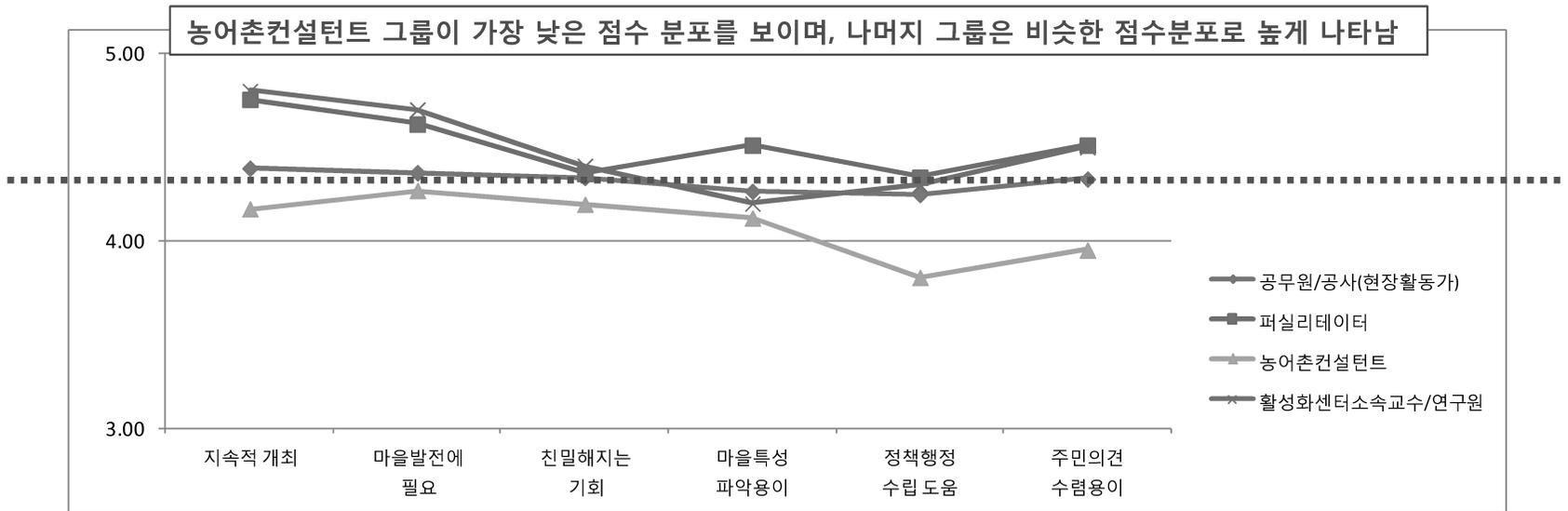
구 분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친밀해지는 기회	마을특성 파악용이	정책행정 수립 도움	주민의견 수렴용이	평균
20대	4.29	4.33	4.29	4.29	4.04	4.21	4.24
30대	4.32	4.32	4.21	4.21	4.02	4.05	4.19
40대	4.48	4.46	4.33	4.29	4.20	4.34	4.35
50대	4.62	4.53	4.44	4.42	4.45	4.58	4.51
60대	4.50	4.00	4.00	3.50	3.50	4.00	3.92
평균	4.45	4.42	4.32	4.29	4.19	4.31	4.33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분석

▪ 역할에 따른 현장포럼의 필요성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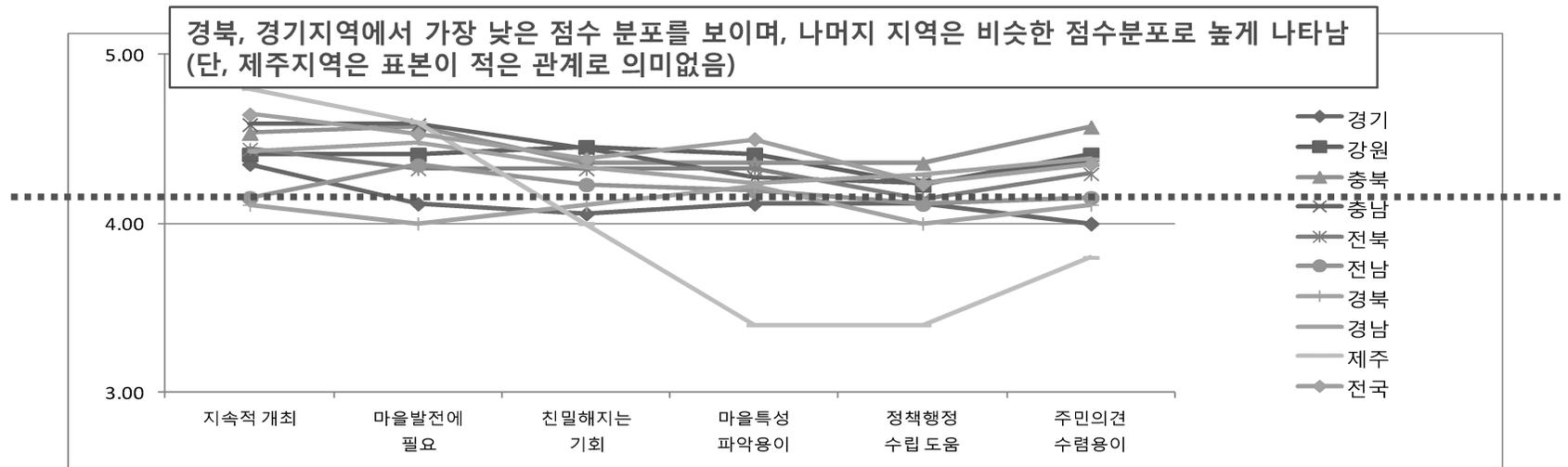
구 분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친밀해지는 기회	마을특성 파악용이	정책행정 수립 도움	주민의견 수렴용이	평균
공무원/공사(현장활동가)	4.39	4.36	4.34	4.26	4.25	4.33	4.32
퍼실리테이터	4.75	4.62	4.36	4.51	4.34	4.51	4.52
농어촌컨설턴트	4.17	4.27	4.20	4.12	3.80	3.95	4.09
활성화센터소속교수/연구원	4.80	4.70	4.40	4.20	4.30	4.50	4.48
합계	4.45	4.42	4.32	4.29	4.19	4.31	4.33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분석

▪ 활동지역에 따른 현장포럼의 필요성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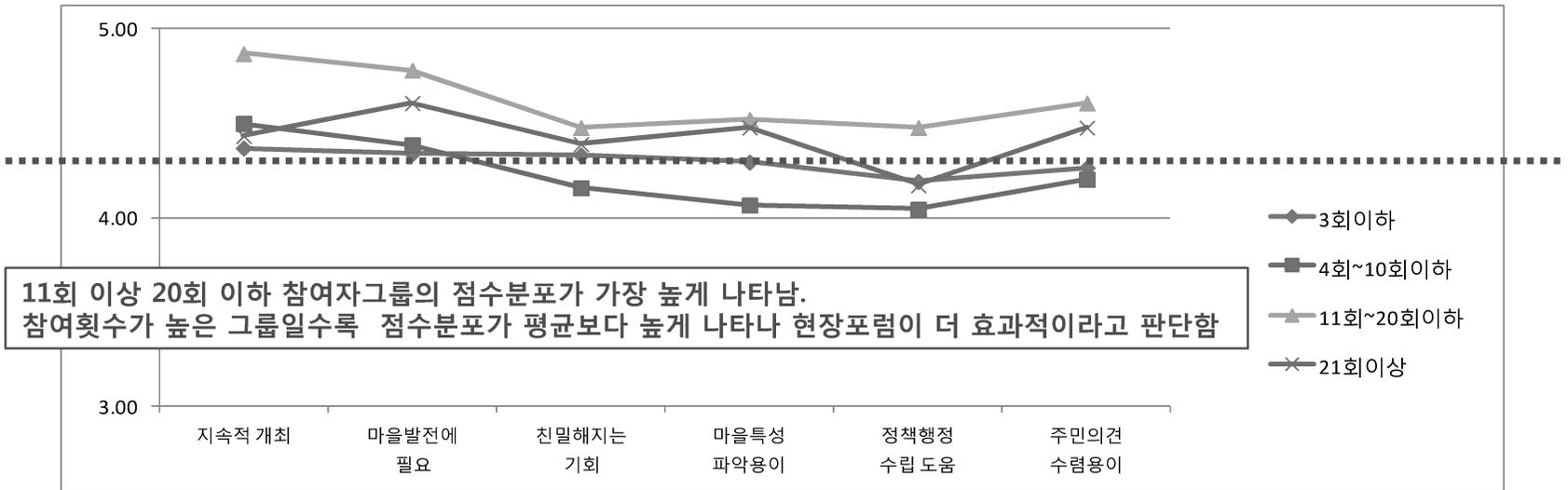
구 분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친밀해지는 기회	마을특성 파악용이	정책행정 수립 도움	주민의견 수렴용이	평균
경기	4.35	4.12	4.06	4.12	4.12	4.00	4.13
강원	4.41	4.41	4.45	4.41	4.23	4.41	4.39
충북	4.54	4.57	4.36	4.36	4.36	4.57	4.46
충남	4.59	4.59	4.45	4.28	4.24	4.38	4.42
전북	4.44	4.32	4.32	4.32	4.15	4.29	4.31
전남	4.15	4.35	4.23	4.19	4.12	4.15	4.20
경북	4.11	4.00	4.11	4.22	4.00	4.11	4.09
경남	4.43	4.48	4.33	4.24	4.29	4.38	4.36
제주	4.80	4.60	4.00	3.40	3.40	3.80	4.00
전국	4.65	4.53	4.38	4.50	4.24	4.35	4.44
평균	4.45	4.42	4.32	4.29	4.19	4.31	4.33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분석

▪ 참여횟수에 따른 현장포럼의 필요성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

구 분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친밀해지는 기회	마을특성 파악용이	정책행정 수립 도움	주민의견 수렴용이	평균
3회이하	4.37	4.34	4.33	4.30	4.19	4.27	4.30
4회~10회이하	4.50	4.39	4.16	4.07	4.05	4.20	4.23
11회~20회이하	4.87	4.78	4.48	4.52	4.48	4.61	4.62
21회이상	4.43	4.61	4.39	4.48	4.17	4.48	4.43
평균	4.45	4.42	4.32	4.29	4.19	4.31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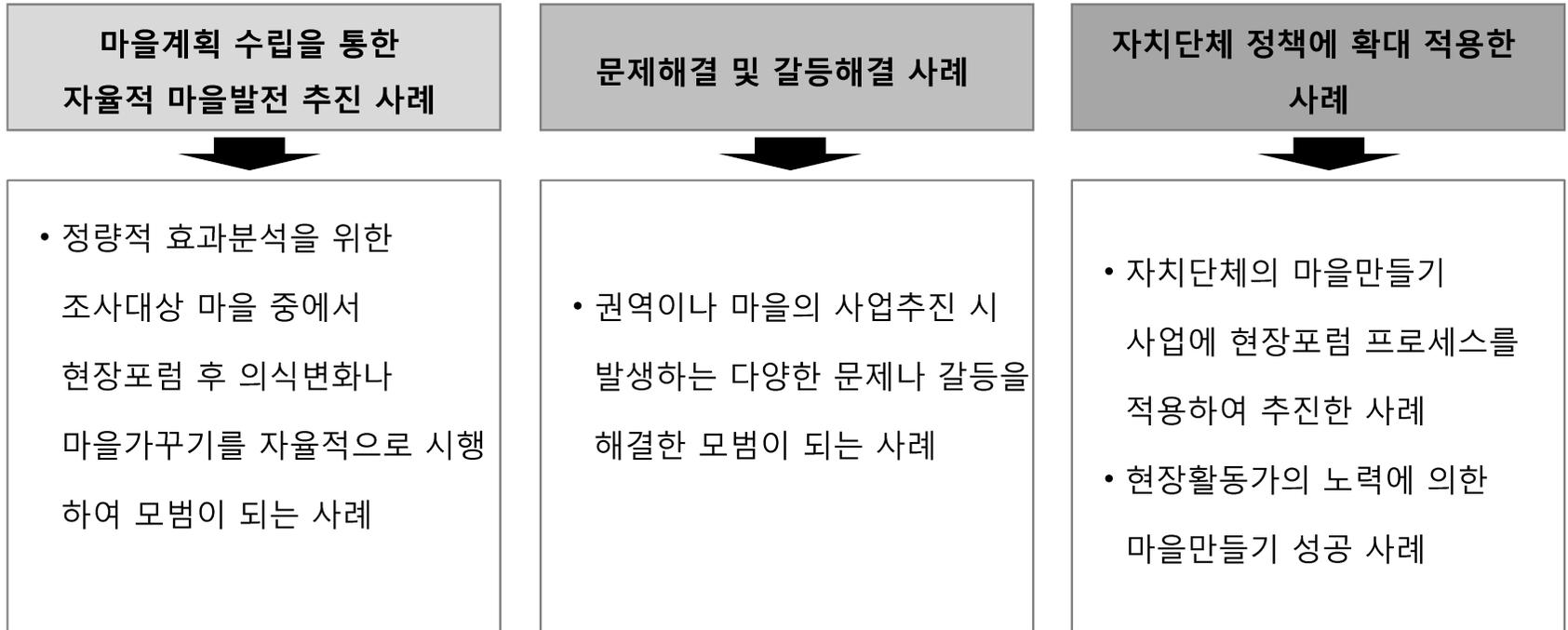


IV. 정성적 효과분석

1. 정성적 효과분석을 위한 사례구성
 2. 정성적 효과분석 우수사례 요약
 3. 정성적 사례 종합결과 분석
- * 농촌현장포럼의 우수사례 기술

1. 정성적 효과분석을 위한 사례구성

▪ 정성적 효과분석을 위한 사례 구성



2. 정성적 효과분석 우수사례 요약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수립후 자율적 마을발전 추진 사례	
음성군 대실마을	주민 스스로 연꽃 방죽 및 박터널 조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박공예 학습
부여군 구례울마을	마을의 숨은 자원 '짚공예'를 찾아, 주민 모두가 매일 함께 짚공예 연습 및 창작품 연구 진행 중
홍성군 진죽마을	현장 포럼 후 갈등 해결 및 공동체성 향상
제주시 납읍리마을	마을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인제군 하추리마을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확립
화성시 상두리마을	마을 내 갈등을 해결하고, 단합하여 한과사업을 추진하는 중
논산시 채운2리	마을 숨은 자원 발굴. 자체적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마을 발전과제들을 직접 시행 중

2. 정성적 효과분석 우수사례 요약

현장포럼을 통한 문제해결 및 갈등해결 사례	
태안군 갈두천권역	권역내 마을별 사업 비교로 인한 이기주의와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 조직운영위 조직구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발굴과 실행계획 수립
봉화군 문수골권역	권역내 공동체 형성의 부족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권역사업 아이디어 도출 및 선정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장포럼 운영사례

현장포럼을 자치단체 정책에 확대 적용한 사례	
영동군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집중화를 시도하는 현장포럼으로 면단위 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적용
정읍시	현장활동가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유도(예 : 정읍시 원오봉마을)
청양군	부진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에 현장포럼 적용
논산시	현장포럼을 통해 충남도의 정책인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의 주민역량강화를 시행하고, 각 마을의 리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자생적 연구, 학습을 위한 모임의 조직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확대함

3. 정성적 사례 종합결과 분석

▪ 우수사례기술에서 나타나는 효과 요약

우수사례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 만족도	의사소통능력	갈등예방 및 대응력	사업추진력	공동체성
음성군 대실마을	●	●		●	●	●	●
부여군 구례울마을	●	●	●	●	●	●	●
홍성군 진죽마을	●	●		●	●	●	●
제주시 납읍리마을	●	●		●		●	●
인제군 하추리마을	●	●		●	●	●	●
화성시 상두리마을	●	●		●		●	●
논산시 채운2리	●	●	●	●	●	●	●

3. 정성적 사례 종합결과 분석

▪ 우수사례기술에서 나타나는 효과 요약

우수사례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 만족도	의사소통능력	갈등예방 및 대응력	사업추진력	공동체성
태안군 갈두천권역	●	●	●	●	●	●	●
봉화군 문수골권역	●	●	●	●	●	●	
영동군 추풍령면	●	●	●	●	●		
청양군 체험마을	●	●	●	●	●	●	
논산시 희망마을 만들기(연구포럼)	●	●	●	●	●	●	●
정읍시 원오봉마을	●	●		●	●	●	●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기술

순서

1.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수립후 자율적 마을발전 추진 사례

- 음성군 대야리(대실마을)
- 부여군 천보리(구레울마을)
- 홍성군 부기리(진죽마을)
- 논산시 채운2리(황금빛마을)
- 제주시 납읍리(납읍리마을)
- 인제군 하추리(하추리마을)
- 화성시 상두리(상두리마을)
- 논산시 채운2리(황금빛마을)

2. 현장포럼을 통한 문제해결 및 갈등해결 사례

- 태안군 갈두천권역
- 봉화군 문수골권역

3. 현장포럼을 자치단체 정책에 확대 적용한 사례

- 영동군 추풍령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 청양군 체험마을 역량강화
- 논산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정읍시 원오봉마을
- 봉화군 문수골권역

연꽃과 체험이 있는 대실마을 / 음성군 대야리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대실마을)
마을대표 : 정중구
마을인구 : 103세대/213명 (남자 116명, 여자 97명)

2. 현장포럼 후 대실마을

1) 의식변화

첫째, 리더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의식에서 발전하여 리더와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차이가 확연히 들어 날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현장포럼을 통해 조금씩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생각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전에 마을 회의에서는 리더의 말에 찬반을 논의하였는데, 현재는 의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여 함께 토론하고 있다.

둘째,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일이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주민참여도가 증가했다.

실제로 현장포럼 이전까지 주민들은 마을 일이 자신들의 것은 거의 없고, 리더의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현재는 마을 일이 공동체의 일이고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리더 또한 마을 일은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행동변화

첫째, 매 달 정기적으로 마을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한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전화를 돌려서 회의가 있음을 알리고, 몇 달 전부터 마을 온라인카페에 회의 결과보고도 올리고 있다. 또한 전지에 의견을 붙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고집어내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마을 회의에 사용했다.

둘째,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겨서 마을 일을 함께 뭉쳐서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왕골 껍질을 까는 일을 할 때도 남의 것을 한다고 생각하던 예전과는 달리, 나의 것을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 또한 마을 주민 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일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 주민들도 궁금증에 나오게 되고, 마을이 점점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

셋째, 마을의 미래를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한다.

관광객들에게 공예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박공예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박공예를 배웠다. 또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입구에 연꽃방죽과 박 터널을 만들고, 안내지도도 직접 제작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마을 논에 얼음썰매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도 했다. 썰매도 주민들이 손수 만든 썰매를 빌려주었다.

3. 대실마을의 모습



2012년 11월, 마을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발전 테마발굴 및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롱박 터널을 만들고, 연꽃 방죽 주변 경관정리를 했다.

7월9일 대실마을의 임시모임이 있었습니다.

안건

1. 7월11일 제령마을 견학건
 출발시간: 09:30분 출발.
 목적지 : 용남양진교 황토마을.
 견학내용: 우선 각자 마을을 둘러보고년 다음 체험을 해보도록 한다.
 이시점의 체험은 **인절미떡메치기와 영색체험**인데 우리는 영색체험만 허가로 하였음. 그리고 모처럼 서해안의 생선회를 맛보기로함.

2. 연지교 준공식 준비건
 준공식 일시및 장소: 7월 30일 11:30분 연지못에서
 예상인원 : 200명
 초청인사: 용성교수와 삼성면의 주요 관계공무원및 주민들이 초청한 외부인.
 감사패: 용성군수, 용북도의원, 삼성면장.
 공로패: 박왕옥 부위원장으로 결정되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다른방법으로 감사를 표할거로 함.
 음식: 한식출장부패(10,000원/인)로 육계장을 대표적으로함.
 선물: 대실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쌀, 대실약등

3. 기타
 연지교 명패 주문
 재질및 규격: 오색으로서 높이 90, 넓이 70, 두께 30센티미터.
 글씨: 앞면 蓬池橋(연지교) 명판말에 서체영씨가 쓴 명판문.
 뒷면 대실마을회32명의 상명. 글

· (회의참석자)
 상중구위원장, 바람죽 부위원장, 허재욱 노인회장, 신만호, 강만중, 황재구, 정용석, 권택석, 권철균, 두
 녀희왕, 정용운, 박노영, 김재홍, 김형식, 최수일, 황진두, 안창갑, 서재용, 장한상, 이미자.



표주박을 만들고, 박공예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 함께 박공예를 배웠다.

매번 마을 회의가 있을 때 마다, 마을의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 및 결과, 참석인원 등을 올리고 주민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cafe.daum.net/daesilvillage>)

하늘아래 보배 구레울마을 / 부여군 천보리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부여군 내산면 천보리 (구레울마을)

마을대표 : 정영임

마을인구 : 12세대/명

2. 현장포럼 후 구레울마을

첫째, 마을의 숨은 자원을 찾았다.

현장포럼을 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다. 마을의 자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의 숨어있는 자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짚공예 달인'이다. 현장포럼 후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짚공예를 배워서 체험마을 및 소득사업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둘째, 스스로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장포럼을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짚공예 달인' 자원을 발견한 후, 마을주민들은 매일 1~5시에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짚공예를 배우고 연습하기 시작했다. 짚공예를 하기 위한 왕골재배도 시작했다. 마을 공동으로 짚공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올 한해는 오로지 실력 상승에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창작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말 그 동안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창작품 판매를 통해 소득을 만들고,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군에서도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짚공예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문화 보존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생계걱정 없이 짚공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셋째, 새로운 삶에 활력이 생겼다.

매일매일 주민들이 다 같이 모이자 사이가 더욱 더 좋아졌다. 이제는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짚공예를 하면서 삶에 재미도 찾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열정도 생겼다고 한다. 자녀들도 좋아하고 신기해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한다.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발전에 대한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마을 공동체가 더욱 끈끈해지고 활기차졌다.

3. 구례올마을의 모습



2012년 7~8월. 마을자원을 찾고, 마을발전 테마발굴 및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매일 오후 1~5시.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짚공예 연습을 한다. 올해 까지는 실력을 기르고, 내년부터 스스로 창작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체험 제공 및 상품 판매를 할 예정이다. 총12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 중 10분이 참여한다. 2가구는 나이가 아주 많고 불편한 분이라고 한다. 가장 젊은 어르신이 62세이고 85세가 최고령이다.

홍성 진죽마을 / 홍성군 부기리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진죽마을)

마을대표 : 강연표

2. 현장포럼 후 진죽마을

1) 의식변화

마을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자금을 출자했다.

그 동안 회의는 한과 투자자들만 모여서 했었다. 하지만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모두 함께 하면서 마을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을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민 스스로 자금을 출자하여 1억5천만 원을 모았다. 조금씩이라도 모든 주민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한과사업 회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

2) 행동변화

첫째, 마을 주민들의 사이가 좋아졌다.

현장포럼을 통해 만든 세부과제 중 '공동으로 마을 묘지공원 관리하기'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주민들 사이에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오해도 풀어지고 사이가 좋아졌다.

둘째, 마을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준비한다.

2013년 초. 한과사업 준비를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한과원에 견학을 다녀왔다. 한과공장 운영 방법을 배우고, 기계 사용법도 실습을 통해 배웠다.

가내수공업의 노하우가 있는 어르신분들과 공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견학 및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한과 기계 구입 및 공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마을의 미래를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한다.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비전을 만들면서 정한 세부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포럼 후 마을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꽃길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 마을에 꽃길도 만들었다.

3. 진죽마을의 모습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마을의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포럼 이후 많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마을 회의를 하고 있다.



한과사업 준비를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공장 운영방법, 기계 사용법 등을 열심히 배워왔다.

제주시 납읍리 마을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마을대표 : 진석완

2. 현장포럼 후 납읍리마을

첫째,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주민 스스로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회피하기만 했던 마을 공동의 일을, 이제는 누구랄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한, 마을을 깨끗이 하고 경관을 가꾸기 위해 꽃동산 가꾸기, 연못 및 금산공원 주변 풀 베기, 올레길 화장실 주변 청소 등 거리대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농협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마을 내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둘째, 마을 발전이 시작되다.

현장포럼을 통해 '색깔있는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산공원, 도 무형문화재인 마을포제, 연못, 초등학교살리기 최초 성공마을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천혜향, 레드향 등 새로운 만감류 등의 다양한 자원을 찾았고, 현재 이를 활용하여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 주민이 모여 전문가를 초청해 스토리텔링 교육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주도로 마을을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올해 초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에 선정되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남읍리 마을의 모습



역량강화를 위해 150명의 주민이 함께 모여 스토리텔링 교육을 받고 있다.



주민들끼리 소풍도 가고(좌) 애월읍 체육대회에도 참여했다.(우)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경관을 가꾸기 위해 거리대청소를 하고 있다.

가족 올레(all 來) 하추리 / 인제군 하추리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마을대표 : 김재노

2. 현장포럼 후 하추리

첫째,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현장포럼 이후 주민들의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애향심이 높아지자 마을행사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더욱 잘되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을회의에 현장포럼 때처럼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마을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필요시 두 번, 세 번 회의를 위해 모였다. 또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 주민 다 함께 힘을 모아 꽃 길을 만들고, 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화합을 위해 워크숍도 열었다. 귀촌자가 많은 다른 마을의 갈등 상황을 보면서, 갈등을 예방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 갈등화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정선 개미들 마을을 방문해 '주민 갈등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갈등에 관한 강의, 고객만족 CS교육, 개미들마을 성공기 등의 교육도 받고, 해양 레일바이크 체험 및 화합의 시간도 가지며 귀촌자와 원주민의 화합을 만들었다.

둘째, 마을발전을 위해 홍보에 노력한다.

현장포럼에서 찾은 마을의 전설 및 이야기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화 시켜 마을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추리를 홍보하기 위해 '출향인의 날 행사'를 열어 출향인 가족을 마을로 초대하고, 하추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 11월에 자체적으로 마을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를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있다. 하추리의 주요 자원인 잡곡을 활용하여 먹거리를 만들고, 볼거리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마을 홍보를 하고, 농산물을 판매 할 계획이다. 더불어 귀촌민들이 운영하는 펜션도 함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하추리의 모습



2012년 8~9월. 마을자원을 찾고, 마을발전 테마발굴 및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출향인의 날 행사'를 열어 출향인 가족을 마을로 초대하고, 하추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정선 개미들 마을을 방문해 '주민 갈등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갈등에 관한 강의, 고객만족 CS교육, 개미들마을 성공기 등의 교육도 받고, 해양 레일바이크 체험 및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발길 머무르는 고향의 샘터 상두리 마을/ 화성시 상두리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상두리

마을대표 : 김선근

2. 현장포럼 후 상두리

첫째, 마을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장포럼 전 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에서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참여하는 주민은 극소수다 보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사업의 취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회의를 통해 숨겨져 있던 자원도 찾고, 마을의 발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선진지견학을 다녀오고 마을의 비전체계도를 만들면서 동기부여가 되었고, 현장포럼 이후 마을 주민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둘째, 마을사업이 살아났다.

이전까지는 주민의 참여가 부족해 체험프로그램을 간신히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자 살아나기 시작했다.

모든 주민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주면서 더욱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사람이 많아지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 주민 분께서는 집을 개방하여 한옥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다른 주민 분께서는 재능을 기부하여 새로운 만들기 체험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결과 9월에만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현재 마을은 관광객 때문에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3. 상두리의 모습



마을 사업을 위해 주민분께서 집을 개방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그 결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비타민 힐링 콘서트'에 참여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황금빛 마을/논산시 채운2리

1. 마을 일반현황

소재지 : 논산시 강경읍 채운2리

마을대표 : 김시환

2. 현장포럼 후 채운2리

첫째, 마을의 숨은 자원을 찾았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콩밭열무가 마을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포럼을 통해 자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숨은 자원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콩밭열무를 대표자원으로 선정하여 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그리고 현장포럼 후 마을 자체적으로 콩밭열무축제를 개최했다.

둘째, 역량강화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전까지는 사업비만 받으면 마을 발전이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비를 어떻게 받을지만 고민했었다. 하지만 현장포럼 후 교육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지도자들은 농어촌공사에 리더교육도 받는 등 역량강화에 힘썼다.

셋째,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됐다.

현장포럼 후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자신감이 커졌다. '우리 마을도 잘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마을 발전을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마을의 변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독려했다. 그 결과 모든 조직이 맞물려 일사 분란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이런 힘으로 현재 주민들이 함께 논을 임대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가을 추수를 통해 마을 공동의 소득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실행하면서 자신감과 애향심이 증가했다고 한다.

넷째, 스스로 마을발전을 주도하여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현장포럼에서 만든 비전체계도를 보며 세부과제들을 하나하나 주민들과 함께 실행했다. 마을 경관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고, 사비를 들여 마을 꽃길을 만들었다. 친환경 농사를 위해 청년회에서 직접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빈 공간을 부녀회에서 채워나갔다. 또한, 마을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던 공터는 노인회에서 꽃밭으로 가꾸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의 도랑 정비도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고, 돌을 가져다 가지런히 쌓는 등 도랑을 정비하여 산책로를 만들고 있다. 또한 대표자원인 콩밭열무를 활용해 축제를 개최하여, 논산 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다. 현재는 콩밭열무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만들기 위한 계획 하고 있다고 한다.

3. 채운2리의 모습



2012년 8월. 마을자원을 찾고, 마을발전 테마발굴 및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현장포럼 결과를 마을회관에 두어 주민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비전과 전략과제를 공유하고 있다.(좌) 주민들이 함께 친환경농법으로 공동농사를 짓고 있다.(우)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직접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마을 도랑을 정비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꽃길을 가꾸며 환경을 정비했다.



→ 논산 채운리의 사례는 마을리더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 모으고 토론을 통해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의 마을일에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재능을 보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모델이다.

→ 채운리는 논산에서도 익산과 경계를 둔 보잘것 없는 변두리 마을이었으나 1년후 마을이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감짝 놀라게 하였으며, 수시로 주민들과 함께 모여 교육하고 마을일을 역할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정읍시 원오봉마을 / 현장활동가의 관심으로 발전하는 마을

정읍시 원오봉마을은 현장포럼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나, 현장활동가가 현장포럼의 정신과 방법을 마을에 전파하여 지도함으로써 일구어낸 성과이다.

수시로 마을주민들과 모여 마을일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1. 원오봉마을의 변화 프로세스

1)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발전을 시작하다.

2012년 정읍시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으로 27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마을발전을 시작했다. 사업의 지시에 따라 마을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논의 및 결정 하였고, 회의내용을 전부 기록하여 자료를 남기고 시에 보고를 했다.

주로 저녁시간에 모여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데로 따르기로 하고, 따로 임원회의에서 합의를 하였다. 담당 공무원(현장활동가)도 종종 회의에 참석하여 잘 하고 있는지 관심을 보여줬다.

2) 작은 것부터 천천히 마을의 변화를 만들다.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두 반신반의하며 수동적으로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했다. 하지만 적은 사람이 모여도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자 재미도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3) 1단계 사업을 마을 주민 스스로 완성하다.

사업을 위한 자금이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만큼 주민들이 모두 십시일반 돈을 보탤고, 출향민들도 마을 발전을 위해 돈을 보태주어서 무사히 사업을 끝냈다.

- **진입로 이정표** : 마을주민들과 직접 석재상에 가서 돌을 옮겨와 작업했다.
- **코스모스 길** :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 꽃길을 조성했다.
- **벽화그리기** : 밤에 영사기로 벽에 비춰서 밑그림을 그리고 낮에 하나씩 하나씩 모두가 동참해서 색칠을 했다. 주민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은 '주민화합, 사랑, 생동감'을 주제로 미술학원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완성했다.
- **마을박물관 조성** : 폐건물을 함께 청소하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기부하여 마을박물관을 완성했다.
- **원오봉 마을음악회 개최** : 마을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연습하여 발표를 한다.
- **마을카페 개설** : 마을 사람이 두 명 이상 모이는 곳은 항상 이장님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두 카페에 올리고 있다.

4) 주민 모두가 화합하다.

과거에는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화합이 잘 안됐는데, 마을을 가꾸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화합하게 됐다. 일이 끝나면 간단하게라도 먹거리를 같이 나누어 먹으며 친해질 수 있었다. 이제는 모두가 마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다른 마을에 자랑도 하고 다닌다.

5) 더 큰 마을의 발전을 준비하기 시작하다.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시의 지원금과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마을 공동 작업소도 지었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다.

2. 원오봉마을의 모습



마을이 이정표를 세우는데 주민들이 합심하여 함께 세웠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마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마을 진입로의 땅을 직접 개간하여 코스모스 꽃길을 만들었다.



밑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면서 마을 진입로와 버스 정류장에 벽화를 그렸다.



직접 보수하고, 페인트 칠했다. 그리고 직접 기증한 물품들로 박물관을 완성했다.

2.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생활만족형으로 발전하는 갈두천

단순히 갈등 및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공동체를 활성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갈두천으로 변하고 있다.

7개의 마을에서 50~60대 주민 8명이 모여 '갈두천 보컬 그룹'밴드를 결성했다. 연주 지도자도 특별히 영입해오는 등 노력하며, 2013년 11월 마을자체적으로 공축제를 기획하고 이때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해 공연을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간의 화합을 넘어 재미를 통해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갈두천이 되고 있다.

3. 갈두천 권역의 모습



2012년 11월.

운영위원과 7개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고 권역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박3일간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현장포럼의 결과물들을 커뮤니티센터에 붙여놓고 모든 마을의 주민과 공유하며,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왼쪽 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갈두천 보컬 그룹'이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2013. 7. 17일 중양일보에 갈두천 밴드동아리가 소개되기도 했다.

봉화 문수골권역 / 갈등해결 사례

1. 권역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아이템 변경을 위한 현장포럼

1) 현장포럼 전

봉화 문수골권역은 권역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아이템의 변경이 필요했으나, 사업 발굴 및 마을간 협의가 안되어 사업을 변경할 아이템을 선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음. 이로 인한 갈등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9월 현장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음.

2) 현장포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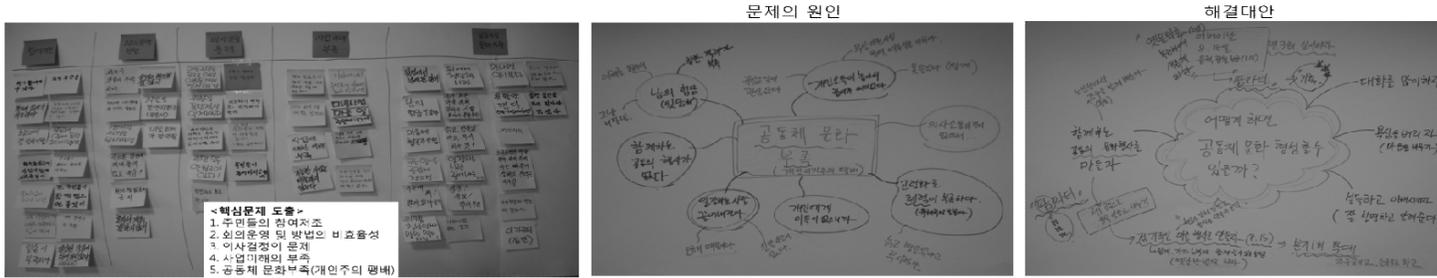
권역사업에 대한 초기의 목적을 되돌아보고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각각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오픈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었다. 이러한 토론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역시나 공동체의 문화가 없다는 소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의 정기적인 소모임 행사를 만들어 자주 모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칭찬의 문화, 소통을 위한 회의방법과 의사결정에 대한 올바른 방법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개선하기로의견을 모았다.

사업아이템 변경을 위한 장에서는 각자 마을의 자원과 특색을 찾아서 하고 싶은 사업아이템을 마을별로 찾아서 희망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후보군들에 대한 의견공유를 하고 마을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마을별 사업유치에 대한 갈등과 이견이 좁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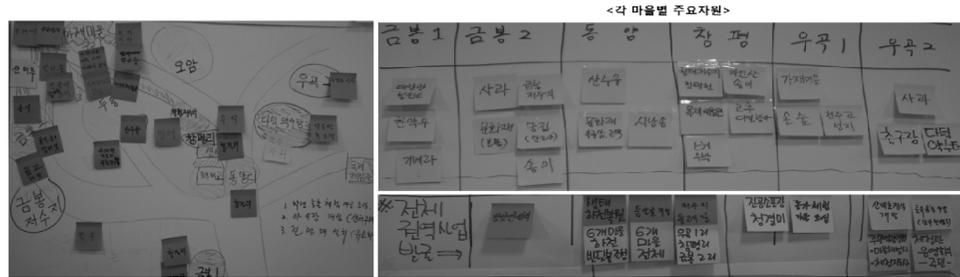
3) 현장포럼 후

현장포럼에서 도출된 사업아이템 확정은 농어촌공사에서 정확한 예산 책정범위를 확인하여 최종 사업변경 아이템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고 합의하는 방안을 찾아 서로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결과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2.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포럼 모습



권역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고집어 내어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인식함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찾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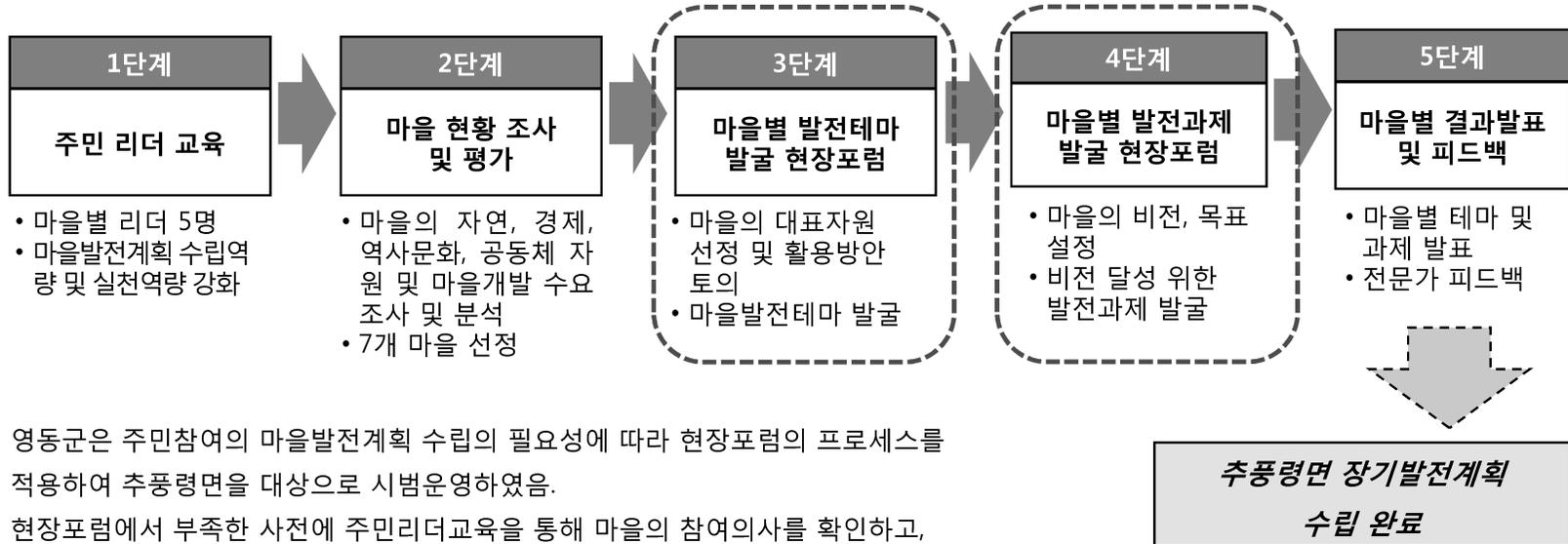
권역내 마을별 주요자원을 발굴하여 희망사업을 선정 후 전체 권역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1차 선정하고, 예산을 확인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합의함



권역 현장포럼의 모습_즐겁게 참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의사소통을 증진함

영동군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 / 자치단체의 정책에 확대 적용한 사례

1. 영동군 마을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한 현장포럼 프로세스



영동군은 주민참여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포럼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추풍령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음.

현장포럼에서 부족한 사전에 주민리더교육을 통해 마을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마을의 현황조사와 평가를 통해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음(지표설계에 의한 평가)

현장포럼의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2회에 진행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1차적인 마을계획서를 완성하였음 또한 이를 마을의 리더들이 직접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마을계획서를 완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영동군에서는 차후에 마을계획을 토대로 면발전위원회와 군관계자 마을대표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사업실행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후속 사후관리까지 약속하였음.

→ 군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정책으로 체계적 마을지원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는것으로 적용한 사례임

2.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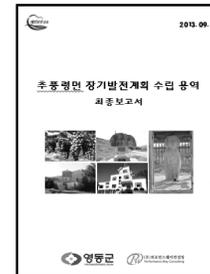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개념(현장포럼 소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례(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마을자원의 이해와 스스로 마을자원 조사서 작성

추풍령면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 -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상세표

2013-07-10																	
구분	정량평가										결과						
	주민교육참여도			리더역량 평가			마을자원 평가 / 전문가 평가										
No	마을명	참석대상	참석인원	참석율	주민교육 참여점수 (20점)	설문참여 인원	일반역량 (15점)	사업추진역량 (15점)	리더역량 점수 (20점)	마을자원 평가	전문가 평가	총점	대상선정				
										사전조사 (15점)	현장답사 (15점)	자원점수 (30점)	사업준비성 (5점)	교육시설 여건(5점)	인프라점수 (10점)		
1	계룡리	5	6	120%	26	5	11.67	12.21	23.88	5	10	1	5	6	65.88	N	
2	관리	5	5	100%	24	5	10.59	10.80	21.39	8	12	20	4	4	73.39	Y	
3	사부리	5	4	80%	22	1	5.00	5.00	10.00	8	8	16	1	3	4	52.00	N
4	장신안리	5	5	100%	24	5	10.59	10.80	21.39	15	15	30	4	3	7	82.39	Y
5	송죽리	5	4	80%	22	2	7.00	8.00	15.00	10	15	25	4	5	9	71.00	Y
6	은평리	5	6	120%	26	4	13.14	10.77	23.91	12	12	24	3	4	7	80.91	Y
7	학동리	5	6	120%	26	4	11.10	11.31	22.41	5	5	10	2	3	5	63.41	N
8	죽림리	5	7	140%	28	4	12.75	11.85	24.60	5	5	10	1	4	5	67.60	N
9	죽리	5	6	120%	26	6	12.45	12.81	25.26	12	15	27	4	5	9	87.26	Y
10	지동리	5	5	100%	24	4	14.07	14.52	28.59	5	10	15	3	5	8	75.59	Y
11	추풍령1리	5	9	180%	30	1	5.00	5.00	10.00	10	12	22	3	3	6	68.00	N
12	추풍령2리	5	5	100%	24	2	7.00	8.00	15.00	10	12	22	3	3	6	67.00	N
13	와신안리	5	0	0%	0	0	0.00	0.00	0.00	0	5	1	3	4	9.00	N	
14	학동	5	6	120%	26	5	11.49	11.25	22.74	5	8	13	1	5	6	67.74	N
15	후리	5	5	100%	24	5	11.55	11.28	22.83	12	12	24	5	3	8	78.83	Y

비고: 상대평가. 최다 참여 마을에서 내림차순으로 20% 단위씩 감점
 설문 참여 안한 마을은 0점 처리, 3명 이하 설문 참여한 마을은 최저 점수의 -10% 부여, 3명 이상 설문 참여한 마을은 설문수 부여
 공동체활동, 경제지원,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기타 특이 사항 포함현황점수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추풍령면에서 추진중인 과수원길, 관광자원개발 등 마을의 경우 팀의료수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연계성 점수 부여, 추풍령 2리, 와신안리 등하여 적용함
 * 전문가평가는 5등급으로 평가하여 적용함(A,B,C,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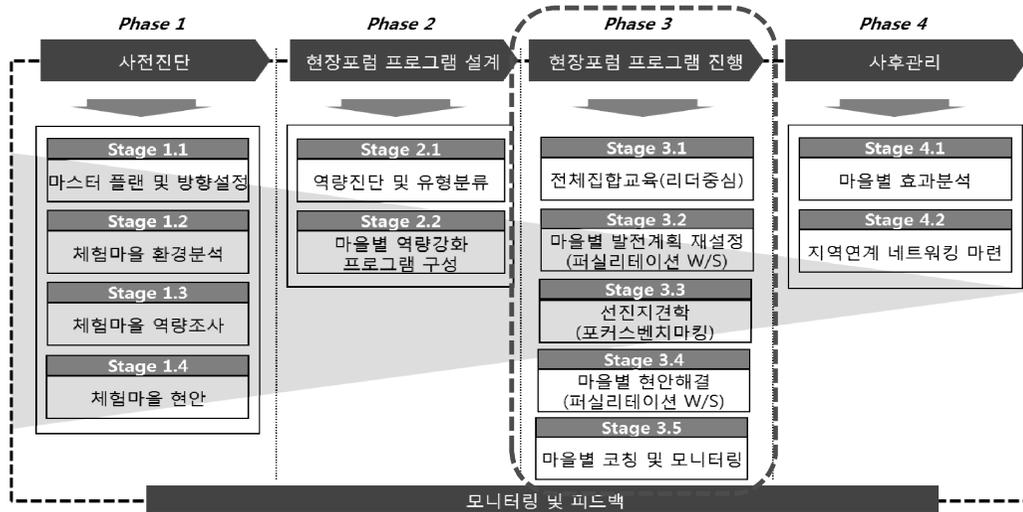
추풍령면 15개마을 대상으로 현황파악 및 평가를 통한 7개 대상마을의 선정을 위한 지표설계와 평가



7개마을 동시에 2회에 걸친 현장포럼 실시 → 마을별 계획 발표와 피드백 → 장기발전계획서 완성

청양군 체험마을 역량강화 / 자치단체의 정책에 확대 적용한 사례

1. 청양군 체험마을 역량강화에 활용한 현장포럼 프로세스



청양군의 전체 체험마을의 진단을 통한 유형별 프로그램 구성
현장포럼(5단계 적용)

→ 리더교육 → 퍼실리테이션 W/S
→ 선진지 견학 → 퍼실리테이션 W/S
→ 마을별 전문가 코칭의
5단계 프로그램으로 진행

청양군내의 전체 16개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객관적 진단을 통한 체험마을의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현장포럼 프로그램을 5단계로 확대 적용하여 활용함. 특히, 청양군의 체험마을 중 활성화가 필요한 부진마을에 대한 집중적 역량강화가 목적이므로 5단계에서 마을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매칭과 집중 코칭 교육을 통한 마인드 개선 뿐 아니라 직접적 문제해결을 시도함

→ 체험마을 중 부진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시도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프로그램인 현장포럼을 도입하여 전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에 대한 관심도 증진시키기 위한 사례

청양군은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그동안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포럼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였음

2. 청양군 체험마을 역량강화 현장포럼 모습



1단계 :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체험마을 경영에 대한 마인드 제고 교육(벤치마킹과 동시에 실시)



2단계 : 마을현황 조사를 통한 마을진단



3단계, 4단계 : 마을별 현장포럼을 통한 비전 및 목표 재설정,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도출 등 2회에 걸친 현장포럼 진행

→ 5단계 : 현장포럼을 통해 도출한 마을별 현안과제에 전문가 매칭을 통해 코칭으로 실질적 문제해결에 접근함과 동시에 전체 마을에 필요한 대상별, 공통항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역량강화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자체적 역량강화 모델을 제시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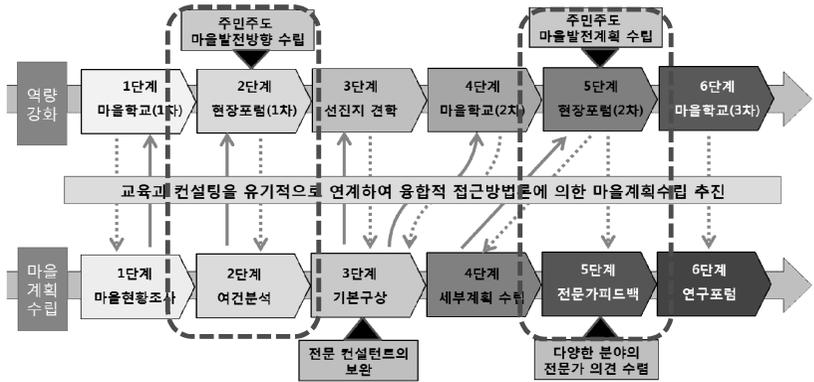
논산시 희망마을 만들기 / 자치단체의 정책에 확대 적용한 사례

1. 논산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계획 수립에 현장포럼 프로세스

<2012년 모델>



<2013년 모델>



1) 단계적 추진절차

- 1단계 : 28개 마을의 리더중심의 기초 마인드 교육**
->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정책의 이해와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과 사례 중심으로 1박2일로 진행됨
- 2단계 : 28개 마을별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발전 테마발굴 워크숍(퍼실리테이션 기법)**
-> 마을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자원을 찾고 발전방향을 잡는 테마를 결정하는 워크숍 실시
- 3단계 : 28개 마을의 테마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교육과 현장답사 실시)**
-> 테마별 우수선진지를 선정하여 벤치마킹에 대한 사전 기본교육과 현장답사시 필요한 질문서와 결과활용을 위한 간단한 실습과 현장답사로 진행
- 4단계 : 28개 마을의 테마에 따른 비전과 발전과제 발굴 워크숍(퍼실리테이션 기법)**
-> 마을테마에 따른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마을비전 체계도를 수립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마을리더 중심)
- 5단계 : 28개 마을의 1차 계획서 완성에 따른 발표 및 피드백**
-> 마을별로 4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완성한 발전계획서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피드백 진행
- 6단계 : 28개마을 중 11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리더중심의 심화교육 진행**
-> 자체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회의기법 교육(퍼실리테이션 기법 교육)
- 7단계 : 11개 우수마을 중심의 자체 네트워크 포럼 구성 회의(퍼실리테이션 기법)**
-> 프로젝트 완성단계로 우수마을이 중심이 되어 자체 네트워크 형성하고 발전모델을 만들어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포럼 조직 구성 회의 진행

충남도의 정책으로 시행하는 논산시의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계획수립 과정은

현장포럼 프로세스를 적용한 주민참여와 함께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체계적 보완을 통한 마을계획서를 결과물로 완성함

특히, 마을리더에 의한 자생적 연구포럼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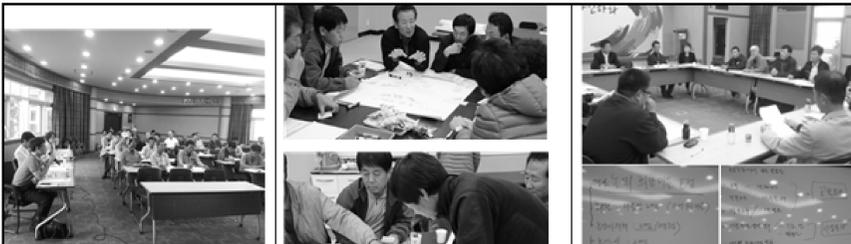
2. 논산시 희망마을 마을발전계획 수립과정과 모습



1.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정책이해와 동기부여를 통한 교육과 사례중심의 교육 실시
2. 마을자원과 주민역량 파악(컨설팅터트)
3. 마을주민과 함께 마을테마 발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실시(현장포럼)



4. 마을테마에 따른 우수마을 선정후 벤치마킹 교육과 현장답사 실시
5. 마을추진위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마을발전 과제 발굴 및 비전체계수립 워크숍
6. 각 마을별 워크숍을 토대로 구성된 발전계획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완성함



7. 1차 완성된 마을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피드백 (전문가 자문의견)
8. 총 25개마을중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리더들을 대상으로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
9. 우수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체성장 동력 추진체 결성을 위한 포럼 구성회의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3. 논산시 희망마을의 현장포럼을 적용한 사례의 시사점

1) 주민의 참여에 의한 마을 발전 계획 수립과 과제발굴

체계적인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마을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마을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보태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존에 전문가들에 의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나 공감대가 없었던 부분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부에서 꼭 무엇을 해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 뭔가 찾아내어 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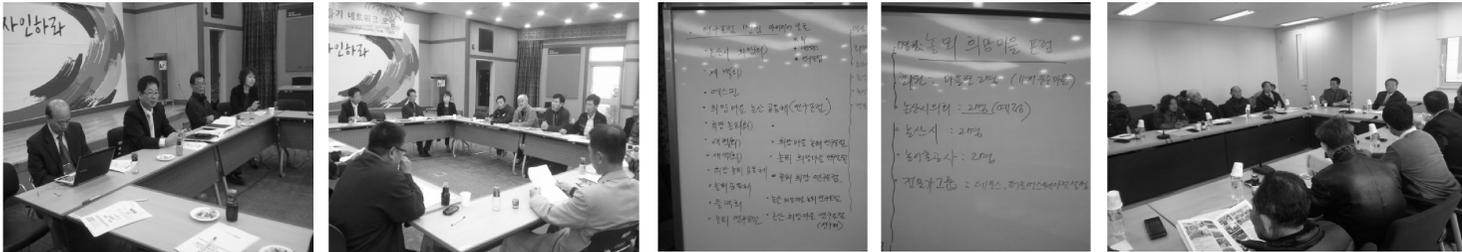
2) 선진형 회의문화 정착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다양한 기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걸 봄으로써 향후, 스스로 마을회의를 진행할 때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겠다는 교육효과가 생기고, 마을의 리더들의 경우 좀 더 회의기법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적용하고 스스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법도 전수함

3)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생적 연구모임(포럼)을 구성하여 추진함

논산시의 경우 28개마을이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 마을마다 차이가 보였으나, 우수한 마을을 중심으로 자생적 포럼형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움. 11개의 우수마을 대표들이 참석하여 연구모임 구성하여 자체적인 모임으로 지속시킬 것을 확인함

(조직구성, 포럼에서 할 일, 조직운영방안 등을 만들었으며, 2012년 12월 그 첫 번째 모임을 진행하고 현재 5회 모임을 진행함)



→ 논산시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례는 마을주민과 시(민.관)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첫해의 결과가 전파되어 2013년도에는 더욱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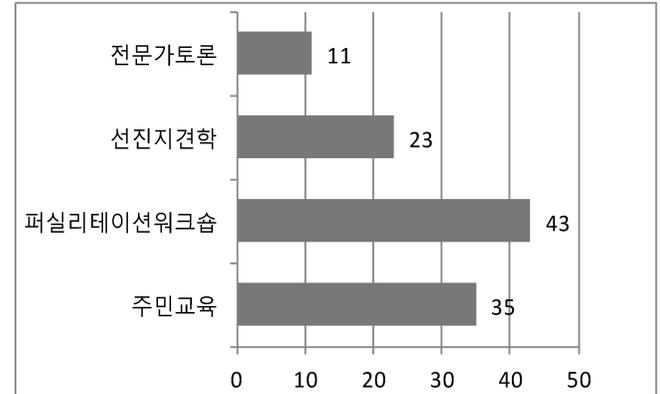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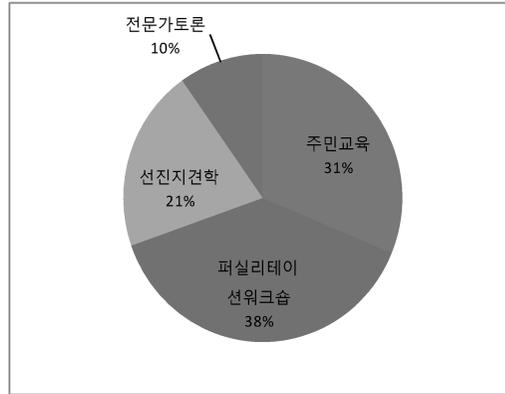
V.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1. 설문조사 결과분석
2. 향후 과제

1. 설문조사 결과분석_현장포럼 프로그램 중 좋았던 것

▪ 현장포럼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주민교육	31	35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38	43
선진지견학	21	23
전문가토론	10	11
합계	100	112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주민참여 포럼)과 주민교육으로 나타남

1. 설문조사 결과분석_현장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

▪ 현장포럼에서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내용
현장포럼 후 지속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현장포럼 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 실행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 • 현장포럼 사후관리 코칭, 사업 후 운영관리 등에 고민
갈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갈등 해소, 갈등관리 및 과제실행, 갈등주체간 토의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강화 • 단순 주민교육보다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교육회수를 늘렸으면 함 •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주민건강 강좌(주 대상이 어르신인 만큼 건강관련 프로그램 추가 되었으면 함) •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직책을 주면 어떨까요? • 팀빌딩 및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부분 고령인 주민을 끌어들이 수 있는 건강운동 프로그램 등을 중간에 넣으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주민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장포럼을 하면 재미있고 즐겁다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사업 계획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설계 • 농민이나 마을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실행계획들의 사례들이 필요하다. • 마을개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구체적 실행계획 1안 작성 및 운영방법으로 구체적 교육 • 계획서 작성 실습 • 자원발굴에 대한지원 • 마을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자문과 특성화 사업의 연결고리, 사업화를 위한 융복합 지원체계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컨설팅, 주민과의 소통 • 정부의 농촌정책방향, 지자체의 마을사업 실적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 농촌 마을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현장포럼의 실행 메뉴얼을 확대해 주면 좋을 것임 • 현장활동가에 대한 주 수요자인 지자체, 공사, 주민 등의 평가과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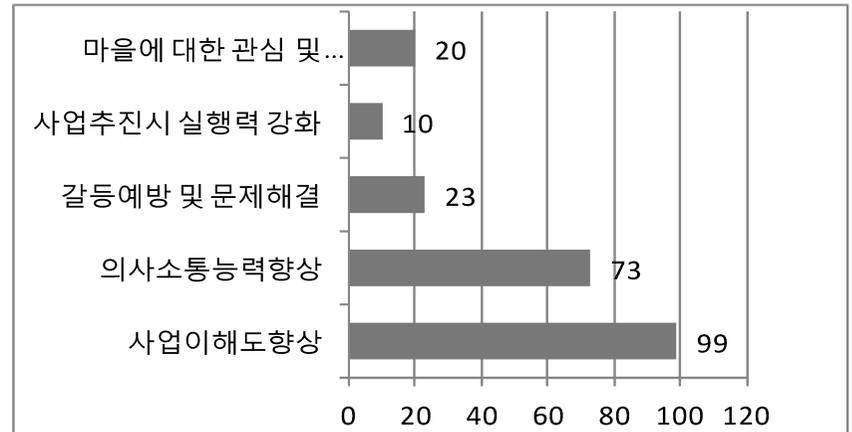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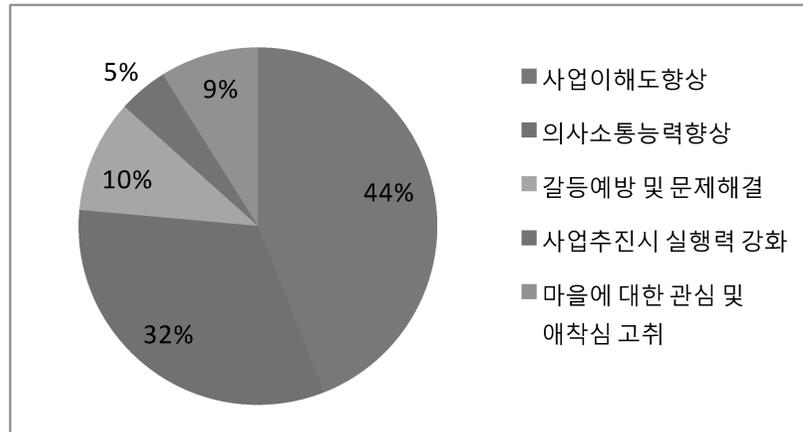
1. 설문조사 결과분석_현장포럼이 도움이 되는 분야

▪ 현장포럼이 어떤 항목의 역량강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사업이해도 향상	99	44
의사소통능력 향상	73	32
갈등예방 및 문제해결	23	10
사업추진시 실행력 강화	10	5
마을에 대한 관심 및 애착심 고취	20	9
합계	225	100



현장포럼은 **사업이해도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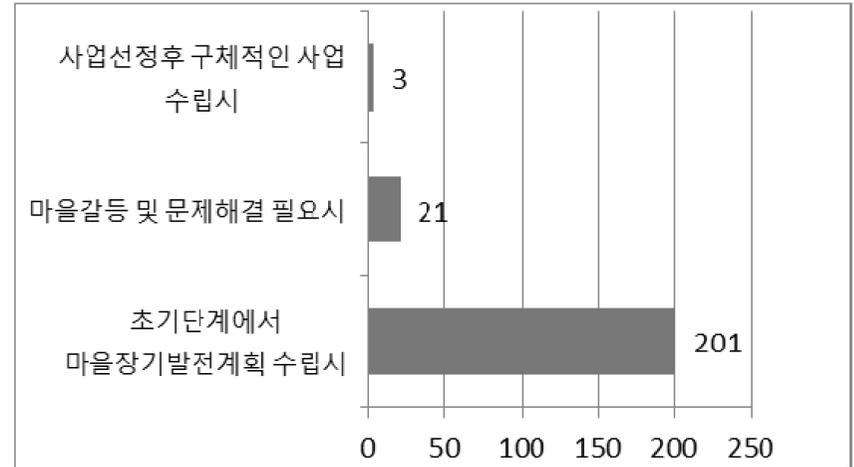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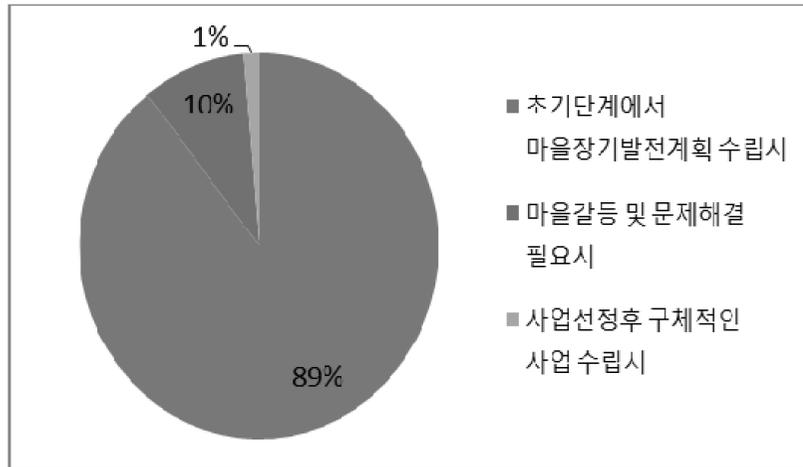
1. 설문조사 결과분석_마을사업에서의 단계적용의 적합성

▪ 현장포럼은 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빈도	백분율(%)
초기단계에서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시	201	89
마을갈등 및 문제해결 필요시	21	10
사업선정후 구체적인 사업 수립시	3	11
합계	225	100



현장포럼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마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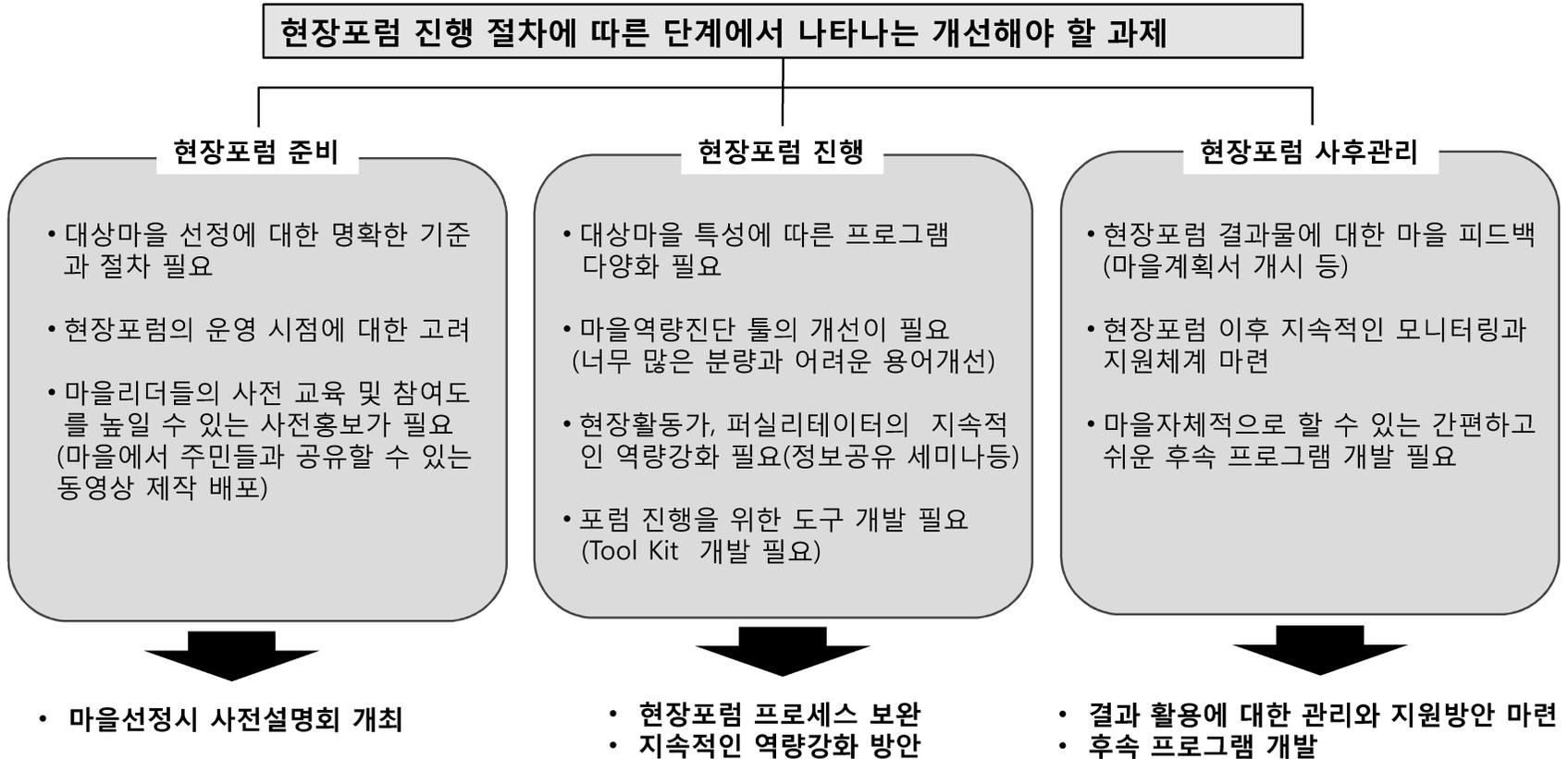
1. 설문조사 결과분석_현장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

- 현장포럼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점(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 내용
현장활동가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의 지역개발 전문성 강화 • 검증되지 않은 활동가 참여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남 • 포럼 개최 시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따라 결과물이 상이함 • 퍼실리테이터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메인퍼실리테이터를 제외한 보조인원들의 능력부족 • 현장활동가 관리와 역할에 따른 지원책 강구 • 활성화센터, 컨설팅, 퍼실리테이터의 소통활성화로 차수간 연속성 강화 • 현장활동가 및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함 • 퍼실리테이터는 분명 컨설턴트와 다르나 퍼실리테이터가 농림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함
현장포럼 진행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피해 겨울철 시행 • 총 4회분량을 2회차를 늘려 총5회분량이 적정함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쉬운 매뉴얼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프로세스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를 축소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 기법(또는 활동)인지 미리 설명해주는 등 진행 또한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었으면 합니다. • 농촌현장포럼을 하기 위한 주민과 지도자의 사전 교육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민노령화로 인한 참가자의 적극성 결여 •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프로그램 과정을 수정해야 한다.
현장포럼 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빔프로젝터 임대 등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임 • 교육여건 개선, 현장포럼 장소 여건개선(에어컨 설치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포럼 후 유지관리, 지속적 연결을 모색하는 구조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연계방안이 필요합니다 • 기존 농촌전문가들의 퍼실리테이터 활용방안 적극 검토 요망 •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주는데 있어서 농업전문가를 많이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일정 및 비용 여유롭게 하여 더 많은 횟수와 컨설팅 필요함, 주민의 피드백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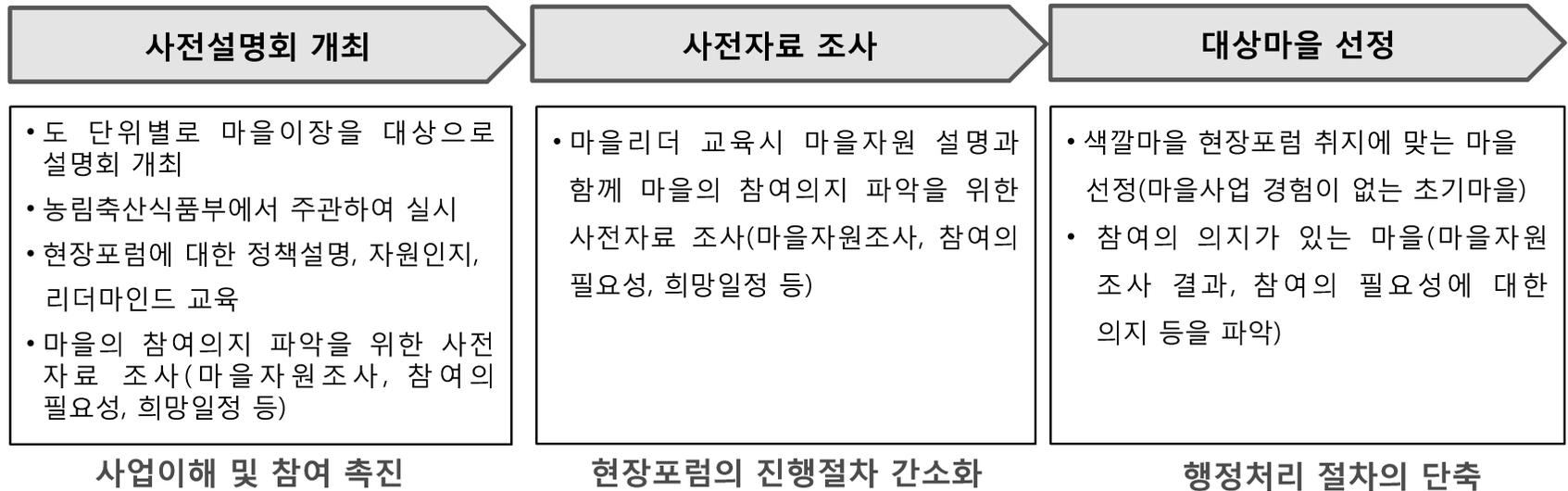
2. 향후 과제

- 정량적, 정성적 효과분석의 종합결과를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 대두되는 향후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임



2. 향후 과제_현장포럼 준비 단계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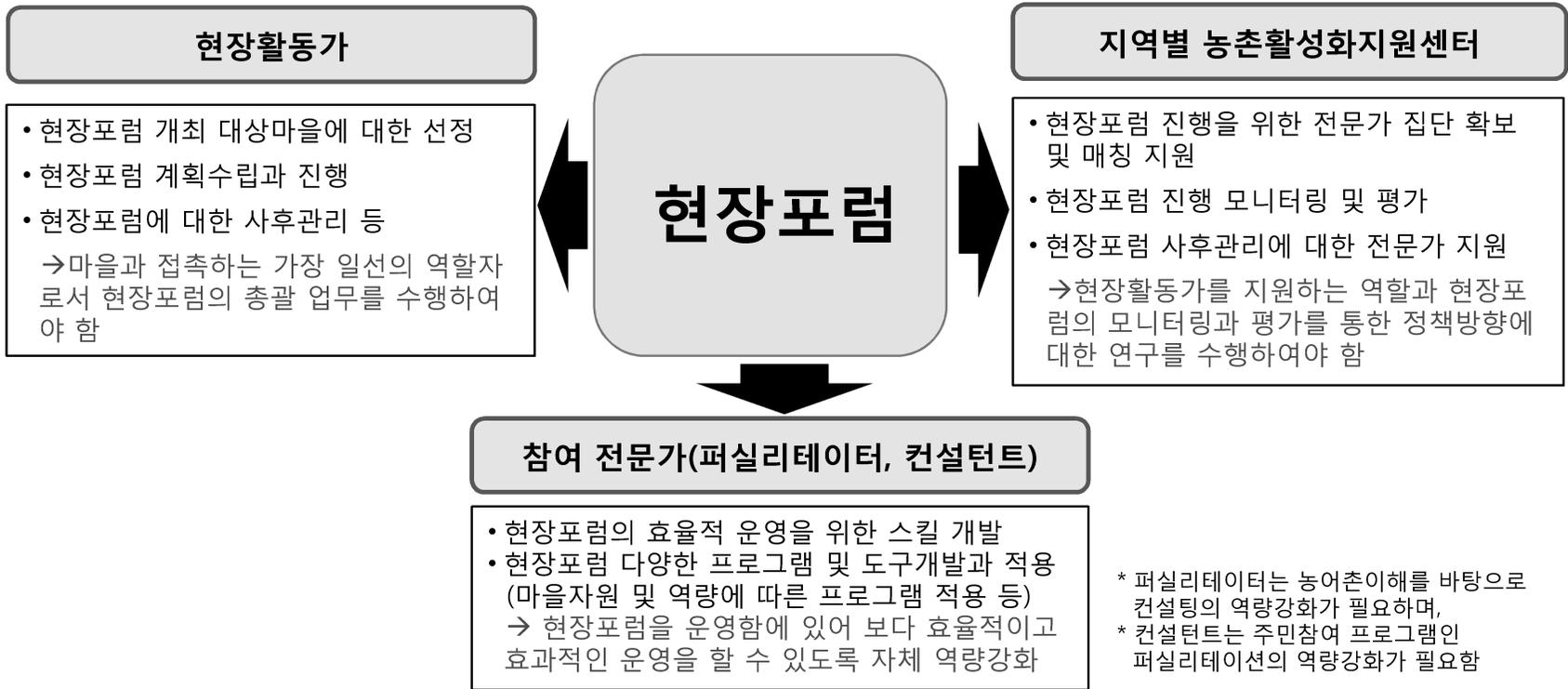
- 현장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마을리더의 의식과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사전 교육과 참여도를 파악해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장포럼을 대상마을을 실시하기전에 전체 마을의 리더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에서 주관하여 전체 도 단위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자원에 대한 이해등을 교육하여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음.** 또한 현장포럼 대상마을의 정확한 선정 및 확보가 용이하며,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므로써 현장포럼에 대한 성공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됨

2. 향후 과제_현장포럼 진행 단계의 개선방향

- 현장포럼의 진행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측면과 프로그램 구성측면에서 개선과제



현장포럼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포럼 진행시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운영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과제_현장포럼 사후관리 단계의 개선방향

- 현장포럼의 진행 후 후속 사후관리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현장포럼 결과의 피드백

- 현장포럼을 통해 나온 마을계획의 결과물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마을발전계획서)
- 마을 주민들이 상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에 대한 마을별 책자, 판넬을 제작하여 마을에 게시 등

현장포럼의 모니터링과 평가

- 현장포럼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우수마을의 사례를 전파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대한 후속지원 필요
(다음 년도에 2단계 추가진행, 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마을 자체적 역량강화 방안 마련

- 현장포럼 이후 마을에서 자체적 역량강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포럼의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간편 매뉴얼 개발을 통해 2시간정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시·군 단위 지자체별 현장포럼 마을에 대한 네트워크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논산 희망포럼의 사례)



현장포럼이 마을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추진중인 주민 주도에 의한 상향식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사업의 선정시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VI. 부록

1. 주민대상 항목별 결과 분석
2. 전문가대상 항목별 결과 분석
3. 현장포럼 시범마을 전화모니터링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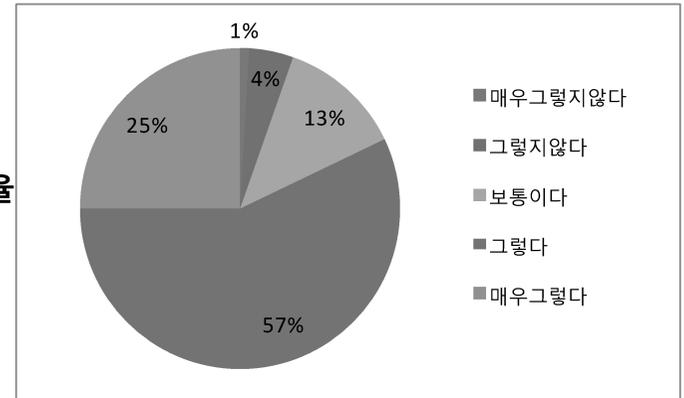
1. 주민대상 설문항목별 결과분석

1차 효과 항목별 분석_주민참여도

▪ 현장포럼이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를 위한 의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5	4
보통이다	14	13
그렇다	64	57
매우그렇다	28	25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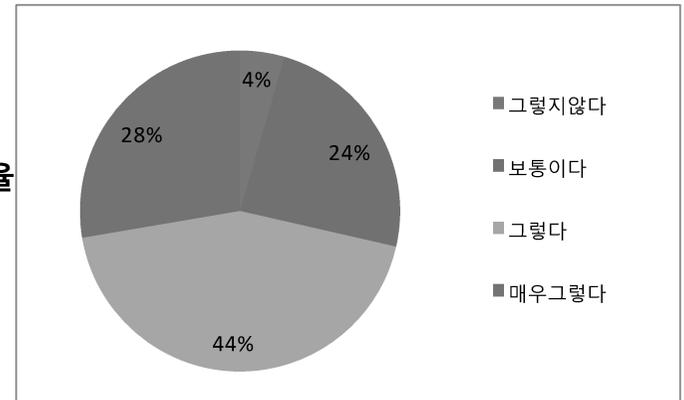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82%



▪ 현장포럼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5	4
보통이다	27	24
그렇다	49	44
매우그렇다	31	28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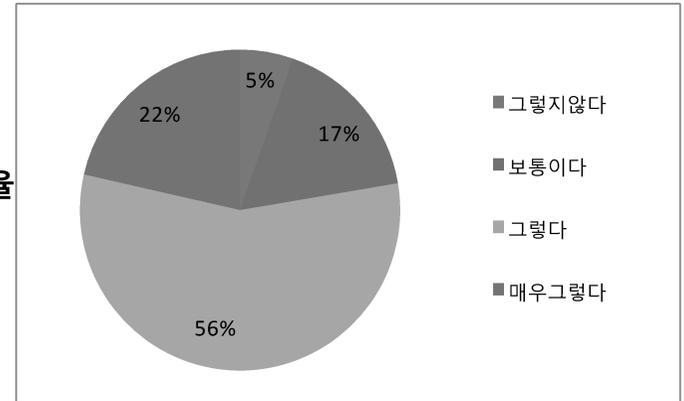


1차 효과 항목별 분석_사업이해도

-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19	17
그렇다	63	56
매우그렇다	24	22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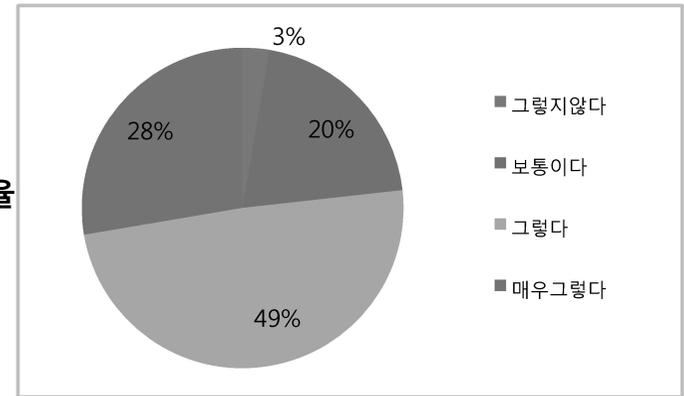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8%



-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3	3
보통이다	23	20
그렇다	55	49
매우그렇다	31	28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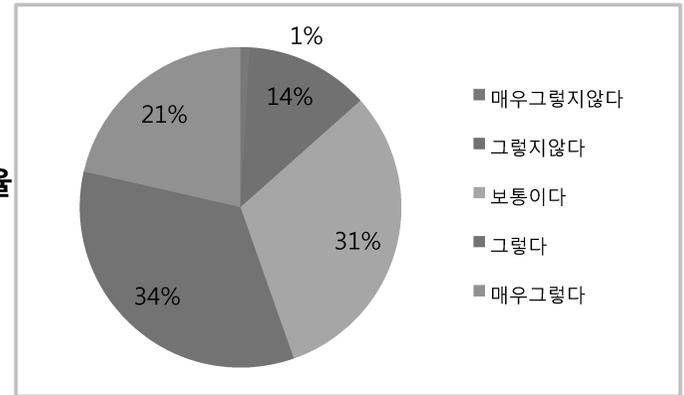


1차 효과 항목별 분석_마을계획의 만족도

▪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14	14
보통이다	35	31
그렇다	38	34
매우그렇다	24	21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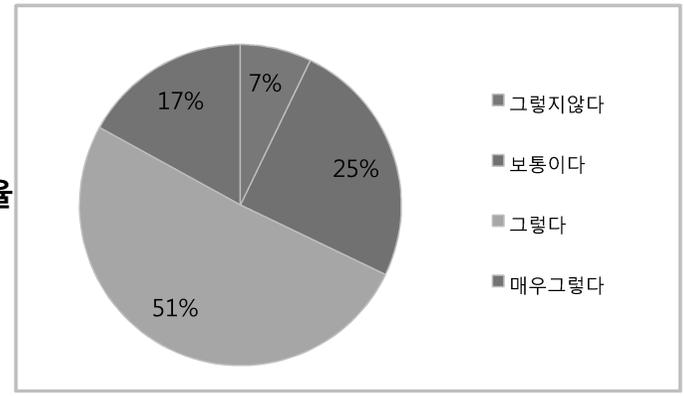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55%



▪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만의 색깔과 발전방향을 찾았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8	7
보통이다	28	25
그렇다	57	51
매우그렇다	19	17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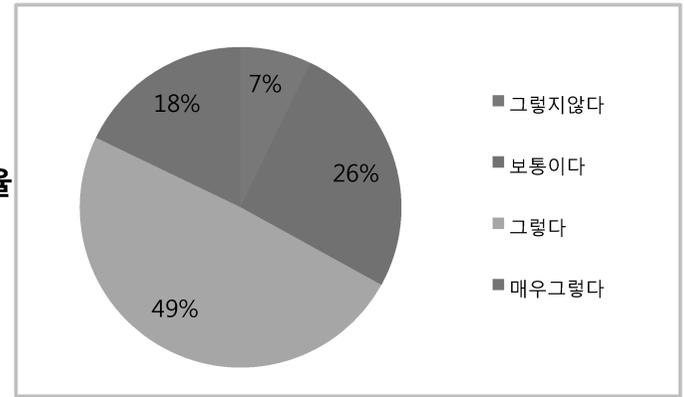


1차 효과 항목별 분석_마을계획의 만족도

-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해 만족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8	7
보통이다	29	26
그렇다	55	49
매우그렇다	20	18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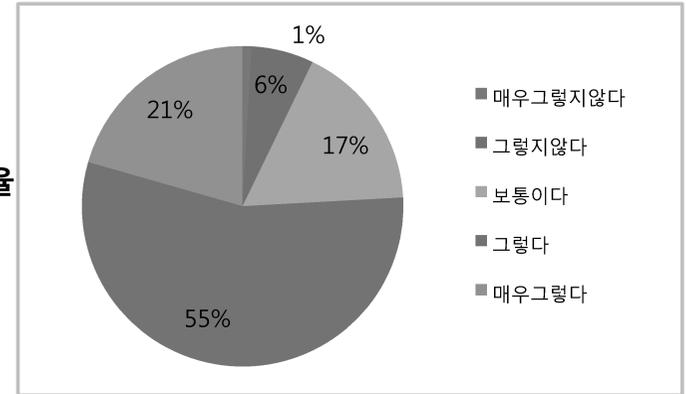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의사소통능력

-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목적을 공지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7	6
보통이다	19	17
그렇다	62	55
매우그렇다	23	21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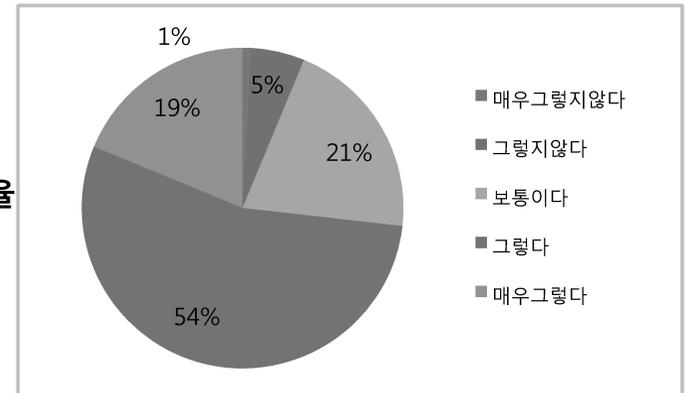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6%



-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할 때는 규칙을 정하여 진행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23	21
그렇다	61	54
매우그렇다	21	19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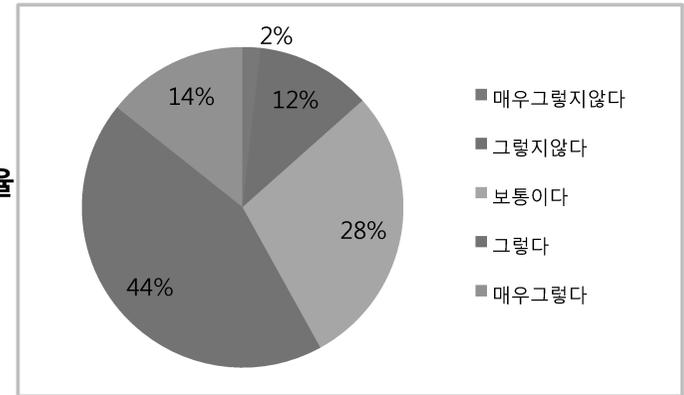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의사소통능력

- 마을회의를 할때는 포스트잇 활용 등 현장포럼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2	2
그렇지않다	13	12
보통이다	32	28
그렇다	49	44
매우그렇다	16	14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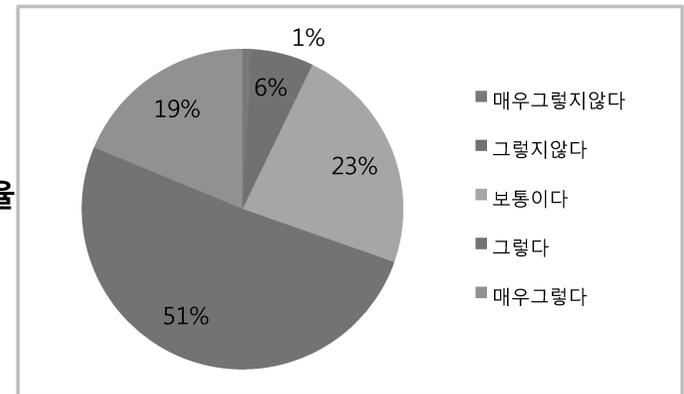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58%



- 현장포럼 이후 회의 시 주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7	6
보통이다	26	23
그렇다	57	51
매우그렇다	21	19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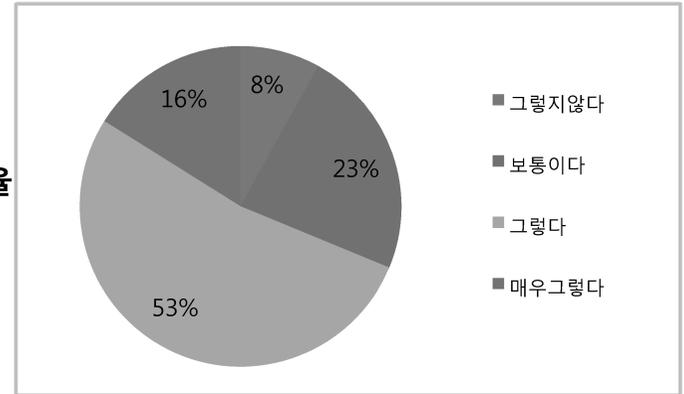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의사소통능력

- 현장포럼 이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되 서로를 존중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9	8
보통이다	26	23
그렇다	59	53
매우그렇다	18	16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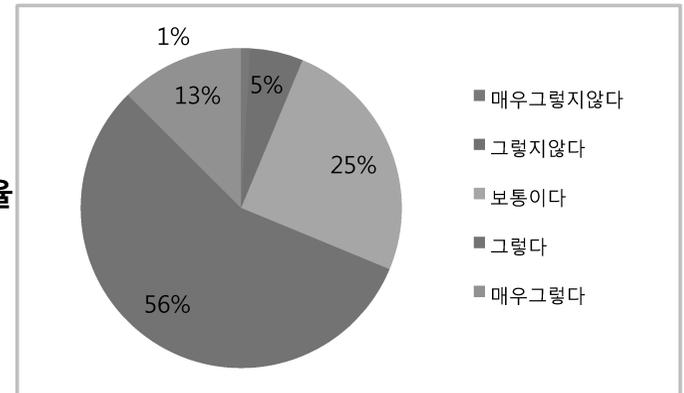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69%



- 주민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 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려고 애쓴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28	25
그렇다	63	56
매우그렇다	14	13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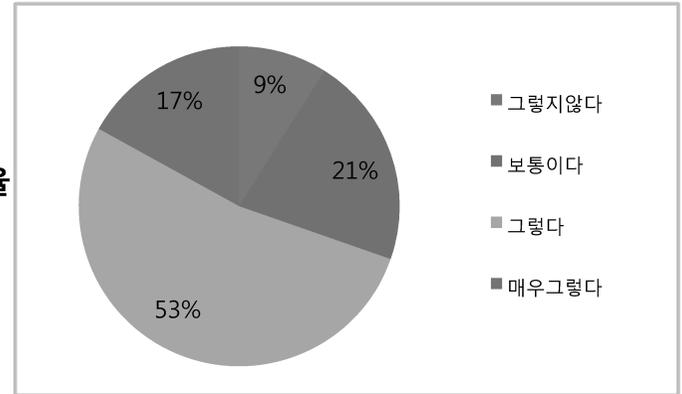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갈등예방/대응력

-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통해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10	9
보통이다	24	21
그렇다	59	53
매우그렇다	19	17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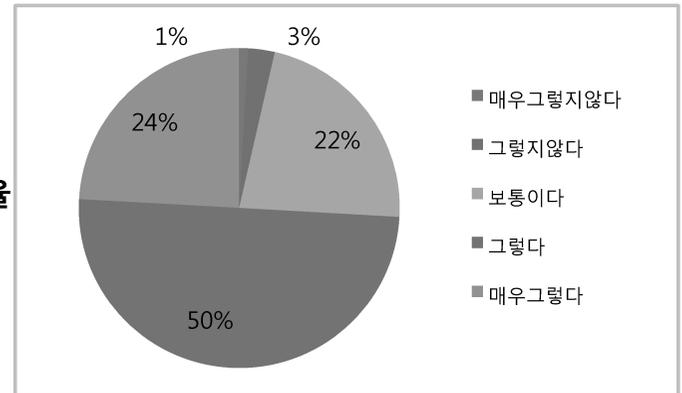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0%



- 현장포럼 이후 회의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3	3
보통이다	25	22
그렇다	56	50
매우그렇다	27	24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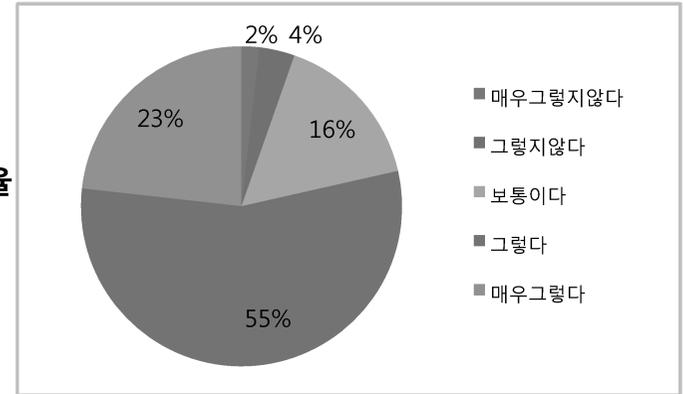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갈등예방/대응력

- 현장포럼 이후 회의안건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2	2
그렇지않다	4	4
보통이다	18	16
그렇다	62	55
매우그렇다	26	23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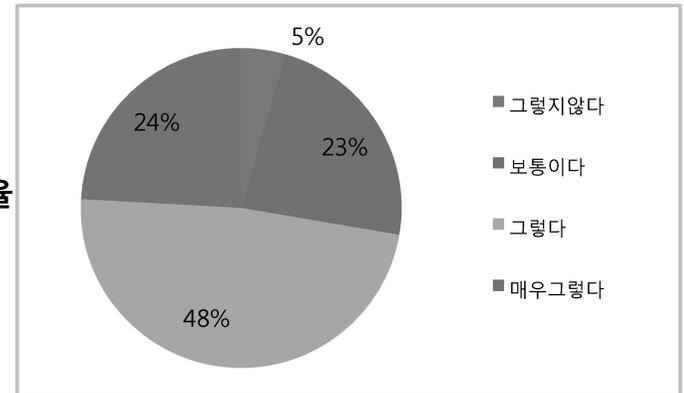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8%



-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모든 주민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5	5
보통이다	26	23
그렇다	54	48
매우그렇다	27	24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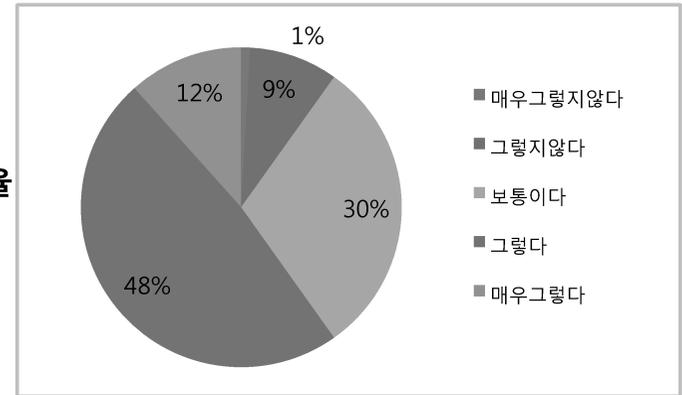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갈등예방/대응력

- 주민들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10	9
보통이다	34	30
그렇다	54	48
매우그렇다	13	12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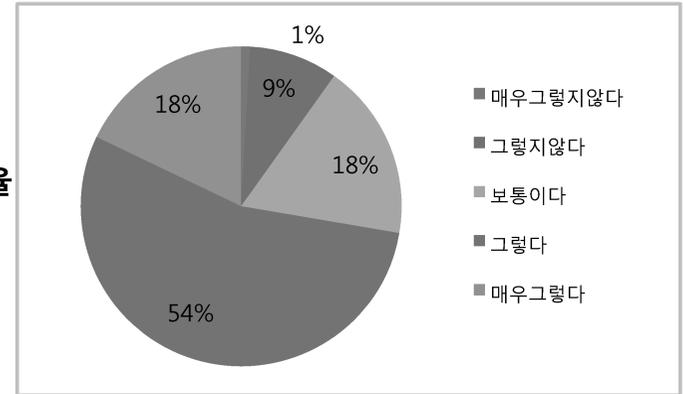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사업추진력

- 현장포럼으로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다 함께 실천할 의지가 생겼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10	9
보통이다	20	18
그렇다	61	54
매우그렇다	20	18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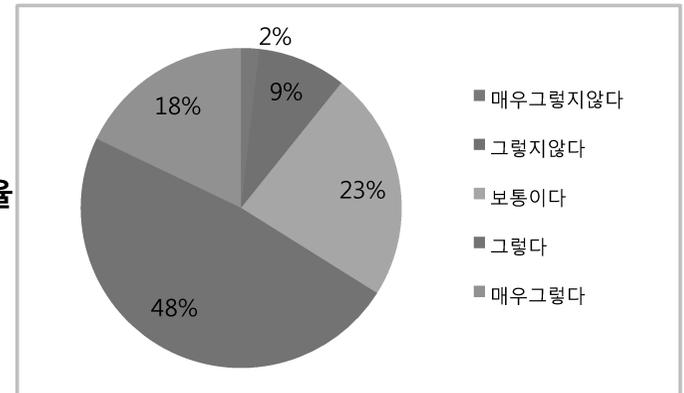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2%



- 현장포럼 이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잘 실천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2	2
그렇지않다	10	9
보통이다	26	23
그렇다	54	48
매우그렇다	20	18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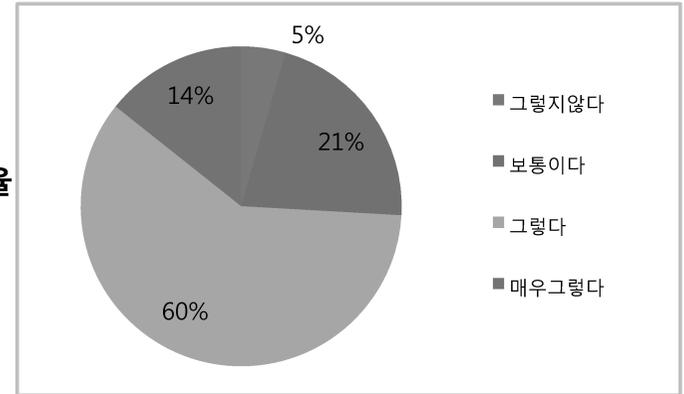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사업추진력

-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 있을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5	5
보통이다	24	21
그렇다	67	60
매우그렇다	16	14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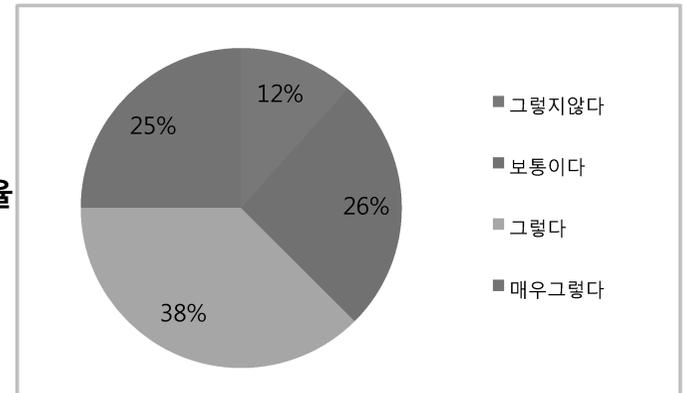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4%



- 마을리더는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13	12
보통이다	29	26
그렇다	42	38
매우그렇다	28	25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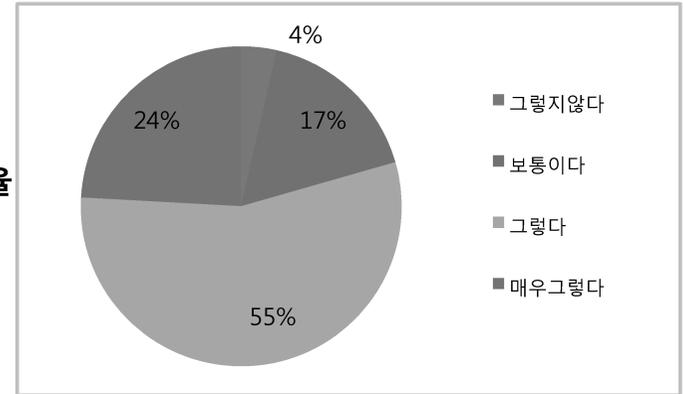


2차 효과 항목별 분석_사업추진력

- 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4	4
보통이다	19	17
그렇다	62	55
매우그렇다	27	24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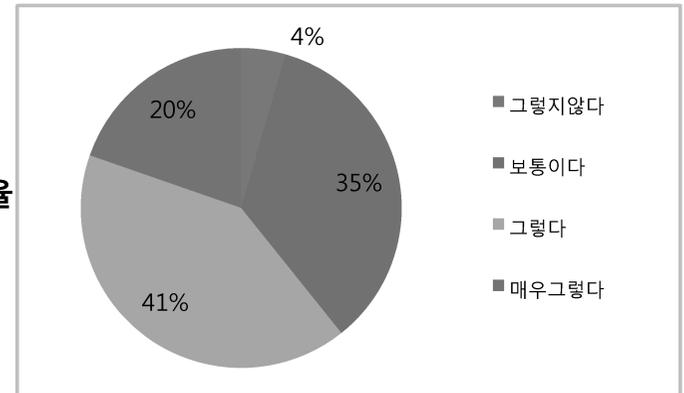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9%



- 주민들은 마을사업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5	4
보통이다	39	35
그렇다	46	41
매우그렇다	22	20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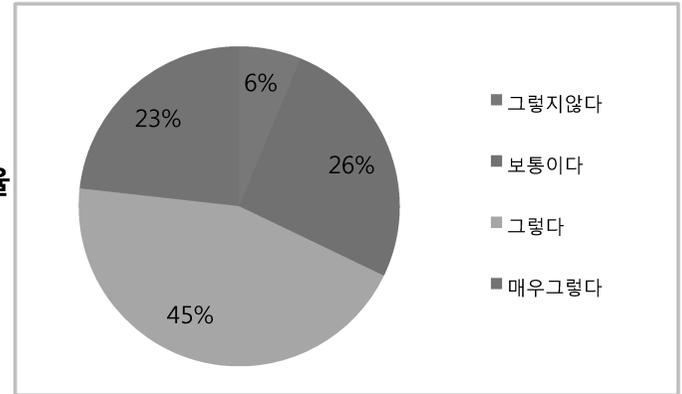


3차 효과 항목별 분석_지역에 대한 귀속감

- 현장포럼 이후 주민들이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7	6
보통이다	29	26
그렇다	50	45
매우그렇다	26	23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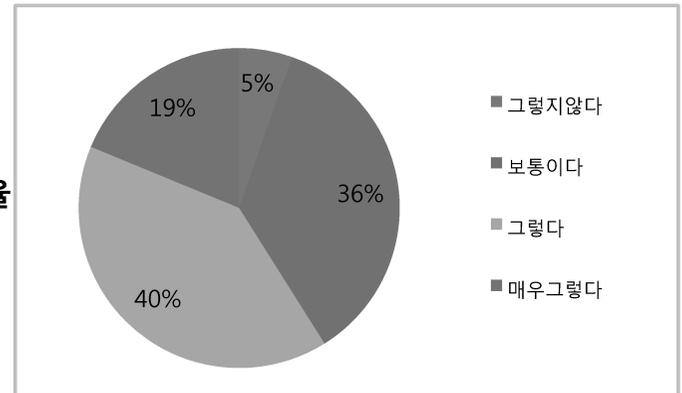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67.8%



- 현장포럼 이후 마을일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40	36
그렇다	45	40
매우그렇다	21	19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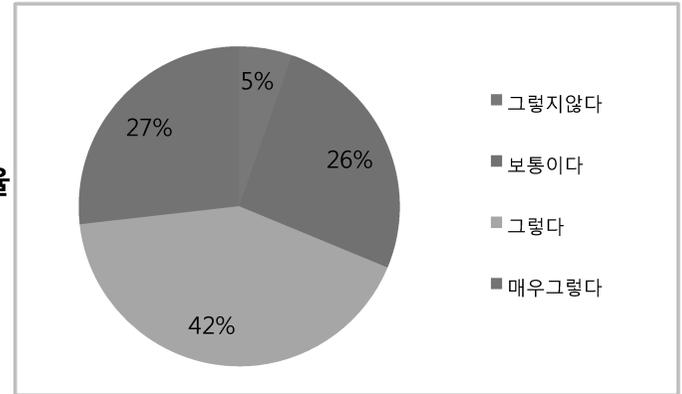


3차 효과 항목별 분석_지역에 대한 귀속감

▪ 현장포럼 이후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생겼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29	26
그렇다	47	42
매우그렇다	30	27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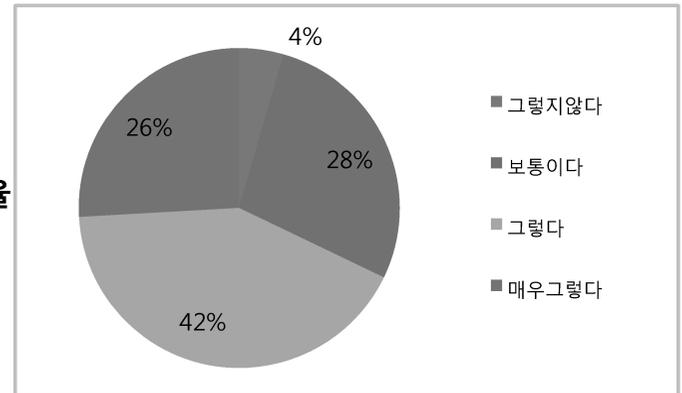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69%



▪ 마을 발전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5	4
보통이다	31	28
그렇다	47	42
매우그렇다	29	26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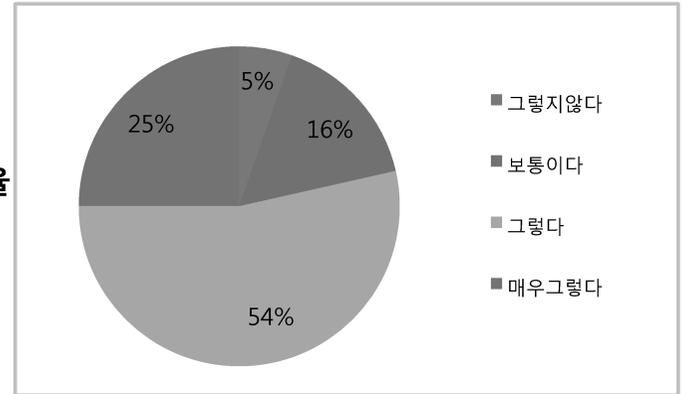


3차 효과 항목별 분석_타인과 유대감

▪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18	16
그렇다	60	54
매우그렇다	28	25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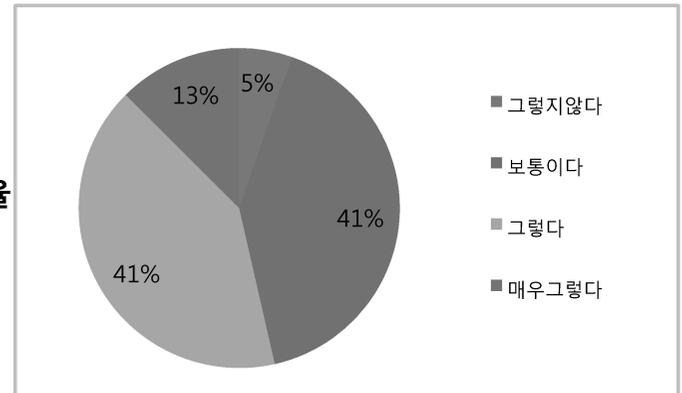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79%



▪ 현장포럼 이후 이웃 간 교류가 증대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46	41
그렇다	46	41
매우그렇다	14	13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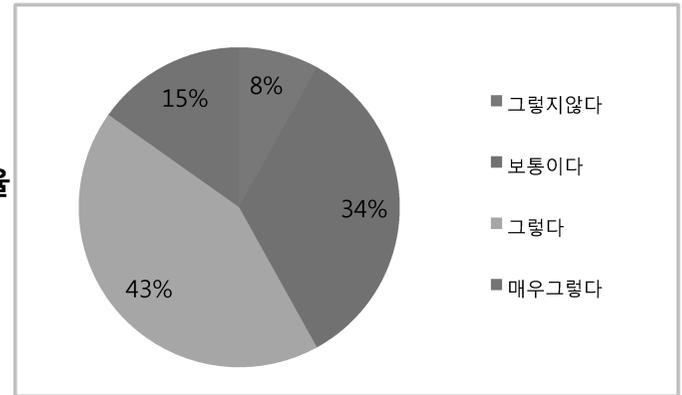


3차 효과 항목별 분석_타인과 유대감

▪ 주민들은 마을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9	8
보통이다	38	34
그렇다	48	43
매우그렇다	17	15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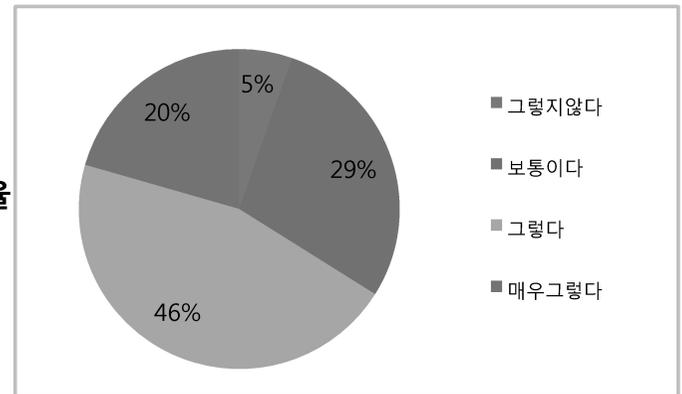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58%



▪ 마을의 사업 또는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이 이전보다 잘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6	5
보통이다	32	29
그렇다	51	46
매우그렇다	23	20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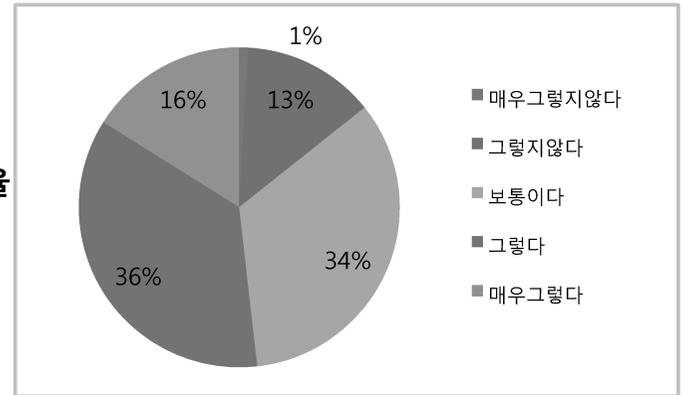


3차 효과 항목별 분석_공동체 만족감

▪ 주민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 보다는 넓게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15	13
보통이다	38	34
그렇다	40	36
매우그렇다	18	16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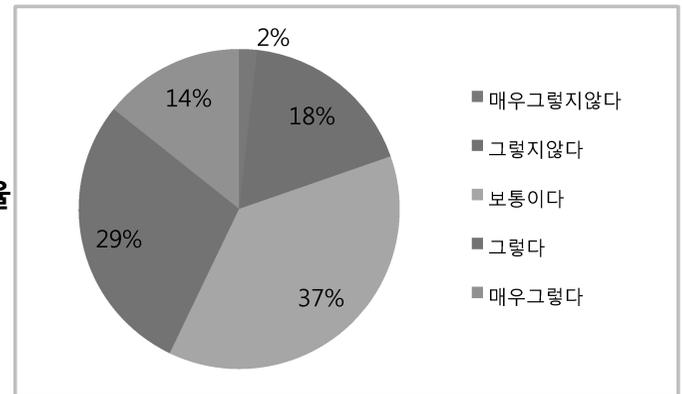
▶ **긍정 응답율**
52%



▪ 주민들이 재산이나 재능을 마을 사업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그렇지않다	2	2
그렇지않다	20	18
보통이다	42	37
그렇다	32	29
매우그렇다	16	14
합계	112	100

▶ **긍정 응답율**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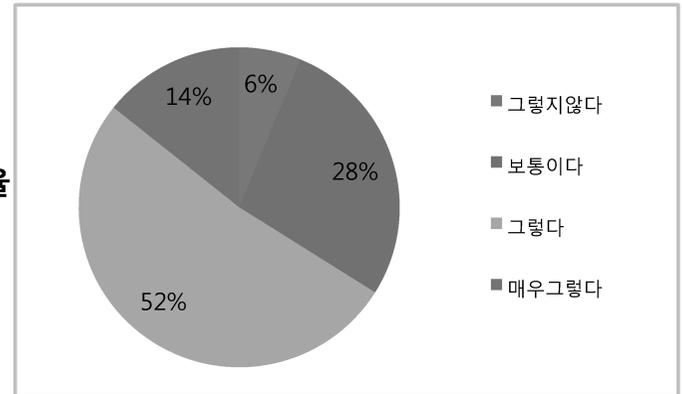


3차 효과 항목별 분석_공동체 만족감

- 현장포럼 이후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수시로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7	6
보통이다	31	28
그렇다	58	52
매우그렇다	16	14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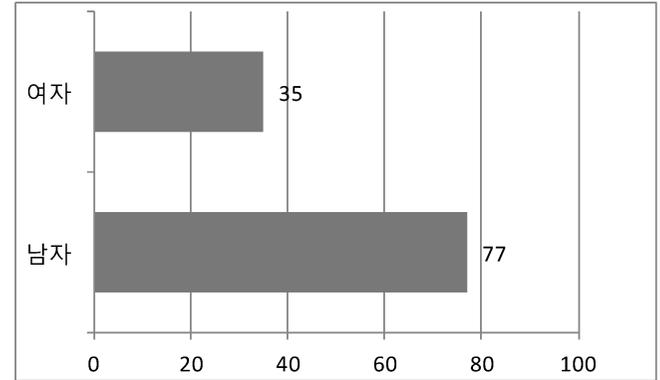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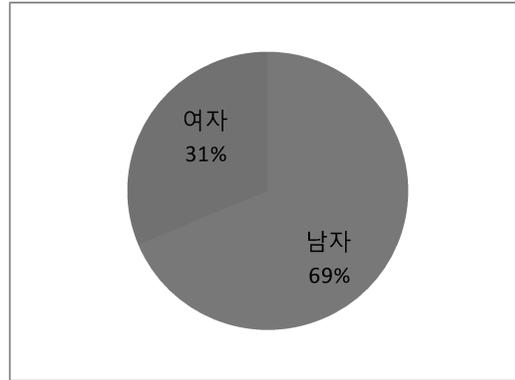

긍정 응답율
66%



응답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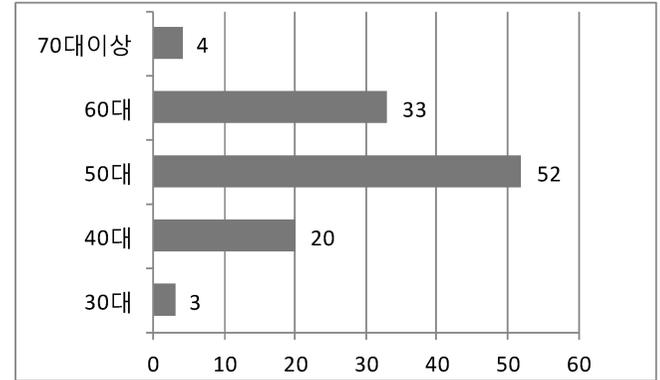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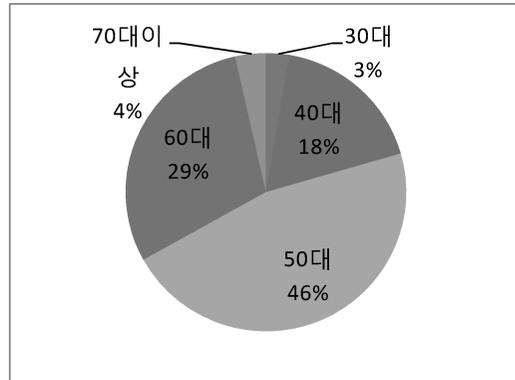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남자	69	77
여자	31	35
합계	100	112



▪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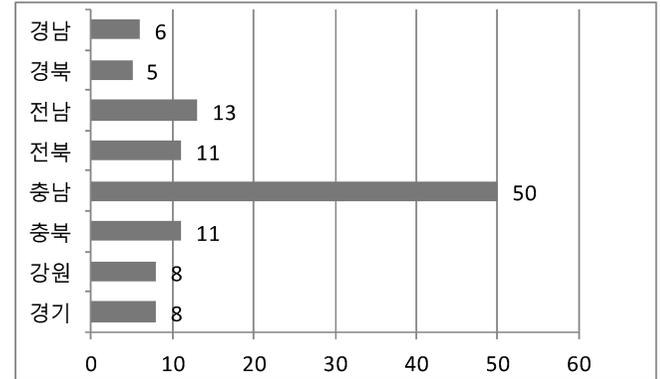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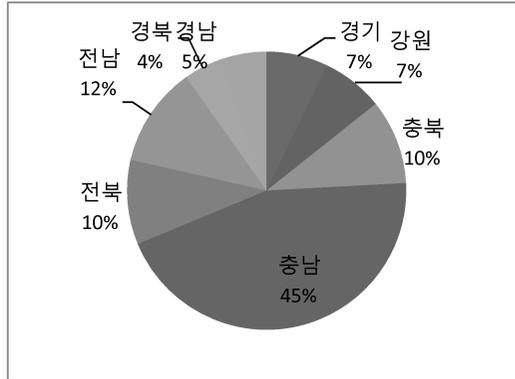
구분	백분율(%)	빈도
30대	3	3
40대	18	20
50대	46	52
60대	29	33
70대	4	4
합계	100	112



응답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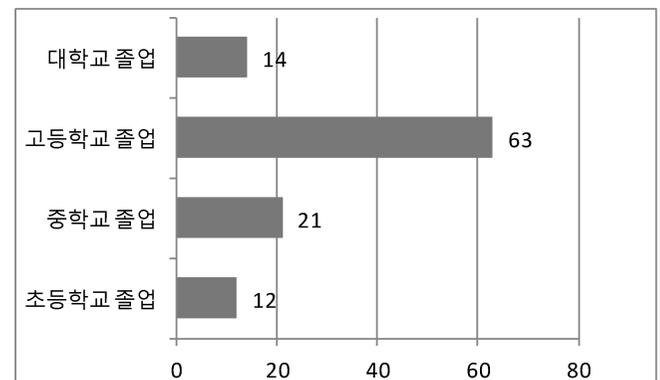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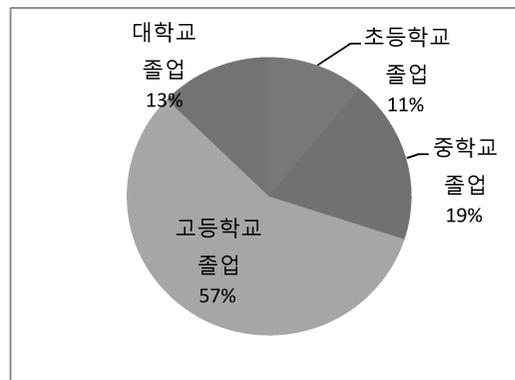
▪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경기	7	8
강원	7	8
충북	10	11
충남	45	50
전북	10	11
전남	12	13
경북	4	5
경남	5	6
합계	100	112



▪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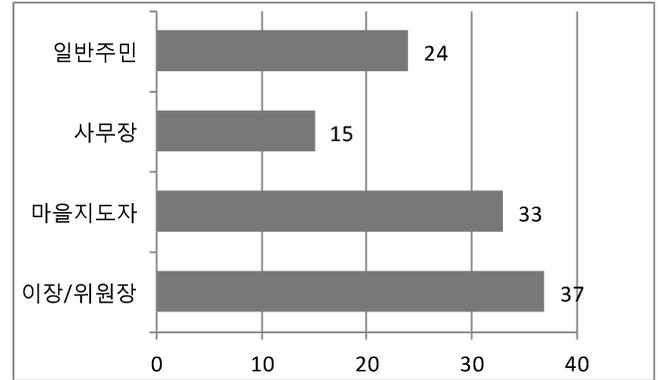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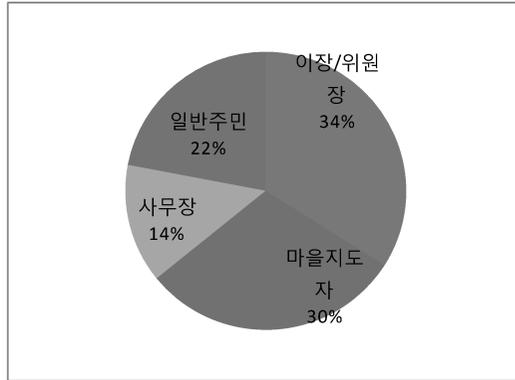
구분	백분율(%)	빈도
초등학교 졸업	11	12
중학교 졸업	19	21
고등학교 졸업	57	63
대학교 졸업	13	14
석·박사	0	2
합계	100	112



응답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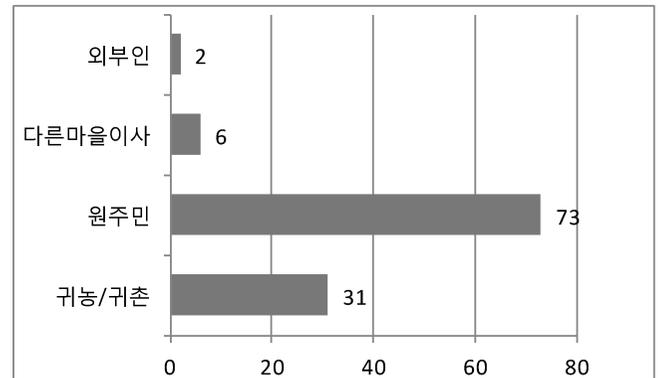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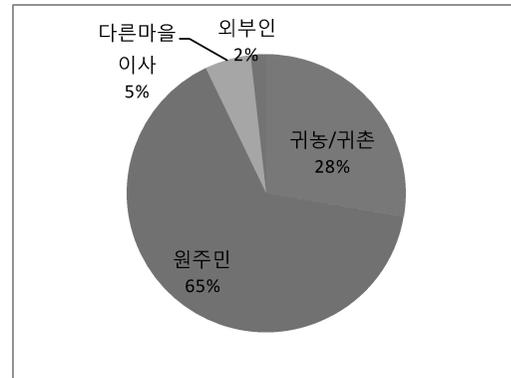
▪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이장/위원장	34	37
마을지도자	30	33
사무장	14	15
일반주민	22	24
기타	0	3
합계	100	112



▪ 마을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귀농/귀촌	28	31
원주민	65	73
다른마을이사	5	6
외부인	2	2
합계	100	112



2. 전문가대상 설문항목별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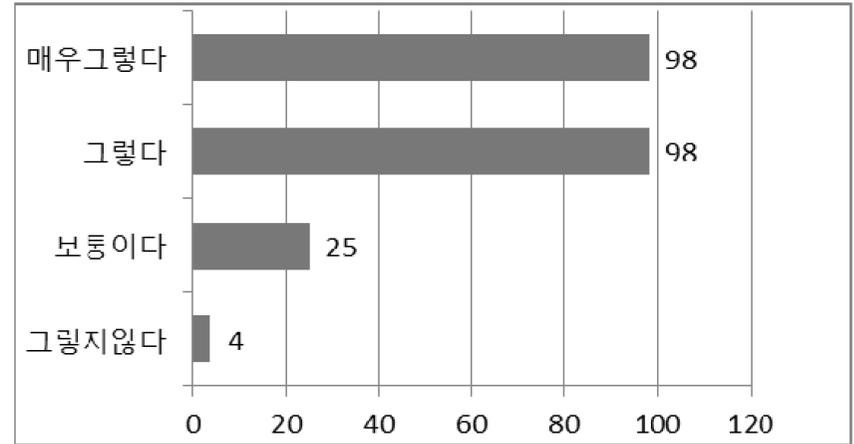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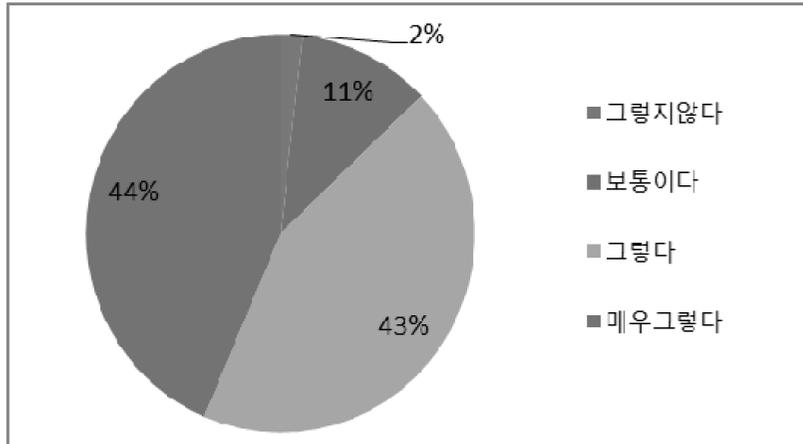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좋다.

구 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4	2
보통이다	25	11
그렇다	98	43
매우그렇다	98	44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7%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이 좋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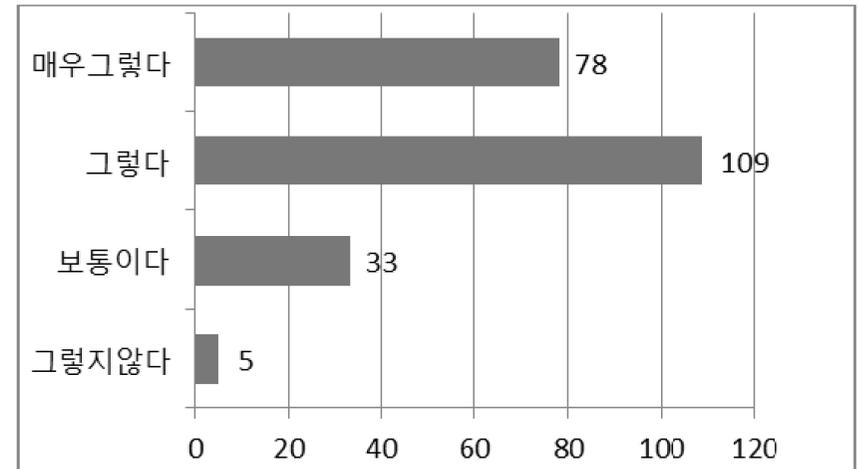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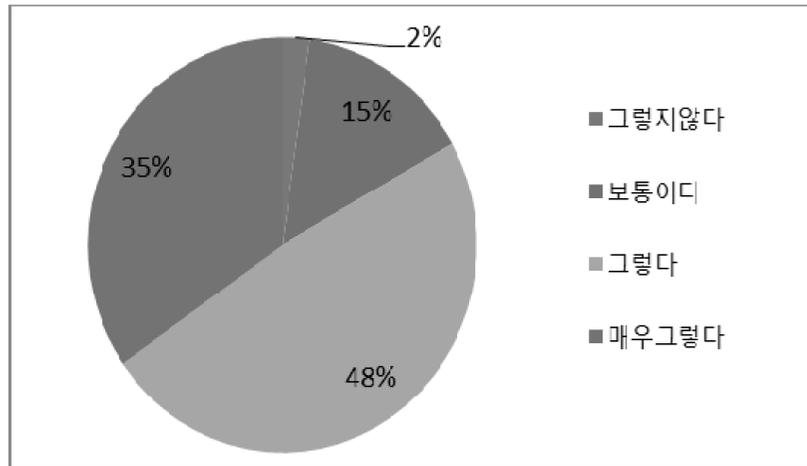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5	2
보통이다	33	15
그렇다	109	48
매우그렇다	78	35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3%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에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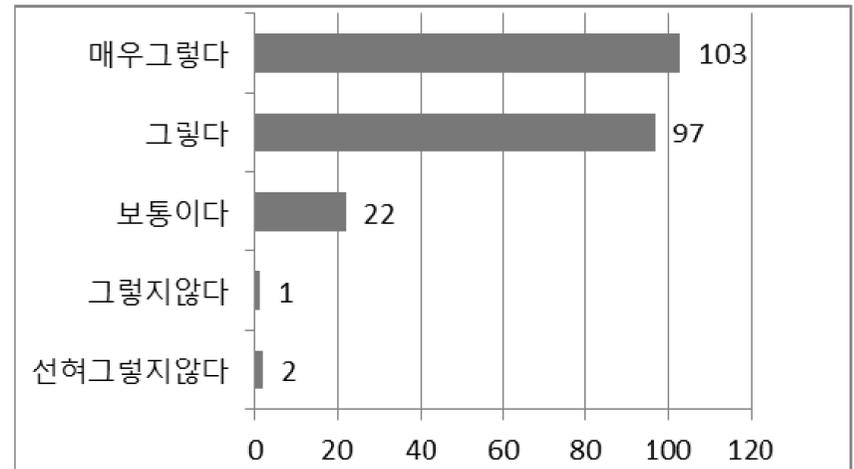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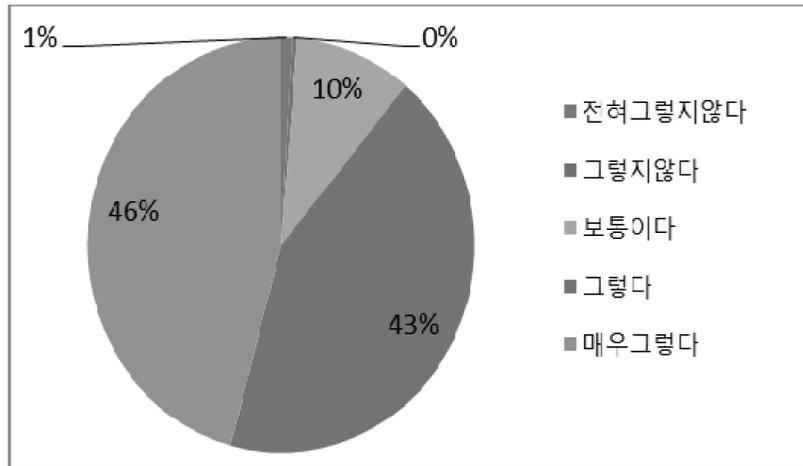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2	1
그렇지않다	1	0
보통이다	22	10
그렇다	97	43
매우그렇다	103	46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9%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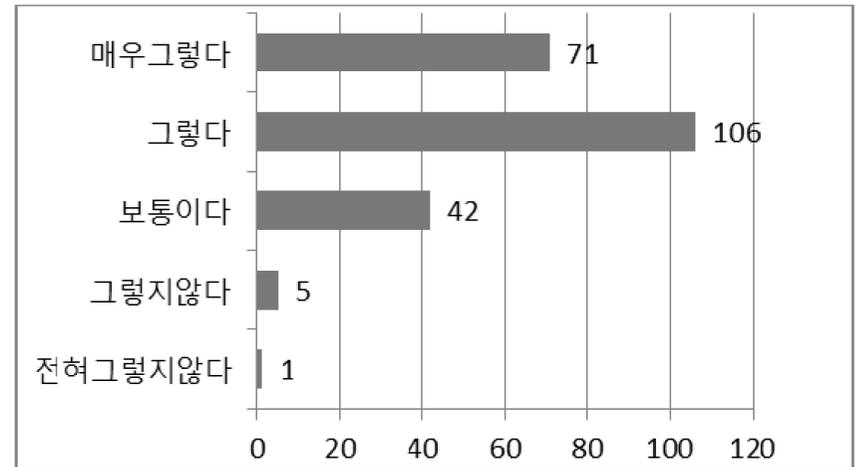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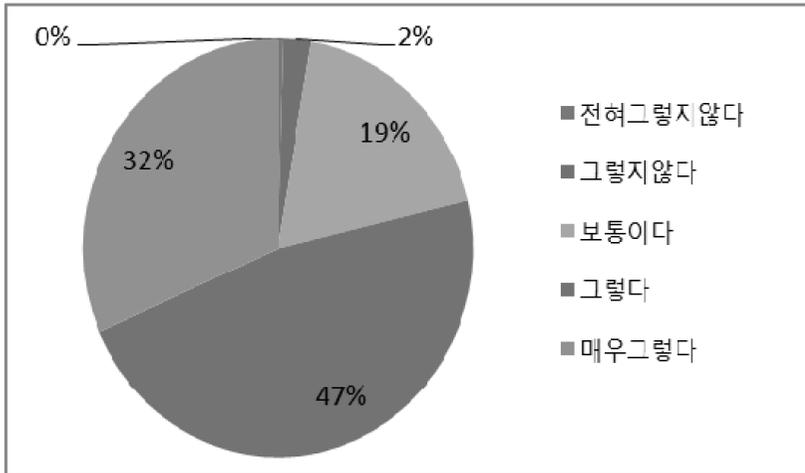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1	0
그렇지않다	5	2
보통이다	42	19
그렇다	106	47
매우그렇다	71	32
합계	225	100



응답자의 79%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이 주민간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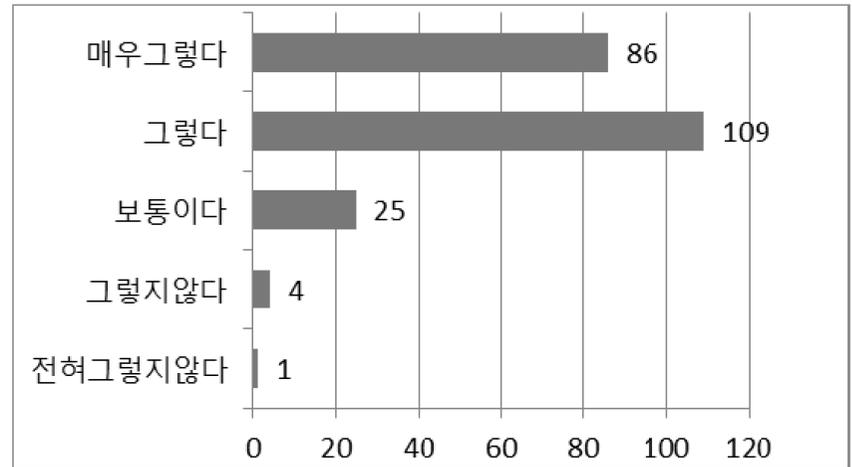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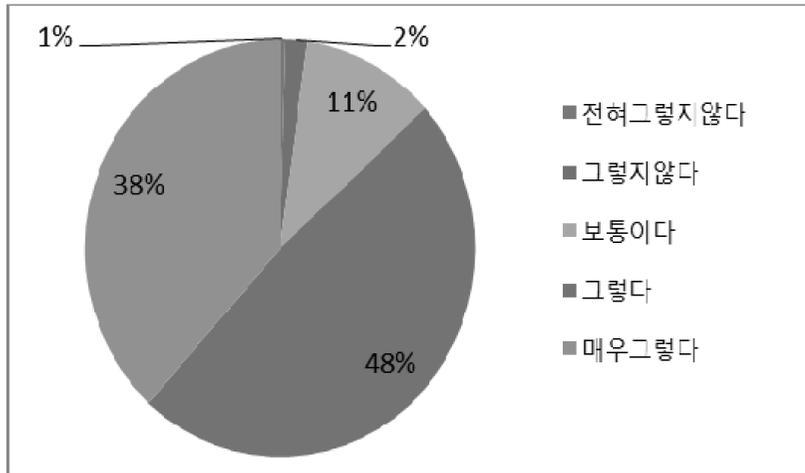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에 대한 소속감, 애착심을 높인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4	2
보통이다	25	11
그렇다	109	48
매우그렇다	86	38
합계	225	100

➔ **응답자의 86%**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높인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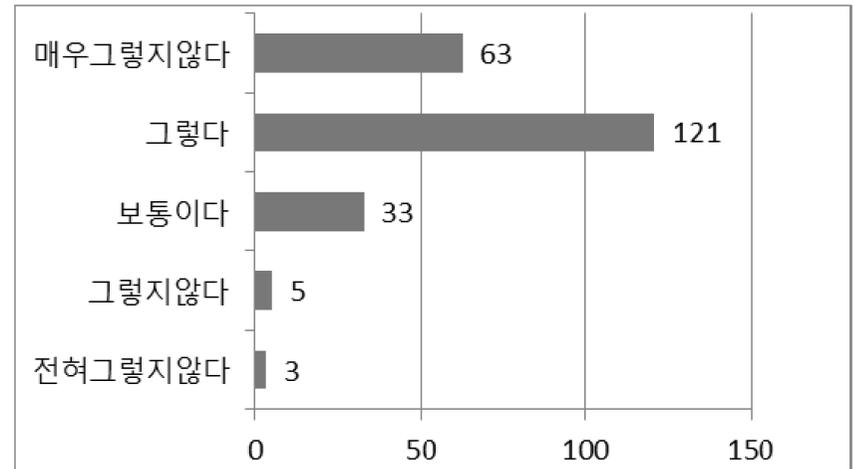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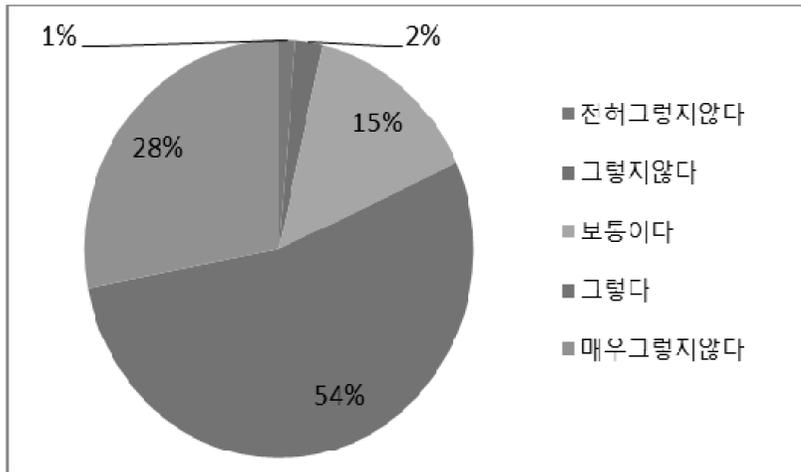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3	1
그렇지않다	5	2
보통이다	33	15
그렇다	121	54
매우 그렇다	63	28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2%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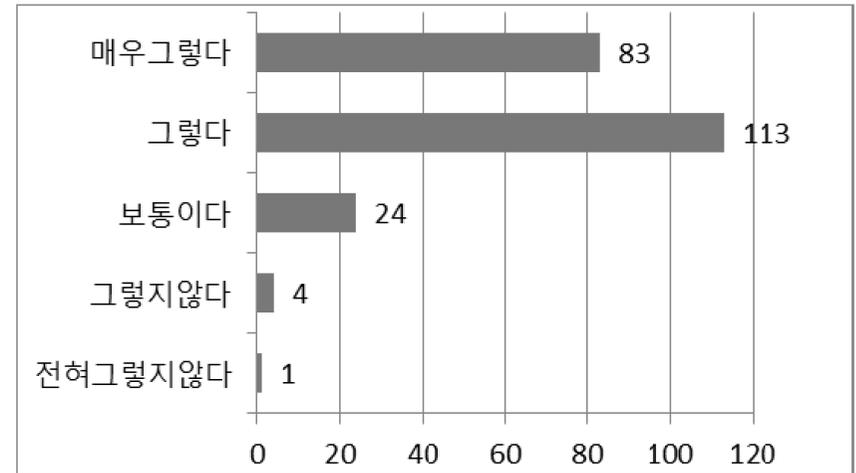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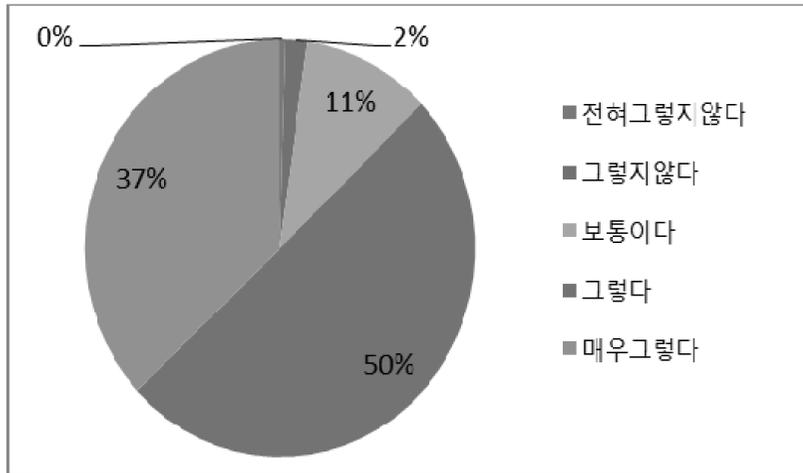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 공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한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1	0
그렇지않다	4	2
보통이다	24	11
그렇다	113	50
매우그렇다	83	37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7%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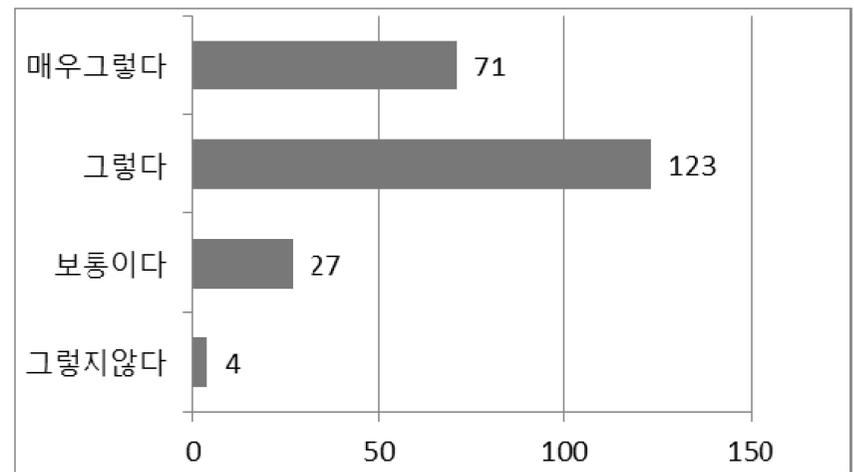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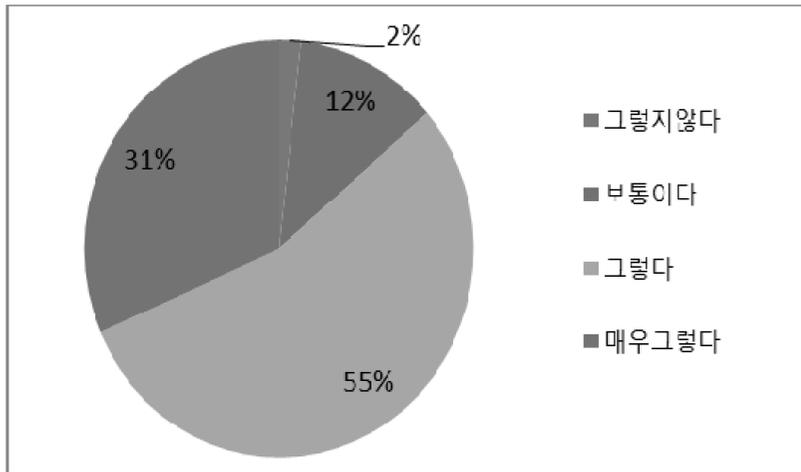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 사업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구 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4	12
보통이다	27	12
그렇다	123	55
매우그렇다	71	31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6%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이 마을사업의 실천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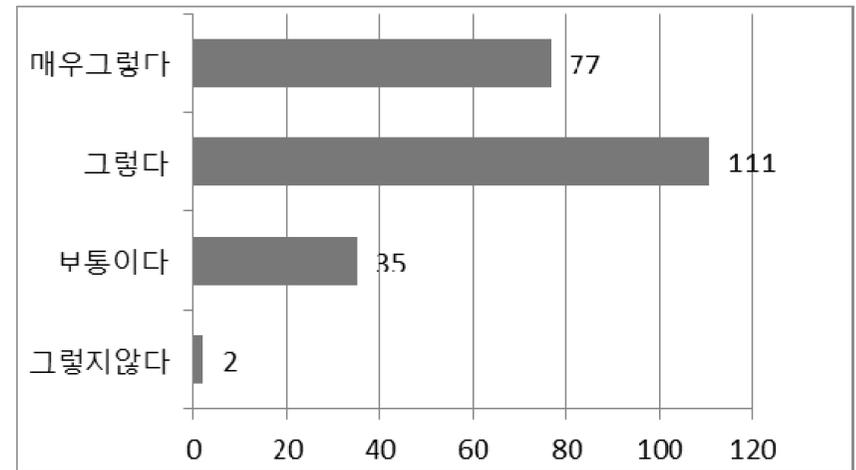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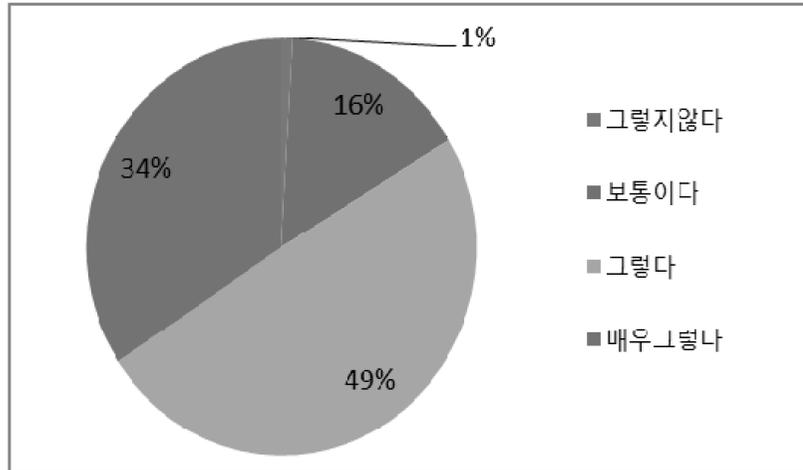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우리 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구 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2	1
보통이다	35	16
그렇다	111	49
매우그렇다	77	34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3%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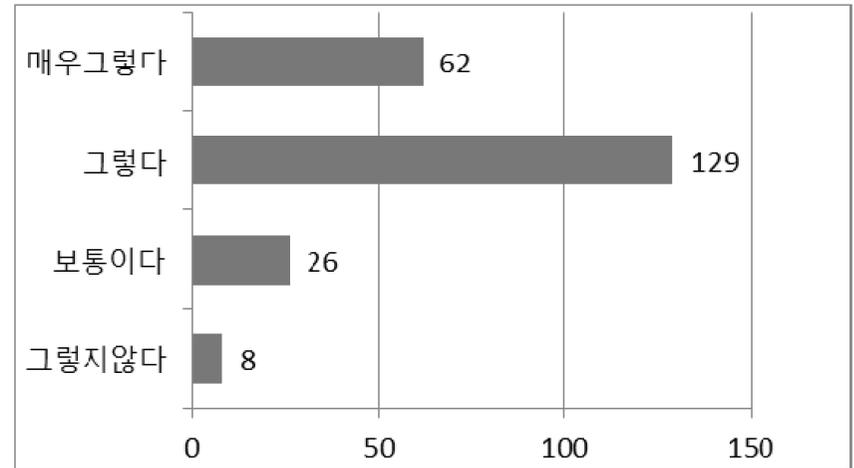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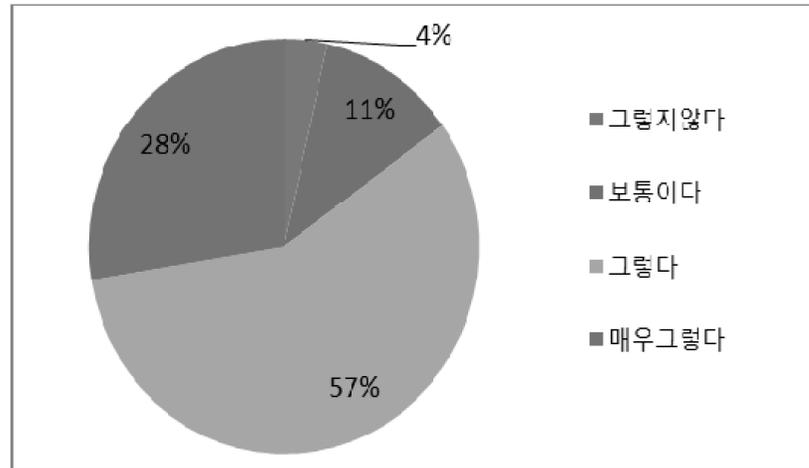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컨설팅에 비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8	4
보통이다	26	11
그렇다	129	57
매우그렇다	62	28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5%가 그 동안 받았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컨설팅에 비해 **현장포럼이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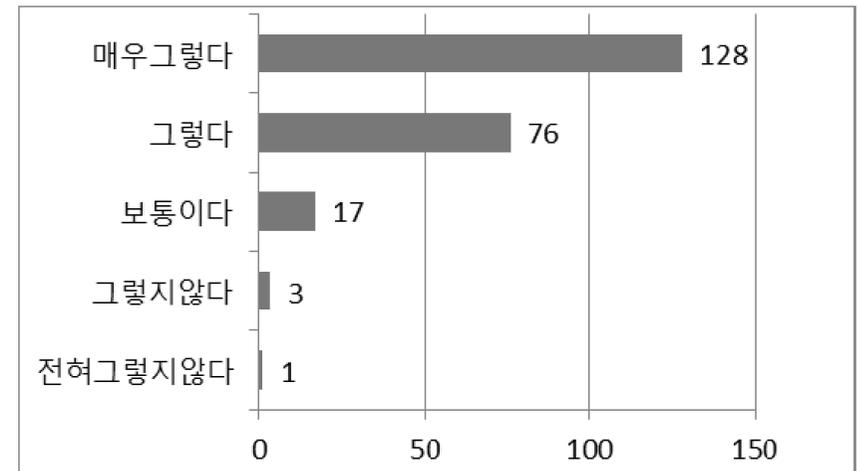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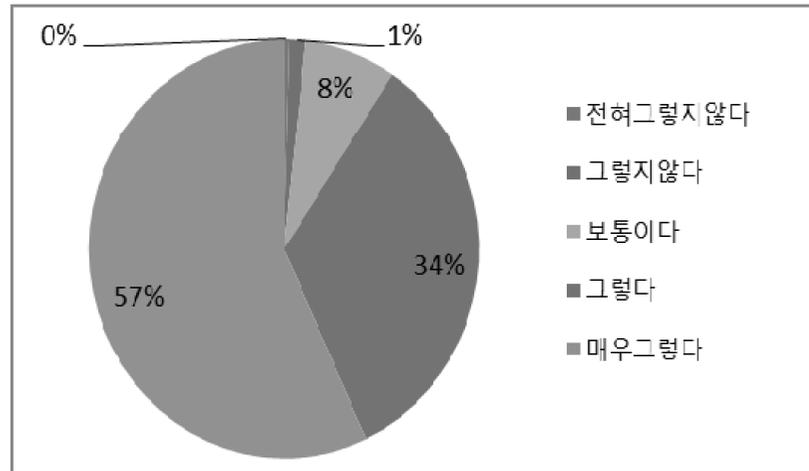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1	0
그렇지않다	3	1
보통이다	17	8
그렇다	76	34
매우그렇다	128	57
합계	225	100


응답자의 91%가 현장포럼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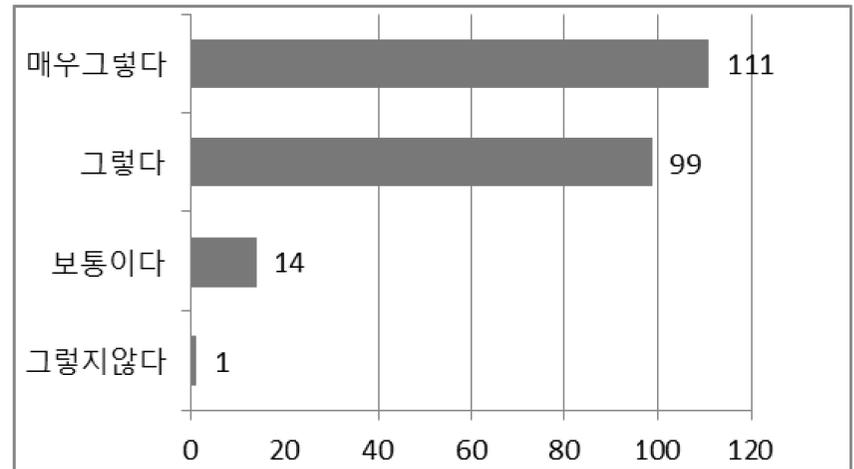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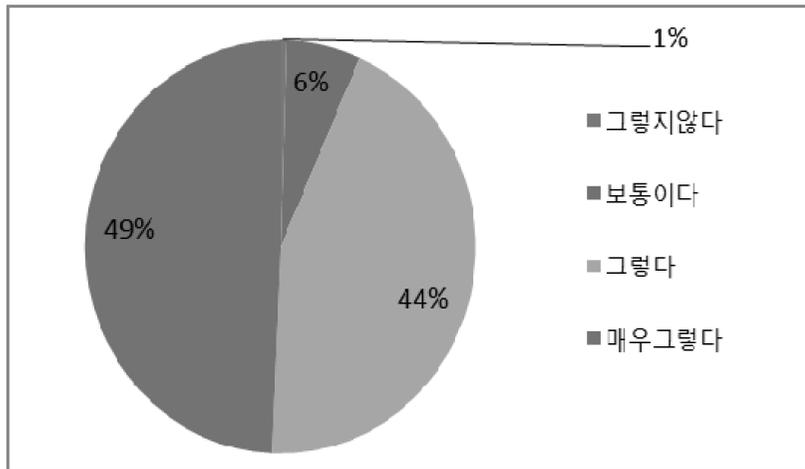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1	1
보통이다	14	6
그렇다	99	44
매우그렇다	111	49
합계	225	100



응답자의 93%가 **현장포럼이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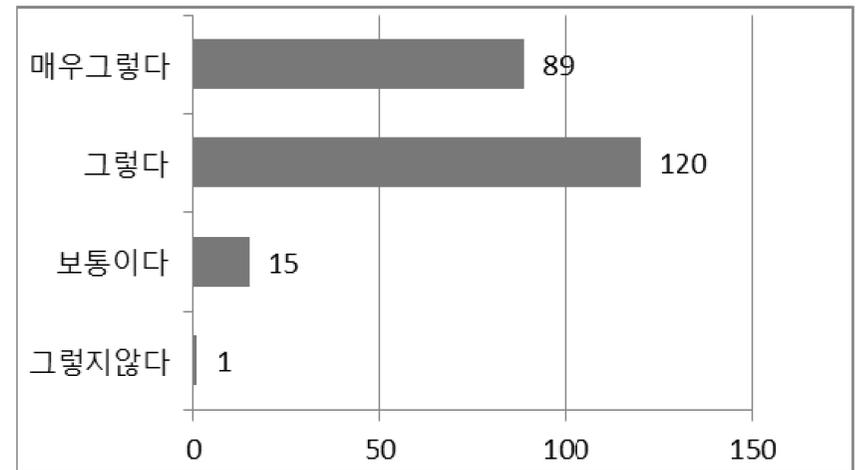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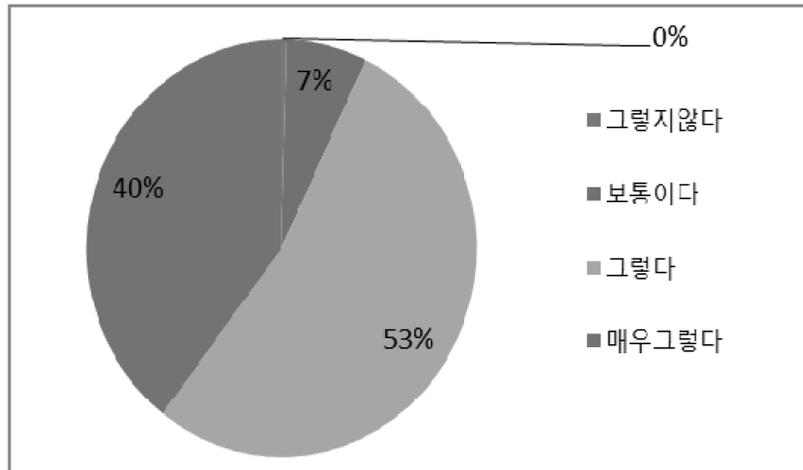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주민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구 분	빈도	백분율 (%)
그렇지않다	1	0
보통이다	15	7
그렇다	120	53
매우그렇다	89	40
합계	225	100



응답자의 93%가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주민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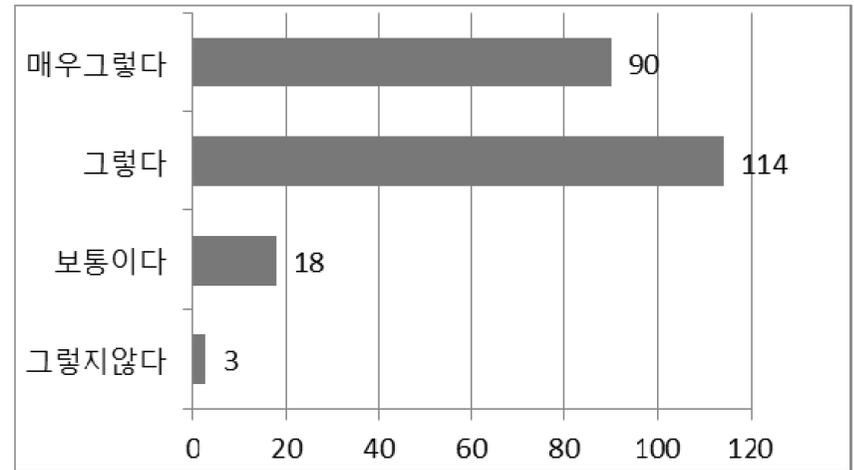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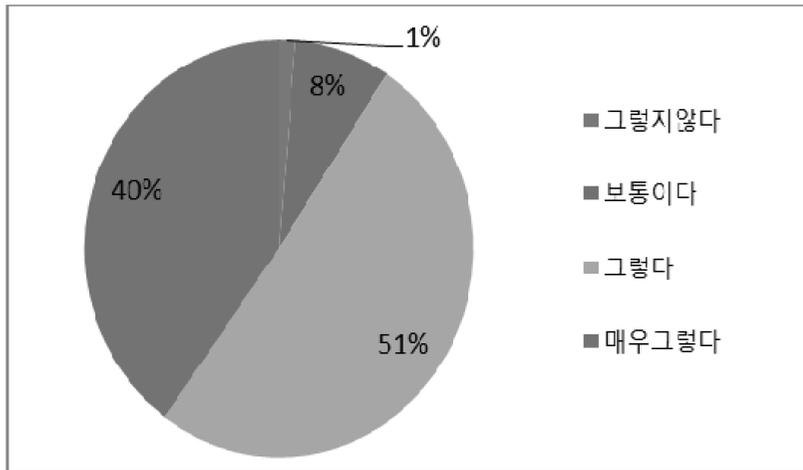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지않다	3	1
보통이다	18	8
그렇다	114	51
매우그렇다	90	40
합계	225	100



응답자의 91%가 **현장포럼이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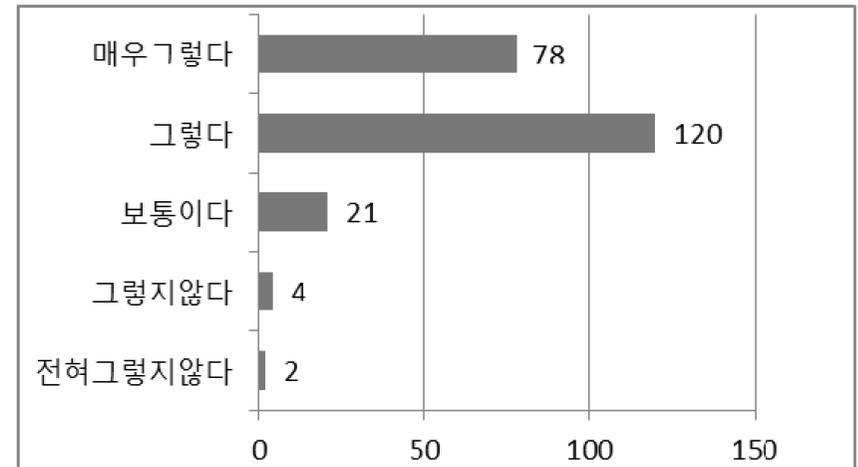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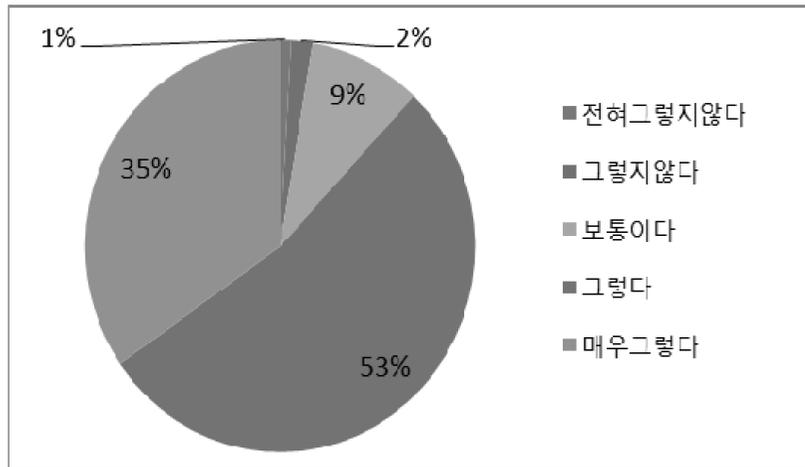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행정에 도움이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2	1
그렇지않다	4	2
보통이다	21	9
그렇다	120	53
매우그렇다	78	35
합계	225	100



응답자의 88%가 현장포럼이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행정에 도움이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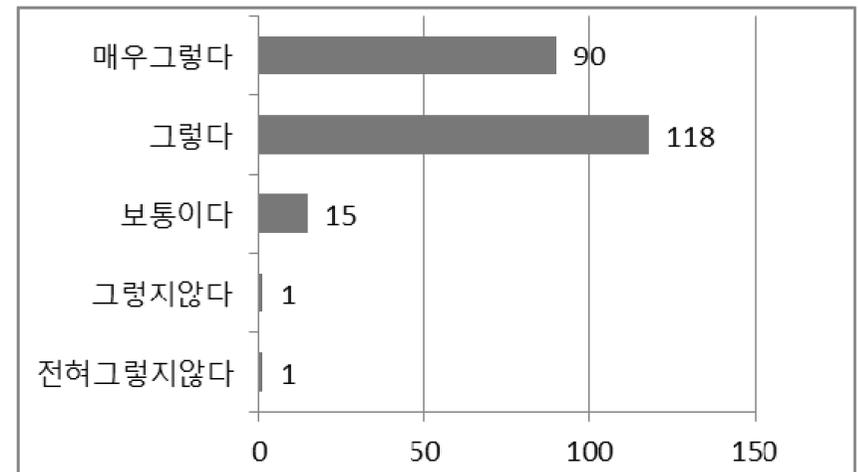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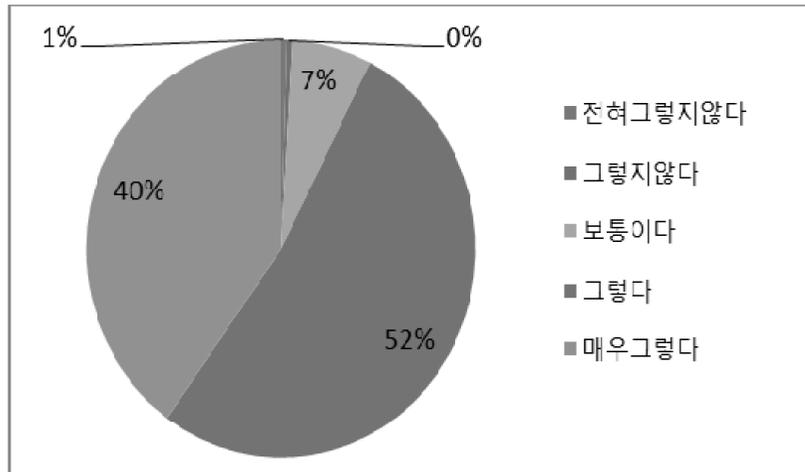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그렇지않다	1	1
그렇지않다	1	0
보통이다	15	7
그렇다	118	52
매우그렇다	90	40
합계	2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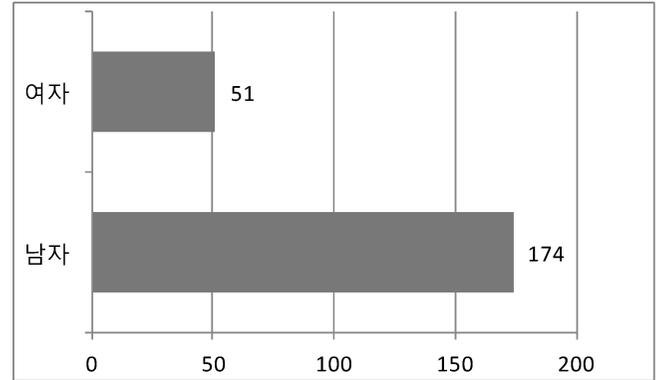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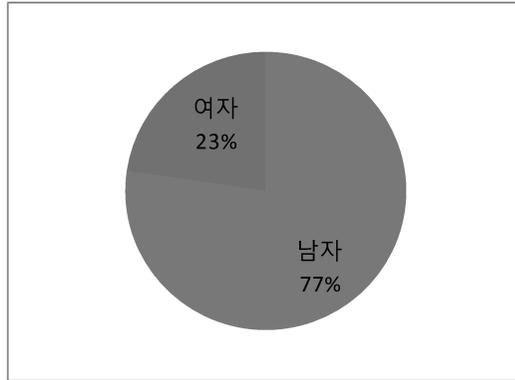
응답자의 92%가 현장포럼이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응답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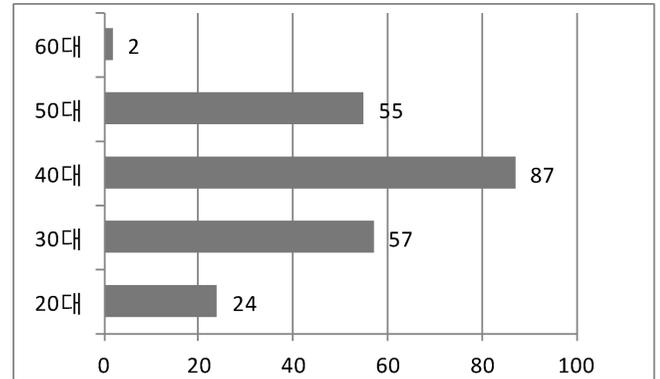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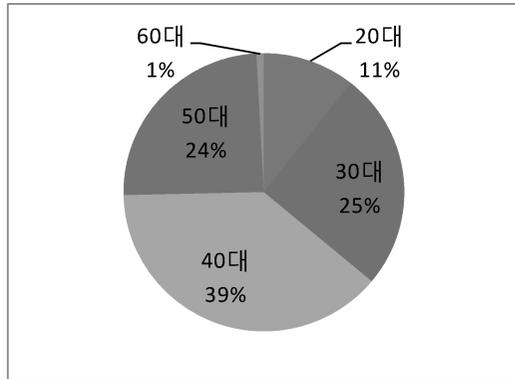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남자	77	174
여자	23	51
합계	100	225



▪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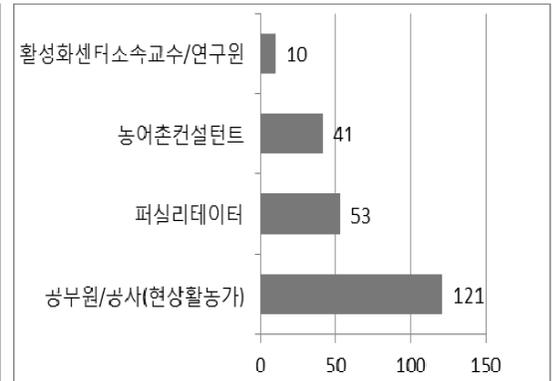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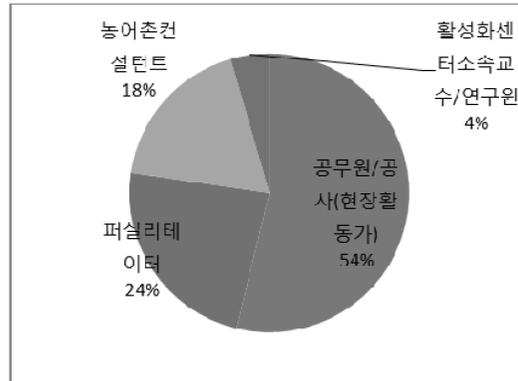
구분	백분율(%)	빈도
20대	11	24
30대	25	57
40대	39	87
50대	24	55
60대	1	2
합계	100	225



응답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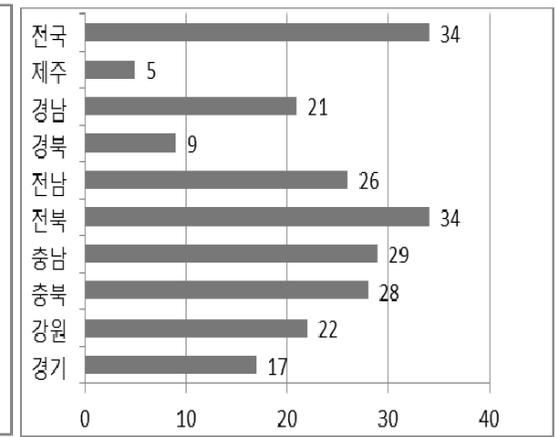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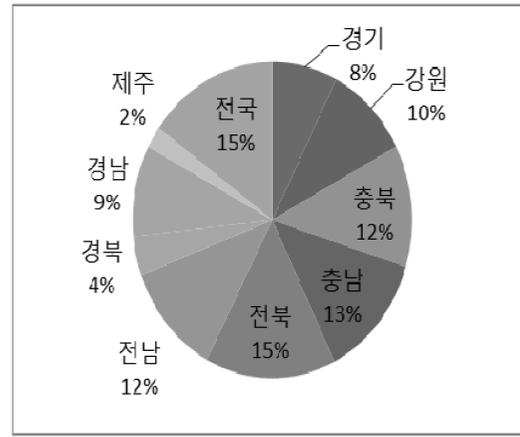
▪ 현장포럼에서 귀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공무원/공사(현장활동가)	54	121
퍼실리테이터	24	53
농어촌컨설턴트	18	41
활성화센터소속교수/연구원	4	10
합계	100	225



▪ 귀하가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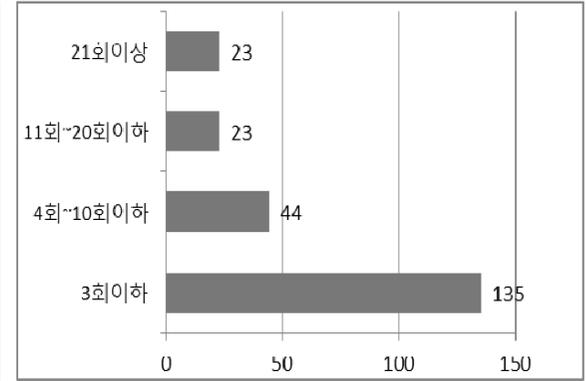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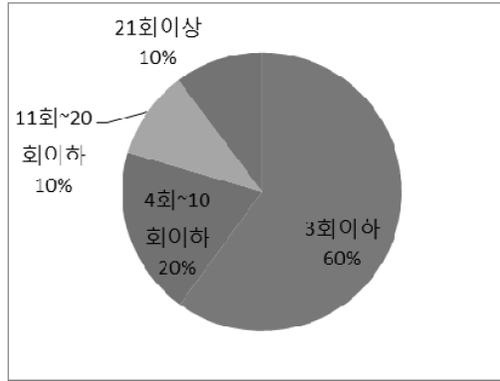
구분	백분율(%)	빈도
경기	8	17
강원	10	22
충북	12	28
충남	13	29
전북	15	34
전남	12	26
경북	4	9
경남	9	21
제주	2	5
전국	15	34
합계	100	225



응답자의 일반특성

▪ 현장포럼에 참여 또는 참관한 적이 있다면 몇 회 입니까?

구분	백분율(%)	빈도
3회 이하	60	135
4회~10회 이하	20	44
11회~20회 이하	10	23
21회 이상	10	23
합계	100	225



3. 현장포럼 시범마을 전화 모니터링 요약

현장포럼 시범적용 마을_1차 모니터링

대상마을	현장포럼후속 간이전화인터뷰	비고
평창군 약초마을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마을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 좋았음. 계획을 세우고 마을 개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됨.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마을에 사업비가 들어온 것은 없음. 포럼의 목표가 그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음	
여수시 상관마을	큰 변화는 아니지만 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변화함	
음성군 대실마을	큰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하지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됨	
안동시 마애마을	앞으로 마을에서 추진할 사업을 정했고 연말에 정부에 지원금 지원 신청할 예정	
연천군 푸르내마을	현장 포럼을 여러 번 했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지만 포럼을 통해 마을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 마을 주민들과 대화의 기반이 되었음	
화성시 상두리마을	마을주민들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변화했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빨라짐. 또한 갈등이 없어졌음. 교육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음	
용인시 학일마을	마을주민들이 합심하는 일이 많아졌음 당시에는 반응이 좋았다 현재는 농사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다지 진행하지 않고 있음	
안성시 매향골마을	마을사업을 체험형으로 많이 추진하게 됨. 큰 소득은 아니지만 발전해가고 있음	
광주시 추곡마을	큰 변화가 없음	
횡성군 개나리마을	도움이 많이 되었음. 마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완화가 되었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마을 문화재 발굴 등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관리하는 중	
양구군 고대리마을	주민들의 의식 변화;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가하려는 의지 증대	
인제군 산촌버섯마을	긍정적으로 봄, 현장포럼에서 찾은 자원을 실제로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영	
양양군 해담마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포럼 한 두 번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음	
강릉시 한울타리마을	더 확대되어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했으면 함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서 좋았음	

현장포럼 시범적용 마을_1차 모니터링

대상마을	현장포럼후속 간이전화인터뷰	비고
보은군 친환경장수마을	마을 자원을 찾았던 것이 기억에 남음. 장수마을로 선정되어 그 방향으로 사업. 그러나 마을주민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보통임.	
괴산군 사오랑마을	현실에 맞지 않음: 횡수가 적어 실질적으로 마을 진단이 되지 않았음. 주민들의 호응도 낮았음	
영동군 황금을 따는 마을 (임계리 마을)	좋은 효과: 주민들이 사업 기획도 가능, 주민들의 생각 변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사업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됨	
단양군 방곡도깨비마을	주민들에게 도움 되었다. 의식 구조 변함	
공주시 산수박마을	올해 마을에 새로 와서 작년에 진행한 현장포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 사무장 외에는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를 것이라고 함.	
서천군 심동 산촌생태 마을	나름대로 재미있고, 활기차고 좋았음 교육 후에 진행사항 등의 후속조치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자 느슨해졌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사업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절차를 밟는 건데, 따로 마을에서 교육이 끝나면 총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가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선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음	
당진시 솔오지마을	현장포럼 이후 주민들의 생각은 별 다른 변화 없으나, 추진위원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마을현안사업을 주민들의 생각을 포스트잇으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됨 콩, 메주 등 농림부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중 임. 충남 희망마을 만들기로 연계하여 사업비를 받음	
부여군 구례울마을	도움이 됐음. 주민 간 화합이 되고,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많이 깨닫고 사업에 열심히 참여함	
홍성군 진죽마을	현장포럼을 통해서 진행과정 등을 시골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교육 이면서도 좋은 상식이라고 생각함. 현장포럼 후 마을주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마을 계획도 다 이루어 놓고, 차질 없이 진행 중임	

현장포럼 시범적용 마을_1차 모니터링

대상마을	현장포럼 후속 간이전화 인터뷰	비고
정읍시 사교마을	좋았음. 주민들이 전부 합동해서 행사 하는데 참여 잘 이루어지고, 전체가 합동으로 잘 함. 처음으로 해본 사업이라 그 전과 많이 달라짐. 서로 의심을 안하고, 단합함.	
남원시 동편제마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주민들, 나이 많은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음. 하지만 현장포럼이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단번에 변화하는 것은 없음.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현장포럼과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함	
김제시 난산마을	주민들 반응이 좋았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 외형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다만 제일 처음 현장포럼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몰랐고,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지 잘 몰랐는데, 교육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었음. 꼭 지도자가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낌. 더불어 우리마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음	
함평군 가덕마을	좋았다. 현장포럼을 통해 몰랐던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많이 생겼음.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없음	
상주시 북장리마을	마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됨. 시군에서는 사실 뭘 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음.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촌개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환경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음	
예천군 출렁다리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구한 답이 별로 나온 것이 없음. 그냥 전부다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좋은 안건이 나오는 게 없었음. 단합하는 것으로는 좋은 결론이 나왔음. 하지만 적절하게 회의를 해서 성과를 봤다라는 점에서는 미미함	
	달라진 점은 별로 없음. 다만 자주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나타났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점들(자주 안모이니까, 남의 말만 듣고 하니까.... 헛소문 등)을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마을 사람들이 함. 하지만 실제로 모임이 많아지지는 않았음 그래도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	

현장포럼 시범적용 마을_1차 모니터링

대상마을	현장포럼 후속 간이전화 인터뷰	비고
의령군 수암마을	좀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았음. 사전에 포럼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 미흡하고, 사람만 무작정 동원해서 진행함. 마을주민들은 모여서 먹은 기억밖에 없다고 함. 현장포럼 후로 변화한 것 전혀 없음.	
거창군 서편마을	현장포럼 교육 한 것은 좋았는데, 색깔있는마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후속적인 조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 아쉬움. 그리고 마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사업을 따와서 마을 기업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사업이 마무리 된 뒤에 수익이 생기면, 이후에 마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해 볼 예정임. 특별히 변화한 것은 없음. 마을주민들의 의식은 바뀌어 있지만, 지원이 전혀 없어서 아쉬움.	
제주시 청수마을	아주 좋았음.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강사 초빙하고, 현장에서 강의도 듣고 하니까, 현장포럼 하니까 반응도 좋았다. 현장포럼 이후에 마을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완화됐고, 협조가 잘됨.	
제주시 납읍리마을	지역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음.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색깔있는 마을로써 노력하고 있음.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함. 마을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현장포럼 시범적용 마을_1차 모니터링

마을명	인터뷰 내용	비고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1리	<p>현장포럼 진행 당시 좋았음. 주민들 또한 잘됐다는 평가를 했음. 그러나 아직 자원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신청을 하지는 못했음. 오늘도 희망마을 현장에서 연락은 왔는데(작년에 선정이 됨) 보조를 받을 수는 없나 고민하여 자원을 개발하려 했으나 잘 안됨. 인재 등이 부족하여 업무가 안 남.</p>	
논산시 광석면 갈산1리	<p>진취적이지 못한 마을이어서 처음 이장 시작했을 때 걱정하였는데 희망마을 신청함. 회관도 꾸미고 여건이 되는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마을에서 진행할 때 반응이 좋았으나 금방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음. 작년에 희망마을 선정된 마을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언도 많이 해주심. 마을의 여건에 맞게 진행하려고 함. 모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주 모이고 있음.</p>	
논산시 노성면 가곡2리	<p>마을이 많이 좋아짐. 주민들 단합심이 증대되고, 마을 환경이 좋아짐. 도랑 사업 살리기 등을 고려하게 되었다. 주민 참여도 많이 높아짐. 이전에는 마을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또한 내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오늘 교육이 있는 것도 알 정도로 관심이 많음. 노성면 다른 마을들도 따라 하고 참여함 현재는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있음. 선정된 이후 도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도 개울, 천 등을 정비하는 등 변화가 있음.</p>	
논산시 노성면 구암리	<p>동네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끌어 내어서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음. 이장님도 바쁘고 농사일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함.</p>	
논산시 벌곡면 수락1리	<p>희망마을 3위로 선정되어 상금도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희망마을 연구포럼 안충호 회장과 이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주민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수락2리와 연계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p>	
논산시 연무읍 고내6리	<p>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통해 스스로 마을 가꾸기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p>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p>수립된 마을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과 연계하고 있음. 공동문화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 내 소주제 박물관 추진을 앞두고 있음.</p>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발 행 일 : 2013. 12

총 괄 : 김정희

기 획 : 이진, 박종윤, 신종갑, 윤정식

연 구 수 행 : (주)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62

이 책은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실시한 자료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지 합니다.
